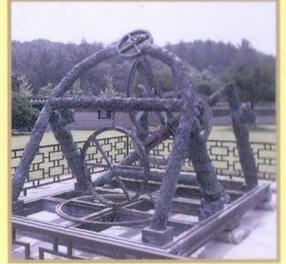


# 세종대왕의 얼



여주문화원

여

백

세종대왕의 일



66720

세종대왕 어진

〈석봉 조무호 작〉

2  
911.052  
이441

여

백

# 목 차

1. 발간사 및 축사	
(1) 발간사.....여주문화원장 한만규	— 1
(2) 축 사.....여주군수 박용국	— 2
(3) 축 사.....여주군의회 의장 신승균	— 3
(4) 축 사.....세종대왕얼 선양운동본부장 양암 조 헌	— 4
2. 머 리 말.....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준암 조성문	— 5
3.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360일	— 9
4. 세종대왕의 생애	— 35
5. 세종대왕의 사람들	— 85
• 태종...87	• 원경왕후...89
• 민제...91	• 소헌왕후...93
• 회안대군...95	• 양녕대군...98
• 효령대군...100	• 성녕대군...102
• 문종...104	• 단종...107
• 세조...110	• 안평대군...112
• 정소공주와 정의공주...114	• 세종대왕의 큰며느리들...116
• 황희...118	• 맹사성...120
• 유관...123	• 허조...125
• 윤회...127	• 최만리...130
• 남수문...132	• 정갑손...134
• 정인지...136	• 강희안...138
• 최윤덕...141	• 하경복...143
• 김종서...145	• 사육신...147
• 박팽년...148	• 성삼문...150
• 이개...152	• 하위지...154

- 유성원...157
- 신숙주...161
- 장영실...165
- 이천...169
- 정초...173
- 이인손...177

- 유응부...159
- 김시습...163
- 박연...167
- 이순지...171
- 노종례...175

6. 세종대왕을 그리며	179
7. 세종대왕의 병력	194
8. 영릉의 풍수	196
9. 세종대왕릉 이장 내력	198
10. 세종대왕릉 배치도	200
11. 조선왕조 가계도	201
12 참고문헌	202

우리 민족이 배출해 낸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세종대왕을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까닭입니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대는 문화의 융성기요 국운의 번창기였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으로 확정되고 대마도를 복속시켰으며 내치를 안정시켜 백성들은 천재를 당해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만큼 백성을 사랑한 임금도 드물 것입니다. 집현전을 세워 젊은 선비들을 모여들게 했고 공법과 농사기술을 개발해 농민들을 편하게 했으며 의서를 널리 배출해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대접을 받지 못하던 노비들 까지도 벼슬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비의 출산 휴가를 늘려주고 죄수들의 위생과 처우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으며 문초할 때 허리를 때리는 것이 비인간적이라 하여 엉덩이를 치도록 배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병법, 천문, 역법, 지리, 음악, 과학 등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한글 창제라는 불멸의 금지탑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훌륭하신 분을 곁에 모시고 사는 우리로서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은덕을 드높여야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주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세종대왕의 얼」은 세종대왕을 바로 알고 그 분을 기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역사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문화를 생각하고 도덕을 탄식하고 정치를 근심할 때마다 세종시대를 되돌아보고 거기서 해답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세종대왕의 얼」을 발간하는 이유도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단초를 세종시대에서 찾아보자는 간절한 마음에 다름아닙니다.

아무쪼록 「세종대왕의 얼」이 널리 읽혀져서 성군 세종대왕의 발자취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주문화원장 한 만 규

## 축사



1469년(예종 1년) 광주에서 세종대왕의 능침인 영릉이 옮겨오면서 이 땅은 여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주가 세종대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이 추앙해 마지않는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복된 땅 여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의 은덕을 기려야 하는 소명이 있으며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주 문화원에서

발간한 「세종대왕의 얼」은 이런 소망과 사명을 위한 뜻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1만 군민과 함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행사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여주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자랑해야 할 것은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과 그것을 임태한 여주 문화의 진수입니다.

유서깊은 여주문화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있습니다.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과감하게 결단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임금,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과묵하고 검소하며, 무엇보다도 형제애와 부부의 정이 두터우셨고 백성사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임금,

정사에 힘쓰기를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문과 무의 정치가 빠짐없이 잘되었고 거룩한 덕이 높으며 해동요순이라 불리웠던 임금, 이런 세종대왕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바로 여주를 자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주문화원이 펴낸 「세종대왕의 얼」은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충실한 길잡이로서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책이 발간되기까지 애쓰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주군수 박 용 국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행사가 펼쳐지는 시의적절한 때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종대왕의 얼」 발간을 축하합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성군이셨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글을 만드셨고 정치 경제 과학 농업 음악 천문 지리등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융성을 이룩하였으며 그 시대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조선 500년 역사상 백성들이 가장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나 치적에 대하여는 역사교육이나 기념행사 또는 방송등의 매체를 통하여 배우고 접할 기회는 많이 있었으나 이는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고 깊이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주문화원에서 세종대왕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세종대왕의 얼」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발간은 매우 의미있고 뜻 깊은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발간으로 인하여 그분의 훌륭한 업적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후손 만대에 길이 길이 전래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 분야를 밝히는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발간되는 「세종대왕의 얼」이 대왕님의 높은 품격에 버금가는 전문 명서가 되어 여주 문화원은 물론 문화와 관광의 고장 우리 여주를 다시 한번 만방에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만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축사



민족이란 불변의 혈통이며 영원한 민족사의 소유 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펼쳐가며 긴긴 문화와 전통을 재 음미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껴본 경험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정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꼭 지녀야 할 공통 분모입니다.

세종대왕님 재위 32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외교 국방 도덕 과학 음악 천문 지리 의학 농.상.공 문 학 인쇄술 훈민정음 반포등 우리민족의 역사에 유 례가 없는 업적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

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민족사에 찬란히 빛나는 성군 세종대왕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루도 잊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세종대왕님의 전기를 여주 문화원에서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드 리며 그간의 노고에 주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애국자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구심점이 없는 가운데 그저 지금 표류만 계속하고 있으니 말입 니다.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성군 세종대왕님을 표상으로 구심점 을 만들어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자는 평소의 소신을 밝힙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 중국사람들은 '중화사상', 일본사람들은 '야마도 다마 시' 정신을 구심점으로 삼듯이 우리도 '세종정신'으로 우리민족의 총단결을 이루 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주문화원이 발간한 「세종대왕의 얼」은 세종대왕 님을 올바로 알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흩어진 민족혼을 한데 모으는 촉매작용 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읽는 이들의 가슴마다에 성군 세종대왕 님의 얼이 확고하게 자리하기를 고대하며 다시한번 「세종대왕의 얼」의 발간을 축 하드립니다.

세종대왕 얼 선양운동본부장 양암 조 현

봄 한철 내내 전국이 호된 가뭄에 시달렸다. 논과 밭이 타들어가고 가슴마저 메말라서 비에 대한 갈망이 하늘에 사무칠 즈음, 나는 한줄기 비를 만났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겸손이라는 단비였다.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었지만 아내 소헌왕후를 장사지낼 때 장차 자신도 문힐 무덤자리를 놓고 신하들에게 “명당, 명당하지만 부모님 발치에 묻히는 것만 하겠는가, 그러니 애써 찾지 말라.”던 임금, 세종대왕. 그 분이 사후 20년이 채 못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땅에 모셔지게 되는 것은 역사의 섭리에 다름아니다.



세상사 모두가 그러하듯이 세종대왕의 생애도 행복으로만 점철되지는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3살 짜리 딸과 20살이 채 되지않은 두 아들을 연거푸 잃었다. 큰며느리들이 말썽을 부려 큰아들 문종은 세 번이나 장가를 들어야 했다. 재위 32년동안 늘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렸고 형들을 내치라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신하들의 잘못도 임금 탓이고

백성들의 고통도 임금 탓이며

천재지변 조차도 임금 탓이라 여기며 평생을 겸손한 자리에 머물면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던 임금, 세종대왕. 이런 분이였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성군이요, 명군으로 칭송받는 것이 아니던가.

시절이 어려워도 아직은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오늘, 서툰 솜씨로나마 세종대왕이 몸소 행하였던 겸손의 흔적들을 모았으니 그 겸손의 단비를 가슴으로 맞으며 역사의 섭리에 업혀 희망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한다.

2001년 5월   준암   조성문

## 영릉과 세종대왕



자격루



세종전



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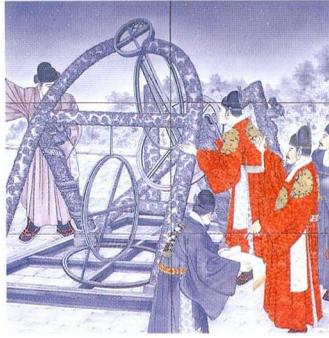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합장릉

영릉전경





대마도정벌도



간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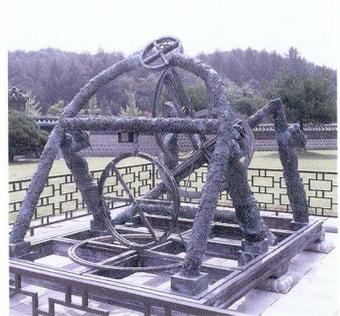
촉우기



세종대왕 동상



양부일구



간의



풍기대

여

백

#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360일



〈석봉 조무호 작〉

육진개척도

여

백

#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360일

## 세종대왕의 1월

- 1월 1일** 황제에게 정조하례 하고 신하들의 하례 받고 상왕에게 하례하다.  
(세종 1년)
- 1월 2일** 일본국 사신 규주등이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자 단식하다. (세종 6년)
- 1월 3일** 황희, 맹사성이 학문 진흥책을 올리다. (세종 11년)
- 1월 4일** 서울 내외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다. (세종 10년)
- 1월 5일** 야인, 우지합, 벌동합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 1월 6일** 왕자 이구(임영대군)가 출생하다. (세종 2년)
- 1월 7일** 충주사고의 서적목록을 열람하고 관람한 책을 가져오게 하다.  
(세종 3년)
- 1월 8일** 대간들이 직무를 전폐하고 양녕을 탄핵하나 윤휴하지 않다.  
(세종 20년)
- 1월 9일** 혼례예물을 간소하게 하도록 하다. (세종 5년)
- 1월 10일** 양녕을 서울과 외방에서 살게하다. (세종 20년)
- 1월 11일** 대소문신에게 주자소에서 인쇄한 <송파방> 한부씩을 내려준다.  
(세종 6년)
- 1월 12일** 집현전 직제학 신장과 김제에게 명하여 원자에게 <소학>을 가르치게  
하다. (세종 3년)
- 1월 13일** 형벌의 불가피함과 그 남용의 불가함에 대해서 논하다. (세종 11년)
- 1월 14일** 하찮은 일로 종루에 올라가 종치는 일을 금하다. (세종 17년)
- 1월 15일** 신문고를 친 장경지, 김양중을 시험에 응하게 하다. (세종 8년)
- 1월 16일** 내전에서 월식을 구하다. (세종 4년)
- 1월 17일** 사정전에서 양녕대군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구를 치다. (세종 12년)
- 1월 18일** 봄의 강무에 지방에서 방물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다. (세종 10년)
- 1월 19일** 일본국사인 규주에게 장삼과 신발 및 <대반야경>을 주다. (세종 6년)



- 1월 20일 안평대군 이용이 장가들다. (세종 11년)
- 1월 21일 효부·절부·의부·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세종 2년)
- 1월 22일 의정부와 육조에서 병으로 허약한 임금에게 고기반찬을 들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세종 27년)
- 1월 23일 역사와 산학을 공부하는 생도에 대한 고과와 서용을 정하다.  
(세종 30년)
- 1월 24일 수령의 딸이 혼인할 때 수령의 휴가를 없애고 부인이 집에서 혼인을 주관하도록 하다. (세종 7년)
- 1월 25일 세종대왕의 동생인 정선공주가 죽다. (세종 6년)
- 1월 26일 평안도에 양곡을 대여해 주어 기근을 구제하도록 하다. (세종 17년)
- 1월 27일 향교, 학당에 총명한자를 골라 사역원에 보내 몽고말을 배우게 하다.  
(세종 5년)
- 1월 28일 <고려사> 개찬에 대해 춘추관에 전지하다. (세종 31년)
- 1월 29일 경상·전라도에 각각 백성의 고통을 조사하기 위해 찰방을 보낸다.  
(세종 7년)
- 1월 30일 유관과 변계량에 <고려사>를 교정하여 올리다. (세종 3년)



**세종대왕 어록**

“내가 덕이 없이 신민의 위에 있어서 밤낮으로 잘 다스리기만을 도모하여, 나라가 태평함을 기약한 지 이제 여덟 해가 되었으나, 재앙과 변괴가 없는 해가 없었으며, 더욱이 이제 농사가 한창인 때에 한재가 너무 심하니,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니 잘못된 진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새벽에 조심하여 경계하고, 저녁에 두려워 삼가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노라. 혹시라도 형벌이 중도를 잃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함으로써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어 화기를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말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도다. 홍희(洪熙) 원년 6월 23일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죄가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다 용서하고 놓아주어서, 내가 재앙을 만나 위태로와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밝히게 하라. 너희 형조는 이 뜻을 중외에 효유하라.”



## 세종대왕의 2월

- 2월 1일 제주도 기민에게 양곡을 나누어 준다. (세종 1년)
- 2월 2일 소나무를 성균관의 주산에 심다. (세종 9년)
- 2월 3일 상왕이 양녕에게 간곡히 심회를 말하고 매사양이나 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다. (세종 1년)
- 2월 4일 각도의 감사 등에게 백성의 구호 치료에 힘쓸 것을 명하다.  
(세종 19년)
- 2월 5일 수재와 한재로 인한 백성구휼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 (세종 3년)
- 2월 6일 <검시장식>을 간행하여 각도에 반포하다. (세종 21년)
- 2월 7일 실농한 고을의 역사를 면제하게 하다. (세종 5년)
- 2월 8일 죄수들의 위생에 유의하라고 형조에 전지하다. (세종 11년)
- 2월 9일 황해도 감사에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유시하다.  
(세종 30년)
- 2월 10일 동서활인원에서 병들어 죽은 자에게 관을 주어 매장하게하다.  
(세종 19년)
- 2월 11일 진양대군 이유를 수양대군으로 고치다. (세종 27년)  
1408년 2월 11일 세종대왕은 충녕군에 봉해졌다.
- 2월 12일 연이은 흉년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잘 살피라는 왕지를 내리다. (세종 1년)
- 2월 13일 사헌부에서 금주령을 청하므로 3월부터 시행토록 하다. (세종 31년)
- 2월 14일 <농사직설>을 2품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다. (세종 12년)
- 2월 15일 <삼강행실계주서>를 각 고을에 보내다. (세종 25년)
- 2월 16일 왕녀는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다. (세종 4년)  
세종대왕은 1408년 2월 16일 심온의 딸과 결혼했다.
- 2월 17일 임금이 영응대군집 동별궁에서 흥하다. (양력 4월 8일) (세종 32년)
- 2월 18일 왕세자가 비로소 <논어>를 읽다. (세종 6년)
- 2월 19일 기근으로 버려진 아이를 구호하고 버린 이유를 끝까지 추궁하라고



유시하다. (세종 26년)

2월 20일 최만리 등이 언문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세종 26년)

2월 21일 온정에 거동하는 사이 흥천사 사리각 경찬회를 베풀게 하다.  
(세종 24년)

2월 22일 과거를 제술로만 치루는 것에 대한 보강책을 대신들에게 묻다.  
(세종 10년)

2월 23일 경상, 충청, 전라도의 왜적방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유시하다.  
(세종 27년)

2월 24일 모든 재계일수와 재계일의 금기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 (세종 27년)

2월 25일 세종대왕의 큰딸 정소공주가 죽다. (세종 6년)

2월 26일 흉년이 들어 강무를 정지하게 하다. (세종 28년)

2월 27일 여흥 팔대 숲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다. (세종 3년)

2월 28일 양원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는 의식을 갖다. (세종 19년)

2월 29일 의창의 취지가 살려지도록 할 것을 의정부가 건의하자 그대로  
따랐다. (세종 28년)

2월 30일 관찰사로 하여금 환상곡에 대한 조치를 규찰하게 하다. (세종 24년)

**세종대왕 어록**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절도를 심문함에 있어 전후에 범한 것이 비록 사실과 틀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서두르기 때문에 신장(訊杖)을 함부로 가 하며, 혹은 급히 자백을 받기 위하여 마음대로 난장(亂杖)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죄수가 도피한다고 핑계하고 오래도록 옥에 구류해 두고 꺾박하여, 이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중앙과 지방에 일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 세종대왕의 3월

- 3월 1일 서울과 지방에 역질이 성하다. (세종 6년)
- 3월 2일 임금이 다시 <태종실록>을 보려 하였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세종 20년)
- 3월 3일 사맹월과 식년시에 천문점산을 익힌자를 뽑도록 하다. (세종 9년)
- 3월 4일 광주의 관노와 관비의 부족을 이유로 관기를 없애자는 형조의 건의를 받아 들이다. (세종 1년)
- 3월 5일 호조에서 공법에 의거하여 전답 1결마다 조 10두를 거둘 것을 건의하니 모든이에게 그 가부를 물어 아뢰게 하다. (세종 12년)
- 3월 6일 근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왜인과 야인도 참여하다 (세종 17년)  
세종대왕의 영릉은 처음 광주 대모산에 있었으나 1469년 3월 6일 여주로 천장했다.
- 3월 7일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성밀 10리 이내의 백성들에게 군자미를 빌려주게 하다. (세종 27년)
- 3월 8일 <가례>에 의하여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이라야 혼인할 수 있게 하다. (세종 22년)
- 3월 9일 악공, 무공, 재량 등에게 다른 일은 시키지 말고 과업에만 전념하게 할 것을 예조에 전지하다. (세종 26년)
- 3월 10일 오래도록 처리 못한 일의 까닭을 기록하여 계달하라고 형조에 전지하다. (세종 15년)
- 3월 11일 야인을 토벌할 계책을 숙의하도록 김종서에게 명하다. (세종 19년)
- 3월 12일 예문대재학 윤희가 죽다. (세종 18년)
- 3월 13일 평안감사에게 백성들의 굶주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유지하다.  
(세종 29년)
- 3월 14일 당상관으로 제조를 천망할 때에 이전에 죄를 지은자는 반드시 죄명을 쓰도록 하다. (세종 31년)
- 3월 15일 <가례>의 규정에 따라 복색을 정하다. (세종 29년)



- 3월 16일 병들어 몸을 못쓰는 충청도 노인들을 구호하도록 하다. (세종 11년)
- 3월 17일 임금과 왕비가 온수현에 행행하다. (세종 23년)
- 3월 18일 집현전 관원과 동반 군기부정 이상에게 [초사]를 나누어준다.  
(세종 11년)
- 3월 19일 당상관으로 제조를 천망할 때에 불충, 불효를 범한 자들은 계분해서  
취지토록 하다. (세종 31년)
- 3월 20일 임금이 <태종실록>을 보려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그만두다.  
(세종 3년)
- 3월 21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죄인은 관에서 구호할 것을 전지하다.  
(세종 3년)
- 3월 22일 옥수들의 판결이 지체되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시하다. (세종 14년)
- 3월 23일 <당률소의>를 중외의 관원에게 나누어준다. (세종 9년)
- 3월 24일 옥에 갇힌 죄수를 병이 있는 자는 속히 치료하여 죽는 일이 없게 하다.  
(세종 7년)  
왕비가 수양대군 집에서 흥하다. (세종 28년)
- 3월 25일 최윤덕에게 야인 동맹아첩목아에 대한 처분을 비밀리에 전하다.  
(세종 15년)
- 3월 26일 신하들이 금법을 어기고 물건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임금이 웃어 넘겨 버리다. (세종 25년)
- 3월 27일 영릉에 제사할 때의 대군과 제군의 옷을 제복으로 정하다.  
(세종 30년)
- 3월 28일 왕자 이유(안평대군)가 출생하다. (세종 8년)
- 3월 29일 온수현에 사는 백성들에게 매호에 콩한섬과 벼두섬을 하사하다.  
(세종 15년)
- 3월 30일 <제가역상집>이 이루어졌다. (세종 27년)



## 세종대왕의 4월

- 4월 1일** 무릉도에서 온 남녀 17명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군에도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들이 있는지를 살펴 구원케 하다.  
(세종 1년)
- 4월 2일** 대제학 변계량이 화산별곡을 지어 바치다. (세종 7년)
- 4월 3일** 사정전이 완성되다. (세종 11년)
- 4월 4일**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일 것을 명하다. (세종 2년)
- 4월 5일** 불교를 선교 양종으로 통합하고 36개소의 절만 남겨두지는 예조의 계에 따르다. (세종 6년)
- 4월 6일** 경기, 충청감사에게 조운선의 파선으로 피해입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다. (세종 30년)
- 4월 7일** 국방에 종사하다 순직한 자의 집을 1년간 복호하는 법을 세우라 하다. (세종 14년)
- 4월 8일** 불충, 불효를 제외한 이죄 이하의 죄수들을 석방하게 하다  
(세종 2년)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세종 9년)
- 4월 9일** 도의 지도를 잘 옮겨 간직하고 병장에게도 보내라고 함길도에 전지하다. (세종 16년)
- 4월 10일** 매년 탄신하례를 정자시키다가 처음으로 신하들의 하례를 받다  
(세종 14년)  
세종대왕은 1397년 4월 10일 (양력 5월 15일) 한양 준수방에서 태어났다.
- 4월 11일** 한재로 감옥의 죄수들을 놓아주다. (세종 21년)
- 4월 12일** 야은 길재가 죽다. (세종 1년)
- 4월 13일** 김종서에게 야인토벌의 천시를 기다릴 것을 명하다. (세종 19년)
- 4월 14일** 재판의 기한을 넘기는 관리를 엄히 다스리게 하다. (세종 25년)
- 4월 15일** 영응대군 이염이 탄생하다. (세종 16년)



- 4월 16일 신하들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들것을 청하자 혼자만 마실 수 없다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다. (세종 15년)
- 4월 17일 소나무 양성기술과 병선수호의 방법을 상세히 아뢰도록 하다. (세종 6년)
- 4월 18일 광화문이 이룩되다. (세종 13년)
- 4월 19일 성균 유생들의 상소에 지나친 표현이 있었으나 이를 용서하다. (세종 21년)
- 4월 20일 충청도 진흥사, 경기·충정·전라도 경차관에게 굶주린 백성의 진흥에 힘쓸 것을 명하다. (세종 19년)
- 4월 21일 각도의 감사에게 전염병 구제조항에 의거 구료에 힘쓰라고 전지하다. (세종 14년)
- 4월 22일 부녀자들이 흥천사에서 불을 켜고 유람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세종 10년)
- 4월 23일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 구제하라 한성부에 이르다. (세종 14년)
- 4월 24일 임금이 여러해 동안 날이 가뭄을 걱정하다. (세종 5년)
- 4월 25일 태상왕의 병으로 임금이 고기반찬을 먹지 않다. (세종 4년)
- 4월 26일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다. (세종 16년)
- 4월 27일 비가 내렸으나 흠족치 않아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다. (세종 18년)
- 4월 28일 황해도 감사에게 흉년을 미리 조처할 것을 명하다. (세종 17년)
- 4월 29일 집현전에 숙직하던 남수문이 죽어 관곽과 쌀등을 하사하다. (세종 25년)
- 4월 30일 수감된 죄수가 일고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다. (세종 19년)



## 세종대왕의 5월

- 5월 1일 각도에 역질이 돌아 수령들에게 구료 처방을 내리다. (세종 1년)
- 5월 2일 왕자 이여(광평대군)가 탄생하다. (세종 7년)
- 5월 3일 임영대군 이구의 여색이 심하여 꾸짖어도 듣지 않으므로 그의 작첩을 빼앗다 (세종 21년)  
세종대왕은 1412년 충녕군에서 충녕대군으로 진봉되었다.
- 5월 4일 때아닌 진상은 금할 것을 명하다. (세종 16년)
- 5월 5일 역의 의무를 진자와 공사천인도 부모의 시묘를 할 수 있도록 하다. (세종 13년)
- 5월 6일 종대사 이외에는 세자에게 결재하게 하다. (세종 27년)
- 5월 7일 파저강의 승전을 종묘에 고할 것을 이르다. (세종 15년)
- 5월 8일 사간원에서 승도들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자고 아뢰었으나 불허하다.(세종 20년)
- 5월 9일 임영대군 이구의 고신과 처의 작첩을 도로 주다. (세종 26년)
- 5월 10일 태종이 연화방 신궁에서 흥하다. (세종 4년)
- 5월 11일 임금이 근정전에서 왕비를 책봉하다. (세종 14년)
- 5월 12일 남의 전지를 점령하여 분묘를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다. (세종 7년)
- 5월 13일 경기도와 충청도에 사람을 보내 굶주리는 백성이 있나를 살피게 하다. (세종 12년)
- 5월 14일 일본국왕이 죽어 정포 50필을 하사하다. (세종 7년)
- 5월 15일 병든 백성 구료에 마음을 다할 것을 황해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세종 25년)
- 5월 16일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정하다. (세종 25년)
- 5월 17일 수령의 집무에 대한 규찰을 강화하다. (세종 22년)
- 5월 18일 왕비의 어머니 안씨에게 작첩을 돌려주게 하다. (세종 8년)
- 5월 19일 가뭄으로 각전, 각궁에 울리는 술과 각도에서 초하루 등에 진상하는 것을 폐지하다. (세종 31년)



- 5월 20일 아인토벌의 계책을 세우도록 김종서에게 명하다. (세종 19년)
- 5월 21일 의창이 실질적으로 백성을 진휼할 방도를 의논하게 하다.  
(세종 26년)
- 5월 22일 원접사 허지가 의주에서 경기에 이르기까지 작황이 좋다고 아뢰자  
입금이 매우 기뻐하다. (세종 2년)
- 5월 23일 사람을 보내 이징옥이 오랑캐를 방어 공격하는 실태를 시찰하게  
하다. (세종 6년)
- 5월 24일 신문고 치는 것을 막은 의금부 당직원을 국문하게 하다. (세종 10년)
- 5월 25일 노인만을 구제하지는 호조의 건의에 장정들도 함께 구제할 것을  
명하다. (세종 5년)
- 5월 26일 동·서반 관원에게 한재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아뢴 것을 명하다.  
(세종 31년)
- 5월 27일 집현전에서 문신의 권학 조건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 12년)
- 5월 28일 의정부에서 전시장의 열좌와 시법의 엄격한 시행을 건의하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 23년)
- 5월 29일 대소인원의 범죄를 논단하는 일에 대해서 전지하다. (세종 11년)
- 5월 30일 한재로 인한 재변을 그치게 할 만한 일을 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세종 18년)

**세종대왕 어록**

“육에 갇혀 있는 것과 고문을 실시하는 것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중에도 늙은이와 어린이는 더욱 불쌍하다. 관리들이 간혹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형벌에 울러매며, 또한 늙은이나 어린이에게 속(贖)바치게 하는 것은 그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더러는 가벼운 범죄자에게도 곧 고문을 실시한다 하니, 지금부터는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게는 살인·강도 이외는 구속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모두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라. 만일 어기는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이니 두루 중앙과 지방에 알리라.”



## 세종대왕의 6월

- 6월 1일 각도에 <농상집요> <사시찬요> 등에 따라 경작할 것을 권면하다.  
(세종 5년)
- 6월 2일 가뭄 때문에 대언들에게 구언하는 교서를 내리다. (세종 1년)
- 6월 3일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화포의 효력과 실행여부에 관해 묻다  
(세종 23년)  
세종대왕은 1418년 6월 3일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세자로 책봉되었다.
- 6월 4일 <용비어천가>, <여민락>, <치화평> 등을 공사간 연항에 모두 통용  
케 하다. (세종 29년)
- 6월 5일 부녀자들은 갓을 써 얼굴을 가리고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다.  
(세종 26년)
- 6월 6일 화포 연습시에 사용한 돌로 된 탄환을 모아 두었다가 철환이 부족할  
때 쓰도록 하다. (세종 18년)
- 6월 7일 3품이하의 각 품관·군관 등이 순직했을 경우도 치부·치제를 다  
하게하다. (세종 14년)
- 6월 8일 한재를 걱정하여 각도에서 올리는 보름전후의 찬수를 없애라고  
명하다. (세종 9년)
- 6월 9일 상왕이 대마도 정벌을 중외에 교유하다. (세종 1년)
- 6월 10일 호조에서 목탄 비축책을 아뢰자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수이후로 미루고 궤내의 목탄사용량을 줄이게 하다. (세종 3년)
- 6월 11일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세종 15년)
- 6월 12일 일본국왕의 사신에 대한 예를 논하다. (세종 30년)  
세종대왕은 1450년 6월 12일 소헌왕후 심씨가 안장된 영릉 서실에  
합장되었다.
- 6월 13일 사관이 비로소 서연에 들어가게 하다. (세종 27년)
- 6월 14일 병환중인 대비가 죽을 조금 들자 입금이 기뻐하다. (세종 2년)
- 6월 15일 내금위의 선발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세종 25년)



- 6월 16일 최복차림으로 여막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 4년)
- 6월 17일 가뭄이 심하여 백성을 편하게 할 법령을 선포하다. (세종 7년)
- 6월 18일 외방에 안치되었거나 관노로 붙인 사람의 부모처지는 서로 왕래하게 하다. (세종 7년)
- 6월 19일 예조에게 수시로 귀후소의 관리를 규찰하게 하다. (세종 25년)
- 6월 20일 임금의 잘못, 정령의 그릇됨, 민생의 질고 되는 것을 숨김없이 아뢰게 하다. (세종 7년)
- 6월 21일 한재가 심하여 서울과 지방사람들도 집집마다 비를 빌게 하다. (세종 7년)
- 6월 22일 행수의 법을 세울 것에 대해 논의하다. (세종 25년)
- 6월 23일 <문헌통고>에 따라 인정과 파루에도 종을 치게하다. (세종 7년)
- 6월 24일 죄를 지어 조지서에서 도역을 하는 자를 모두 각기 살고 있던 고을 가까이로 이배시키도록 하다. (세종 26년)
- 6월 25일 젊고 총명한 자를 골라 외방을 익히게 하다. (세종 22년)
- 6월 26일 예의를 간편하게 할 방도를 의논하도록 하다. (세종 25년)
- 6월 27일 평안도 감사에게 야인에 대한 방비를 유지하다. (세종 29년)
- 6월 28일 강원도에 선차관을 보내 기민을 구출하게 하다. (세종 4년)
- 6월 29일 대마도 승전 소식이 전해져 3품이상이 수강궁에 나아가 하례하다. (세종 1년)
- 6월 30일 속절에 진상하는 함을 나전으로 꾸미지 않도록 하다. (세종 30년)

**세종대왕 어록**

“사람의 오장(五臟)은 모두 등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을 다쳐서 죽는 사람이 흔히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법을 세워서 등에는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공공연히 등에 매질을 하고, 또 개인 집에서 고문을 집행할 때에 대체로 등을 때리는 일이 많아서 사람의 생명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니 정말 마음 아픈 일이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나 그 외 누구든지 어린 사람이나 노비를 고문할 때에 등에는 매를 때리지 못하게 하여, 내가 백성에게 형을 집행하는 데 조심하는 취지에 부합되게 하라.”



## 세종대왕의 7월

- 7월 1일 심한 가뭄으로 농사 사정을 알아보고자 서문밖에 나가 두루 살피다.  
(세종 7년)
- 7월 2일 사간원에서 불교 억제책을 건의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세종 3년)
- 7월 3일 백성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 등에 관해 왕지하다. (세종 5년)
- 7월 4일 최윤덕의 실책을 용서하다. (세종 18년)
- 7월 5일 임금이 공법시행의 폐단에 대해 전지하다. (세종 22년)
- 7월 6일 변방의 백성들을 친근하게 대하여 도망가는 이가 없도록 하라고  
성승에게 전지하다. (세종 24년)
- 7월 7일 심한 더위로 경한 죄수들을 놓아준다. (세종 14년)
- 7월 8일 가뭄을 잘못된 정사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여기고 동반 각품과 서반  
4품이상은 밀봉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 25년)
- 7월 9일 임금이 김종서에게 도망 아인에 대해 전교하다. (세종 22년)
- 7월 10일 대비(원경왕후)가 별전에서 흥하다. (세종 2년)
- 7월 11일 의정부와 육조가 임금이 술품을 억제하기를 청하다. (세종 2년)
- 7월 12일 각도 관찰사에게 석방되지 아니한 죄수들을 무휼하여 병이 나지  
않게 할 것을 전지하다. (세종 25년)
- 7월 13일 각도의 도형수와 유배된 사람들을 석방하다. (세종 26년)
- 7월 14일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죄를 주도록 사헌부에 명령을  
내리다. (세종 6년)
- 7월 15일 황희와 신개의 의견이 다르자 승정원에 공법의 실행여부를 묻다.  
(세종 25년)
- 7월 16일 광연루에서 군신들과 연회하다. (세종 6년)
- 7월 17일 무당을 성밖에 모여 살게하고 부녀자의 내왕을 엄금하게 하자는  
사헌부의 건의를 따르다. (세종 13년)
- 7월 18일 임금이 감옥을 만들면 그 재앙과 화가 임금에게 관계된다는 말을  
부정하다. (세종 14년)



- 7월 19일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폐하고 그 일을 종묘에 고하다. (세종 11년)
- 7월 20일 유배된 자 등의 가족을 한데 모여 살 수 있게 하고 왕래하게 하라고 형조에 휘지하다. (세종 31년)
- 7월 21일 김종서에게 오도리 구원책을 전지하다. (세종 22년)
- 7월 22일 맹인 26인이 국상으로 음악을 금지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하니 각기 쌀 한섬씩을 주라고 명하다. (세종 6년)
- 7월 23일 왕세자빈 권씨가 원손(단종)을 낳아 대사면령을 내리다. (세종 23년)
- 7월 24일 왕세자빈 권씨가 졸하여 조례를 행하다. (세종 23년)
- 7월 25일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엄격히 군령대로 행할 것을 명하다. (세종 19년)
- 7월 26일 강원도 감사에게 무릉도(울릉도)의 위치를 탐문하여 계달하라고 전지하다. (세종 20년)
- 7월 27일 왕세자 빈의 아버지 권전을 불러 위로하다. (세종 23년)
- 7월 28일 임금의 가뭄을 걱정하여 18일부터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리다 병이 나니 의정 부와 육조가 문안하다. (세종 7년)
- 7월 29일 가뭄이 심하자 혹시 원통하고 억울한 죄인들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다. (세종 17년)
- 7월 30일 영의정 황희가 백관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원손의 탄생을 축하하다. (세종 23년)



**세종대왕 어록**

“성곽을 쌓거나 집을 짓고 수리하는 등, 토목(土木) 공사의 감역관(監役官)들 중 대부분이 백성을 애호하는 나의 본의는 본받지 않고 공사를 빨리 끝내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침 일찍 시작하고 밤늦게 파하는 등, 노고가 극심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말미암아 횡사(橫死)하는 자가 있다.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모다 부릴 경우, 서울은 제조(提調)가, 외방은 감사(監司)가 불시(不持)에 현장을 검사하여 혹심하게 부리는 것을 금하고, 만일 질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의원(醫員)에게 약품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여 구제해 주도록 하라.”



## 세종대왕의 8월

- 8월 1일 대신들과 흉년을 구제할 계획에 대해서 강구하다. (세종 9년)
- 8월 2일 서교에 행차하여 농사를 시찰하다. (세종 17년)
- 8월 3일 야인에 대한 방어책을 논의하다. (세종 16년)
- 8월 4일 임금이 도둑 없앨 방법을 묻다. (세종 15년)
- 8월 5일 백성들에게 꾸어 준 곡식을 거둘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논의하게 하다. (세종 10년)
- 8월 6일 명나라 사신 창성이 한 언행을 날날이 기록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다. (세종 12년)
- 8월 7일 집현전 장서각을 세울 것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세종 10년)
- 8월 8일 도둑이 성하므로 그 형벌을 논하다. (세종 18년)
- 8월 9일 금년의 곡식의 작황을 묻다. (세종 16년)
- 8월 10일 호조에서 공법실행의 찬반여론을 조사하여 아뢰다. (세종 12년)
- 8월 11일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세종 즉위년)
- 8월 12일 명나라 사신 이상과 창성의 방자함과 염치없음에 대해 이야기 하다. (세종11년)
- 8월 13일 윤희에게 수령의 기만구제 상황을 조사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 1년)
- 8월 14일 궁중에서 베푸는 양로연에 서민 남녀들도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다. (세종 14년)
- 8월 15일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완성하다. (세종 8년)
- 8월 16일 조정비밀에 관계되는 문서는 함봉하여 승정원 관리에게 주게하다. (세종 19년)
- 8월 17일 경보가 그치지 않는 북방의 평안을 위해 무사를 장려하게 하다. (세종 18년)
- 8월 18일 김종서에게 밤낮으로 공소에 머물면서 임금의 말을 밖으로 전하게 하다. (세종 13년)
- 8월 19일 조전선의 파선으로 죽은 이의 초혼제를 지내고 가족에게 식량을



- 주도록 하다. (세종 29년)
- 8월 20일 해청을 잡기위해 사신의 군사들이 민폐를 심하게 끼치므로 대책을 논의케하다. (세종 13년)
- 8월 21일 단군과 기자의 묘제와 삼국시조에 대한 치제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 9년)
- 8월 22일 금 채취시 민생고를 줄이는 방안을 의정부가 아뢰자 그대로 따르다. (세종 23년)
- 8월 23일 장마비로 인한 전라·충청도의 벼농사 피해를 살펴보게 하다. (세종 3년)
- 8월 24일 기사와 격궁에 능한 자에게 환도를 하사하다. (세종 22년)
- 8월 25일 죄수의 경상을 살펴 경한 죄인을 놓아준다. (세종 17년)
- 8월 26일 경기 남양에서 나는 돌로 석경을 만들어 시험하게 하다. (세종 7년)
- 8월 27일 기와를 굽는데 소나무를 쓰지 말도록 공조에 전지하다. (세종 10년)
- 8월 28일 중궁이 사정전에서 80세이상의 노부에게 연회를 베풀때에 양민과 천인도 부축을 받아 대궐을 출입할 수 있게 하다. (세종 14년)
- 8월 29일 양로연에 보통사람의 아내가 편한 복장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세종 15년)
- 8월 30일 김종서에게 변방방어에 전력할 것을 명하다. (세종 19년)

**세종대왕 어록**

“우리 나라의 의원은 의술을 정밀하게 알지 못하여 사람의 병을 진찰할 때, 방서(方書)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자기의 뜻으로써 함부로 문득 해(藥)가 없다고 하면서 인명을 상하게 하니, 이제부터는 진찰한 뒤에 함부로 해가 없다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방서를 자세히 참고하여 치료를 삼가서 하게 하라.”



## 세종대왕의 9월

- 9월 1일 서울 안의 병든 노비와 거지를 모아 구료하게 하다. (세종 17년)
- 9월 2일 아이를 버린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게 하고 길 잃은 아이는 제생원으로 보내게 하다. (세종 17년)
- 9월 3일 과거볼 때에 글을 외우게 하여 임금이 친히 심사하기로 하다. (세종 19년)
- 9월 4일 왜적의 침탈에 대비해 경상·전라의 각 고을과 포구에 만반의 경계를 갖출 것을 유지하다. (세종 26년)
- 9월 5일 <대학연의>를 종친과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세종 16년)
- 9월 6일 노인공경의 예의로서 노인에게 직품을 주는 원칙을 정하다. (세종 29년)
- 9월 7일 왕세자빈의 시호를 현덕이라 하다. (세종 23년)
- 9월 8일 <집성소화>을 주자소에 내려 인쇄하게 하다. (세종 10년)
- 9월 9일 세자가 영릉에 상식하고 목이 메어 울다. (세종 28년)
- 9월 10일 서울로 오는 기민들을 구제하다. (세종 4년)
- 9월 11일 임금이 후원에서 말을 타고 병이 난 이후의 기력을 시험해 보다. (세종 7년)
- 9월 12일 왕세손이 글을 강할 때의 예도에 대해 승정원에 묻다. (세종 30년)
- 9월 13일 좋은 음악을 만들 것을 승정원에 전지하다. (세종 27년)
- 9월 14일 윤희의 술마시기 좋아하는 결점을 책망하다. (세종 2년)
- 9월 15일 배를 만들어 마전도에 다리 놓게하다. (세종 2년)
- 9월 16일 호조에서 의창제도의 전실한 운영책에 대해 건의하자 그대로 따른다. (세종 5년)
- 9월 17일 임금이 악차에 거동하여 곡파무를 구경하고 늙은 기성 봉이에게 하사품을 내리다. (세종 7년)
- 9월 18일 흥년이 든 각도에 폐해를 덜어 줄 조건을 의논하여 보고할 것을 호조에 전지하다. (세종 15년)



- 9월 19일 왕자 이용(안평대군)이 출생하다. (세종 즉위년)
- 9월 20일 유관, 변계량등에게 <고려사>의 개수를 명하다. (세종 1년)
- 9월 21일 왕세자를 거느리고 희우정에 거동하여 전함을 구경하다. (세종 16년)
- 9월 22일 군왕앞에서 행하는 신하의 행동에 대해 허조에게 이르다. (세종 8년)
- 9월 23일 전함의 빠르고 둔한 것을 살펴보고 분별하게 하니 이날 의정부와 육조가 갖추어 아뢰다. (세종 16년)
- 9월 24일 눈보라가 심하여 관찰사 허후 등에게 사람과 마소를 구호하게 하다. (세종 26년)
- 9월 25일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여 제사하게 하다. (세종 7년)
- 9월 26일 노상왕(정종)이 인덕궁에서 흥하다. (세종 1년)
- 9월 27일 예조에서 병든 사람을 구료하는 사의를 조목별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 9년)
- 9월 28일 왕비의 탄신일이므로 잔치를 베풀다. (세종 25년)
- 9월 29일 <훈민정음>이 이루어져 정인지가 서문을 쓰다. (세종 28년)
- 9월 30일 채찍의 형벌을 가혹하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세종 17년)



**세종대왕 어록**

“옥(獄)을 설치함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고, 사람을 죽을 곳에 두고 자 함이 아니어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옥을 더럽고 비습(卑濕)하게 하며, 또 굶주리고 춥도록 구박하고 병에 걸리게 하여 일찍 죽는 데 이르기 쉬우므로, 그 구호하는 방법과 고찰(考察)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갖추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서 정녕히 효유 하였으나, 옥을 맡은 관리들이 받들어 행함을 철저히 못하여 드디어 죄수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이루게 되니, 조심하여 돌보아 주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다. 지금부터 서울 안에는 헌사(憲司)와 지방에는 감사가 거듭 밝혀 고찰하라.”



## 세종대왕의 10월

- 10월 1일 병조에 양산과 부채에 관해 전지하다. (세종 14년)
- 10월 2일 처음으로 양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다. (세종 16년)
- 10월 3일 임관할 사람이 시임인지 산관인지 구별하게 하고 낙점받은 자라도 임명여부를 다시 의논하도록 하다. (세종 25년)
- 10월 4일 좌의정 맹사성이 죽다. (세종 20년)
- 10월 5일 남녀가 다른 길을 건도록 하고 저자를 같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사헌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다. (세종 5년)
- 10월 6일 흉년이므로 크고 작은 연향을 정지시키다. (세종 18년)
- 10월 7일 처음으로 경연을 열고 경연관들이 <대학연의>를 강론하다. (세종 즉위년)
- 10월 8일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무모한 군사행동에 관해 전지하다. (세종 22년)
- 10월 9일 전옥서 수감죄인에 대해 먼저 보방하고 심리토록 전지하다. (세종 5년)
- 10월 10일 대간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다. (세종 28년)
- 10월 11일 삼군 도진무가 삼군진무에 관한 폐단과 그 개선책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 26년)
- 10월 12일 불필요한 관직을 없애다. (세종 16년)
- 10월 13일 진평대군 유(뒤에 수양대군)가 장가들다. (세종 10년)
- 10월 14일 벼슬을 제수할 때에 그동안의 벼슬한 기간을 통계하여 임용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세종 26년)
- 10월 15일 봉씨를 왕세자의 순빈으로 봉하다. (세종 11년)
- 10월 16일 <용비어천가> 5백 50분을 군신에게 내려주다. (세종 29년)
- 10월 17일 집현전 등에 명하여 효과적인 지방관의 임명과 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세종 13년)



- 10월 18일 임금이 박연에게 태조, 태종의 공덕을 찬양하는 가사를 1장 더 만들도록 이른다. (세종 14년)
- 10월 19일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의 양첩과 천첩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게하다. (세종 28년)
- 10월 20일 임금이 약재를 사서 백성의 병을 구제할 것에 관해 이른다. (세종 14년)
- 10월 21일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호조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전지를 내리다. (세종 5년)
- 10월 22일 태조와 태종의 어용을 그리게 하고 선원전에 봉안하도록 하다. (세종 26년)
- 10월 23일 하삼도 감사들에게 도적을 근절시킬 계책을 보고하도록 명하다. (세종 18년)
- 10월 24일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도 마땅한 시책을 펴지 않는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을 책망하다. (세종 25년)
- 10월 25일 흉년이 들어 정조, 동지, 생신에 진상하는 예물을 정지하게 하다. (세종 4년)
- 10월 26일 경복궁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정하다. (세종 8년)
- 10월 27일 인정전에서 원자 이향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책문을 내리다. (세종 3년)
- 10월 28일 술에 대한 폐해와 훈계를 담은 내용의 글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다. (세종 15년)
- 10월 29일 성균관 오부학당과 지방향교의 생도의 행실을 단속하게 하다. (세종 17년)
- 10월 30일 수령이 가난한 백서의 혼인과 장사비용을 대준 것은 장물죄로 논하지 말라고 이른다. (세종 5년)



## 세종대왕의 11월

- 11월 1일 임금의 여러달 짜 허손병을 앓고있어 대신들이 육선들기를 청하니 여러번 거절 하다 마지못해 허락하다. (세종 4년)
- 11월 2일 호조에 공법을 실시할 방도를 하교하고 중외에 알릴 것을 명하다. (세종 25년)
- 11월 3일 평안도의 흉작으로 공납을 면제하다. (세종 29년)
- 11월 4일 새로 만든 영조척 40개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도록 명하다. (세종 28년)
- 11월 5일 세자의 병이 심해 명산, 대천과 신사. 불우에 기도하게 하다. (세종 31년)
- 11월 6일 동지에 군신간의 연회를 열 것을 청하니 경비 절약을 이유로 정지하라고 하다. (세종 6년)
- 11월 7일 날씨가 추워 죄수를 방면하다. (세종 4년)
- 11월 8일 효행이 있는 사람에게 호역을 면제하다. (세종 17년)
- 11월 9일 전옥에 역질이 번져 의원을 정하여 구제하게 하다. (세종 19년)
- 11월 10일 중궁 심씨를 책봉하여 공비로 삼다. (세종 즉위년)
- 11월 11일 설순에게 정몽주와 길재를 <충신도>에 넣으라 명하다. (세종 13년)
- 11월 12일 사헌부에 억지로 국문하여 죄를 씌울 가능성을 참작하게 하다. (세종 19년)
- 11월 13일 굶주린 백성을 그 고을의 수령과 역승으로 하여금 진휼하게 하다. (세종 4년)
- 11월 14일 외방교관의 고찰조건을 이조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세종 4년)
- 11월 15일 모든 범죄인으로서 공천이 된 자를 천역에 배정함에 부모 처자를 한 곳에 있게 하다. (세종 16년)
- 11월 16일 형조에 전지하여 죽을 죄수라도 억울한 형장을 가하지 말도록 하다. (세종 27년)
- 11월 17일 산학 예습의 방책을 위해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 산학의 법을



- 상고하게 하다. (세종 25년)
- 11월 18일 왕자 이임(평원대군)이 탄생하다. (세종 9년)
- 11월 19일 이조에 전지하여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수준높은 지방관을 파견할 방법을 아뢰게 하다. (세종 16년)
- 11월 20일 오진의 상선이 유무상통의 교역을 위해 남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함길도 감사에게 유시하다. (세종 30년)
- 11월 21일 관찰사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되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유시하다. (세종 28년)
- 11월 22일 왜를 방어할 계책을 논의하다. (세종 2년)
- 11월 23일 경연때에 영경연 이하와 간관에게 윤번으로 입시토록 하자는 시간원의 상소를 따르다. (세종 20년)
- 11월 24일 <삼강행실>을 종친과 신하들 및 여러 도에 내려주다. (세종 16년)
- 11월 25일 백성들의 출생과 사망을 관가에 고하도록 하여 연말마다 총계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 25년)
- 11월 26일 인정전에 나가 일본국왕의 사신을 맞이하다. (세종 4년)
- 11월 27일 이징옥에게 인후와 자애로 사람을 복종시키도록 전지하다. (세종 18년)
- 11월 28일 생사에 관계된 형벌은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하다. (세종 18년)
- 11월 29일 바람에 견디는 법씨를 관가에서 먼저 심어서 시험하게 하다. (세종 19년)
- 11월 30일 날씨가 추워 번들은 군사에게 술을 내려주다. (세종 8년)



**세종대왕 어록**

“죄를 범한 자에게 도역(徒役)을 정하는 것은 악을 징계하여 뉘사람을 경계하고자 함인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서 남의 청탁을 받고 혹 종을 대신 보내는 자도 있다. 지금부터는 관리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복역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는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라.”



## 세종대왕의 12월

- 12월 1일 정부와 육조가 협의할 일은 반드시 당상과 판서의 참석하에 상의하여 계문케하다. (세종 8년)
- 12월 2일 사치스런 진상품의 면포를 보고 앞으로는 8승 면포를 사용하게 하라고 명하다.  
(세종 7년)
- 12월 3일 각도의 관찰사에게 굶주리는 백성 수를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다.  
(세종 4년)
- 12월 4일 이조와 병조에 내명으로 관직을 제수한 사람도 자세히 조사하여 다시 제수하게 하다. (세종 17년)
- 12월 5일 병조에서 백성 동원날짜의 제한을 둘 것을 건의하자 그대로 따르다.  
(세종 12년)
- 12월 6일 사건해결에 무능한 황해,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들을 추국하라고 전지하다. (세종 10년)
- 12월 7일 광평대군 여가 죽다. (세종 26년)
- 12월 8일 익명의 방문을 써서 남을 모함하는 자를 벌할 것을 거듭 밝히다.  
(세종 3년)
- 12월 9일 일본으로 인한 문제를 신하들과 의논하다. (세종 11년)
- 12월 10일 주자로 인쇄한 <고문선>을 종친과 문신에게 내리다. (세종 12년)
- 12월 11일 정초와 책력을 바로 잡는 일에 관해 이야기 하다. (세종 12년)
- 12월 12일 긴급한 공사의 고품외에 정권 잡은 자의 집에 출입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다. (세종 7년)
- 12월 13일 과거제도에 대하여 변계량, 허조등과 의논하다. (세종 즉위년)
- 12월 14일 흠집을 쌓아 구걸하는 자가 없고 굶주리지 않게 하다. (세종 25년)
- 12월 15일 흉년이 들어 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 (세종 4년)
- 12월 16일 각도에 감사를 파견할 때 교서를 주어 보내기로 하다. (세종 12년)
- 12월 17일 농사에 실패한 백성들의 구제에 힘 쓸 것을 명하다. (세종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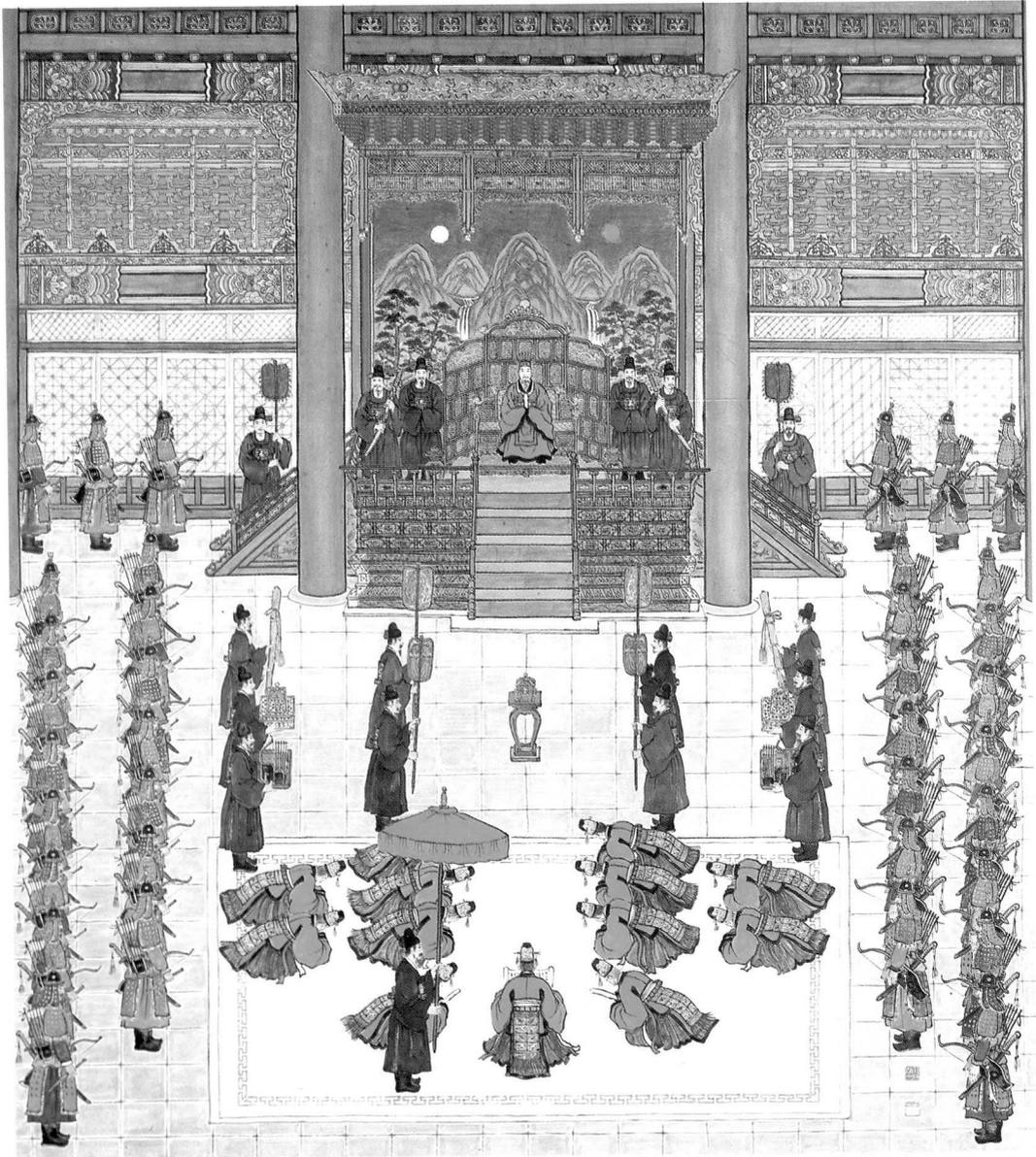


- 12월 18일 각도의 풍흉을 묻고 손실담합에 대해 이야기 하다. (세종 12년)
- 12월 19일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변방 방어책을 전지하다. (세종 19년)
- 12월 20일 가례색이 빈과 잉을 갖출 것을 아뢰었으나 듣지않다. (세종 12년)
- 12월 21일 죄인을 신문하는 절차에 대해 사헌부와 형조에 전교하다.  
(세종 4년)
- 12월 22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3차례 거듭 조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할 것  
을 형조에 명하다. (세종 3년)
- 12월 23일 일식과 월식때 조화음악을 정지하고, 형륙을 없애기로 하다.  
(세종 13년)
- 12월 24일 황희, 맹사성등과 정사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다. (세종 13년)
- 12월 25일 청송부원군 심온이 죽다. (세종 즉위년)
- 12월 26일 사정전에 나가 종묘의 악기를 검열하다. (세종 13년)
- 12월 27일 강원도 백성을 안집시키는 방책을 의논케하다. (세종 6년)
- 12월 28일 권승휘(뒤에 현덕왕후)를 세자빈으로 삼다. (세종 18년)
- 12월 29일 유관, 윤회에게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다. (세종 5년)
- 12월 30일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세종 25년)

**세종대왕 어록**

“옛적에 벼슬하는 사람은 채마전(菜麻田)의 채소를 뽑아 버리며, 베짜는 여자를 내보내기까지 하며 염치(廉恥)를 기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백성에게 구차하게 받아 먹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사대부는 이미 노비(奴婢)가 있고, 또 토지를 받고 있으니, 살림이 넉넉지 못하다 할 수 없다. 비록 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을 해 나아갈 수 있고, 더구나, 현직에 있는 사람은 녹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여, 수령에게 요청하여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고 갑절이나 되는 수량을 백성에게 받아들이니, 공인(公人)이나 장사아치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태연스럽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매우 절조가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수령이 시산(時散) 각품(各品)의 청을 들어주어 공물을 바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죄’로써 논하고, 마음대로 대납(代納)한 자에 대하여는 ‘장물죄(贓物罪)’로써 처단하고 다시는 등용하지 말게 하라.”

# 세종대왕의 생애



세종대왕 즉위도

〈석봉 조무호 작〉

여

백

## 세종대왕의 생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제공》

조선왕조 5백년 역사에 있어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이가 있다. 한민족의 가슴속에 찬란한 문명과 영화를 꽃피웠던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만백성의 아버지로써 추앙을 받는 바로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하 세종이라 함)이다. 그의 생애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인의 삶으로서도 모든 영광을 안고 있었다.

태조 6년인 1397년 4월 초10일, 하늘은 맑고 인왕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며칠전에 내린 비로 그 수량이 많음을 뽐내기라도 하듯 시원스레 소리를 내고 있었다. 더구나 수목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할 정도로 깊고 푸르렀다. 이러한 풍광이 합쳐진 준수방(俊秀坊)은 궁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었다. 바로 이곳 준수방에 위치한 태종의 잠저에서 세종은 정안군 즉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고고한 울음을 터뜨리며 탄생하였다.

풍운의 시대는 아버지 태종을 사직의 책임자로 만들었고, 태종은 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혼미한 정국을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어 나갔다. 세종의 유년기는 이러한 태종의 품속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자란 시기였다

세종이 12살이 되던 태종 8년 2월 11일에 부왕이 그를 충녕군(忠寧君)에 봉하였다. 또한 같은 달 16일에 당시 우부대언(右副代言)인 심온(沈溫)의 딸을 맞아들여 가례(嘉禮)를 올렸다. 그녀는 1395년 (태조 4) 9월에 경기도 양주(楊州) 사제에서 태어났으며, 가풍을 이어받아 재색을 겸비하여 정숙하였다. 당시 12살인 세종보다 두 살이 위였다. 가례를 올린 다음 날 그녀는 경숙옹주(敬淑翁主)로 봉하여졌고 1417년 (태종 17)에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봉하여졌으며 1418년에 세종이 즉위하면서는 경빈(敬嬪)으로 책봉되었다. 얼마 안되어 공비(恭妃)로 승진되었고 1432년 (세종 14) 왕비가 되었으니 바로 소헌왕후(昭憲王后)인 것이다.

충녕은 대단한 호학불권(好學不倦)의 학구파였다. 이미 왕실에 소장된 서적을 어



는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익혔다. 또한 아무리 날이 덥거나 추워도 개의치 않고 하루종일 독서에 열중하곤 하였다. 이것이 훗날 세종으로 하여금 눈병으로 고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만큼 그는 주위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독서를 하라는 충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서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큰형인 양녕은 왕세자로서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지만 그의 돌출된 행위는 태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왕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고 오락에 신경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녕의 소행은 마침내 여러 신하와 원경왕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으로 하여금 왕세자를 폐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왕세자를 폐한다는 것은 역사에 드문 일이다. 하지만 창업단계의 왕조를 수성의 단계로 바꾸어야 할 시점에서 양녕은 부적합한 인물이었다. 태종이 닦아놓은 왕업이지만 아직도 불안요소는 많았다. 태종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저기 일을 벌여놓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기틀을 잡아나갈 군왕이 있어야겠다고 여겼다.

태종은 적합한 후계자로 셋째인 충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학문적인 면에서나 인간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태종은 아직 그를 염두에 두고 있을뿐 세자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밖으로 들어낼 수는 없었다. 세자와 충녕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불쑥불쑥 그들의 학문의 정도가 어떤가를 묻기도 하였다. 세자와 충녕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한해 한해가 지나갔다. 세자인 양녕은 한편으로 반성하고 다시 학문에 정진하기도 하였지만 잠시일 뿐이었다. 반면 충녕은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왕위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진력할 뿐이었다.

1413년인 태종 13년 충녕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해 태종은 그를 대군(大君)에 봉하였다. 어찌보면 세자인 양녕을 후사로 확정한 것인 듯 싶었다. 그러나 충녕이



스물이 되던 1416년 7월에 태종은 경복궁 경회루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태종은 여러 신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세자인 양녕과 충녕을 비교하면서 세자를 꾸짖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둘을 비교하여 말하는 일이 점차 많아졌다. 이제 태종의 의도가 점차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진정한 제왕지재가 누구인가는 누가보아도 알 수 있었다. 다만 장자인 양녕을 세자에서 폐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왕조의 근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사로 인식하는 사회통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하지만 심사숙고 후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태종인지라 이에 대한 대책은 모두 마련된 뒤였다.

마침내 1418년 6월 초2일에 태종은 조정에 양녕을 세자에서 폐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만 세자인 양녕을 낚으치게하여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할 것을 청할 뿐이었다. 다음날 결국 태종은 세자를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강봉하고, 경기도 광주(廣州)로 추방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결단을 실행하였다. 태종은 이때 세자를 폐하면서

“세자 제가 간신(奸臣)의 말을 듣고 함부로 여색(女色)에 흑란(惑亂)하여 불의(不義)를 지행(恣行)하였다. 만약 후일에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력을 마음대로 한다면 형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여러 재상(宰相)들은 이를 자세히 살펴서 나라에서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 양녕의 아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망이 있는 어진 이를 골라야할 것인지 의논이 분분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태종의 결심여하에 있었다. 태종의 의중은 이미 충녕에게 있었다. 이때 세종의 나이 약관을 넘은 스물둘의 장성한 나이였다. 또한 누구 못지않은 학문과 경륜, 지식을 갖춘 영재이기도 하였다. 태종은 이러한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충녕이 갖춘 인격과 학문이 어느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社稷)의 복(福)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성품이 심히 곧아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내 말을 들으면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국(中國)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忠寧大君)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자못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冊)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治體)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獻議)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체(身彩)와 언어동작이 두루 예에 부합하였고,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충녕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라고 하여 그의 인간됨과 학문, 사신을 대하는 풍도, 예절, 왕도 등을 들어 세자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중외가 모두 인정하는 바였다. 특히 명의 사신 황엄(黃嚴)은 충녕대군이 매양 똑똑하고 밝은 것을 칭찬하여 말하길,

“영명하기가 뛰어나 부왕(父王)을 닮았다. 동국(東國)의 전위(傳位)는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것은 세종의 인물 됴됨이가 균계일화 격으로 뛰어났음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해 8월에 태종은 나라의 재변(災變)과 몸의 숙질(宿疾)을 들어 세자 충녕에게 전위(傳位)의 교서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왕은 말하노라. 내가 부덕한 몸으로 태조의 홍업(洪業)을 이어받아 아침 저녁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정성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한 지 대개 이미 지금 18년이 되었다. 은택(恩澤)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여러 번 재변이 일어



났고, 또 몸에 숙질이 있었는데 근일에 이에 심하여 청정(聽政)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세자가 영명(英明) 공검(恭儉) 하고, 효제(孝悌) 관인(寬仁)하여 대위(大位)에 오르기에 합당하므로 영락(永樂) 16년 무술(戊戌) 8월 초 8일에 친히 대보(大寶)를 주어 기무(機務)를 오로지 맡아보게 하고, 오직 군국의 중요한 일만은 내가 친히 청단(聽斷)하겠다. 아아! 너희 중외 대소신료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維新)의 경사를 맞이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생각하여 마땅히 그리 알라.”

라고 하면서 아직 군국의 일이 안정되지 못했고 세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여겨 스스로 군국의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충녕이 세자로 책봉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왜구로 인한 변방의 불안요소, 세종의 군권(軍權) 장악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태종의 판단은 당시의 정세를 볼 때 옳은 것이었다. 특히 폐세자 되어 광주에 내려가 있는 양녕을 따르는 세력과 세종의 즉위에 혹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도면밀한 결단이라 하겠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데에는 양녕, 효령 세 형제 간의 우애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즉 처음에 양녕이 미친 체하고 방랑하니 효령대군은 장차 양녕대군이 폐하게 될 것을 짐작하고, 깊이 들어 앉아 삼가고 꿰어앉아 글을 읽었다. 대개 그 스스로 생각하길, 양녕이 폐함을 당하면 다음 차례로 효령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라는 의도에서 였다. 그러던 중 양녕이 이를 짐작하고는 들어와서 발로 차면서, “어리석다. 네가 충녕이 성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더니, 효령이 크게 깨닫고 곧 뒷문으로 나가 절간으로 뛰어가서는 두손으로 북 하나를 종일 두드리니 북가죽이 부풀어 늘어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는 곧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던 것이다. 두 형이 세종을 위하는 마음이 실로 이려하였고, 양녕 자신이 부왕인 태종의 뜻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녕대군 · 효령대군이 스스로 제위를 포기할 정도의 인품을 지닌 세종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태종의 배려와 세종 자신의 능력으로 즉위에 따른 잡음은 없었다. 세종은 즉위 하면서 8월 11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를 근정전에서 반포하였다.

“.....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례에 부쳐서 마땅히 너그러이 사면하는 영을 선포하노니, 영락 16년 8월 초10일 새벽 이전의 사건은 모반 대역(謀叛大逆)이나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것과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독약 이나 귀신에게 저주하게 하여 고의로 피를 내어 사람을 죽인 것을 제외하고, 다만 강도 외에는 이미 발각이 된 것이나 안 된 것이거나 이미 판결된 것이거나 안 된 것이거나, 모두 용서하되, 감히 이 사면(赦免)의 특지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그 죄로 다스릴 것이다. 아아, 위(位)를 바로잡고 그 처음을 삼가서, 종사의 소중함을 받들어 어짐을 베풀어 정치를 행하여야 바야흐로 땀흘려 이루어 주신 은택을 밀어 나아가게 되리라.”

라고 하여 즉위에 따른 제도의 변경을 없이하였고 대사면령을 내려 새시대의 시작임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태종은 세종에게 위의 두 형들과 우애있게 지낼 것을 당부하였고, 세종 또한 재위 기간 중에 각별하게 양녕과 효령대군에 대한 우의를 지켰다. 신료들이 그들의 잘못을 간하더라도 극히 사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 덮어두고 그들을 감싸주었던 것이다. 태종이 돌아간 후에 세종은 또한 생각하기를, ‘형 양녕대군이 나이가 이미 많으니 반드시 소년 기습(少年氣習)이 없어졌을 것’이라 여겼다. 이에 서울 집으로 불러 돌아오게 하여 날마다 친히 대접하되, 조금도 혐의하거나 간격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세종은 여러 신하들이 비록 옳지 않음을 고집하여도, 모두 듣지 않고 두 형을 섬기되 반드시 인정과 예절을 다하였고, 여러 아우들에게도 은혜와 사랑하기를 다하였던 것이다.



또한 종실(宗室)의 여러 친척에 이르기까지 자주 불러 보면서 술상을 차려 흡족하게 즐겁도록 하였으며, 평소에 친근하지 않아 밖에서 한가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복호(復戶)하게 하거나, 세금을 덜어주게 하고, 처음으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적(宗籍)에 속한 자를 모두 학문을 배우게 하였으며, 비첩(妃妾)을 대우하는데 그 명분을 엄하게 하여 모두 화목하게 하니, 집안의 도리가 바로잡혀 이간질하는 말이 없게 하였다.

상왕인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포천(抱川)에 거동하였을 때 시종하던 신하 곽존중(郭存中)에게 말하길,

“내 나라를 맡길 사람을 얻어 산수 사이에 한가히 노니 걱정없는 이로 이 세상에 집 하나 뿐이다. 역대의 제왕들의 부자(父子) 사이를 보면 실로 나의 오늘과 같은 이 없었느니라.” 하였다

태종에게는 그 자신이 아끼는 백마(白馬)가 있었다. 한번은 정종이 피서하기 위해 광나루에 머무를 제 태종과 세종이 그를 위로하여 주연을 즐기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지게 되었다. 이 때 태종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백마를 보살피는 관원에게 명하여 안장을 갈아 세종에게 주도록 명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배려의 일면이고 자신의 수족을 떼어줄 정도로 그를 위하였던 것이다. 세종 또한 그 바쁜 정무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태종에게 문안인사를 여쭙니 태종이 부담스러워 격일로 오도록 말할 정도였다.

또한 세종 원년인 1419년 6월에는 부왕인 태종과 이종무(李從茂) 주도로 그동안 고려말 이래로 해안지방과 내륙지방까지 끊임없이 노략질하던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이듬해 윤1월에는 대마도를 경상도 계림부에 편입시켰다. 태종의 치세동안 잘 가다듬은 군사와 오랫동안 왜구토벌을 준비한 까닭에 왜구 근절을 위한 대마도 정벌은 성공적이었다.

이는 태종·세종 2대에 걸친 태평성세의 길이 이제 탄탄대로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 때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도정



치, 위민정치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것이었다.

세종은 왕위에 즉위한 뒤에도 결코 학문을 게을리하거나 정사에 미룸이 없었고, 또한 효성도 지극하였다. 왕은 매일 새벽 4고(四鼓) 즉 새벽 2시 무렵에 일어나서, 신명(晨明)에 군신의 조참을 받았던 것이다. 군왕이 술선하여 이토록 부지런함을 보이니 신하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처리함에 완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모든 정사를 처결한 연후에는 윤대(輪對)를 행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물어 조그만 일에도 귀를 기울였다. 또한 수령으로 나가는 자를 불러 보고 면담하여서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일러 말하길, 형벌 받는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을 타일렀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세종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여 고금을 강론한 연후에 내전(內殿)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앉아 글을 읽었고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왕이 된 후까지 끊임없이 글을 읽고, 유신들과 토론하니 읽지 않은 글이 없었으며, 무릇 한번이라도 귀나 눈에 거친 것이면 종신토록 잊지 않게 되었다. 왕은 경서(經書)를 읽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백 번을 넘게 읽고, 제자백가서와 역사서는 반드시 30번을 넘게 읽고, 성리(性理)의 학문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고금에 모든 일을 널리 통달하였던 것이다.

1420년 세종이 24살이 되던 해 7월, 그 무렵던 날씨가 한풀 꺾이어 가을바람이 인왕산 자락에서 천천히 내려와 제법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름을 자랑이라도 하듯 올려보아도 끝이 없었다. 궁궐안에도 그 동안 정성스레 돌보아 왔던 수목들이 제각기 자리를 잡아 잘 정돈되어 위엄과 조화, 장중함을 주었다. 그러나 세종과 소헌왕후, 그리고 내궁사람 들의 얼굴은 밝지 못한 채 부산하게 오갔다. 약내음이 진동하였다. 어머니 원경왕후의 병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어려서는 자신을 끔찍이 위하였지만 장성한 뒤로는 오히려 엄격함으로 대해 주어 약간은 섭섭해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큰형인 양녕을 제치고 제위에 오른



탓이라고 여겼다.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극진히 하였건만 병은 더욱 심해만 갔다. 그러던 모후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세종은 제왕인 몸으로 부르짖고 슬퍼하며 수일동안 음식을 들지 않았다. 더구나 늦장마가 오려는 탓인지 날씨가 덥고 습기가 있어 몸에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평상을 버리고 짚자리에 엎드려 밤낮없이 통곡하였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기름종이로써 그 밑에 깔아 습기를 없애려 하였지만 세종은 이를 알고 걷어버리라 하였다. 더구나 큰비가 내려 물이 세종이 자리한 곳으로 스며 들었지만 오히려 옮기지 않다가 신하들이 곧이 옮기기를 청하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날이 밝자 곧 자리로 돌아왔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이토록 대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인 1422년 5월 초 10일에 아버지인 태상왕 태종이 연화동구(蓮花洞口)의 이궁(離宮)에서 승하하였다. 세종은 태상왕의 병환이 있는 이래로 약과 음식 등을 모두 손수 받들어 드리었고 병세가 위독해지자 밤이 새도록 그 곁에서 모시되 일찍이 옷끈을 풀고 눈을 붙인 적이 없자 신하들이 모두 혹 몸이 상할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고 아들 세종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는 먼 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용안에 어린 미소는 누구보다도 세종을 믿는다는 자애로움을 담고 있었다.

이제 세종의 지위는 굳건해져 있었다. 약관을 지난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현명함과 결단력,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다. 제왕의 위엄을 모두 갖추었던 것이다.

왕비 소헌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자는 부왕의 영향과 그 스스로 성왕을 닮으려는 생각에서 제왕학에 정진하였다. 부왕인 세종은 격무와 독서로 건강을 해친 탓에 눈병이 그치지 않았다. 온천과 약수가 눈에 좋다는 신하들의 말에 지방으로 여러차례 행차하였다. 그 동안 도성에서는 세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일을 보게 할 정도로 믿음직하게 성장해 있었다. 세종의 눈병은 그러나 약간의 차도가 있었을 뿐 낫지는 않았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와서도 세종은 경전과 사서 등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다. 눈병이 심하여도 잠시 쉬었을 뿐이었다. 이제 세자와 왕자들, 그리고 공주들은 잘 자라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여진과의 문제도 김종서 등을 보내어 변경을 안정케 하였다. 왜구들도 세종의 치세에 감복해서인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또한 세종의 위민하는 마음은 지극하였다. 정책을 펴에 있어 급하게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백성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입안하고 시험하고 토론하여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고 해서 정책을 펴나갔다. 세종의 이러한 천품은 신하들에게도 이어졌다. 풍속의 교화와 산업·제도·관리임용 등의 문제를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의 활발한 운영과 왕 스스로의 학자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태평성대의 길이 환하게 열렸던 것이다.

1443년 이제 장년의 나이에 이른 세종은 갈수록 몸이 편안치 않았다. 특히 이 해에 들어와서는 거동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지병으로 앓아온 눈병은 좋다는 약을 복용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악화된 눈병은 이미 왕의 나이 41세 때에도 있어 정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8살의 나이로 세자가 된 뒤 충실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왕도를 닦아온 큰 아들 세자는 벌써 24살이나 되어 있었다. 그의 행동 됴됨이나 예절과 생각함은 세종의 뜻에 거슬림이 없었다. 세종은 이렇게 장성한 세자에게 일단 서무(庶務)를 결재시키려고 하였지만 대신들이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극구 반대하였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결정을 거두어 들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전적으로 정사를 돌보기에는 건강이 허락치 않았다. 1445년 세종은 세자에게 마침내 왕을 대신하여 서정을 집행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자는 즉위하기 전에 실제 정치 경험을 쌓아나갔다.

세자인 문종에게 일찌기 섭정을 행하게하여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한 점이라든가 만년에 모든 정치운명을 세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한 점, 둘째인 수양대군과 셋째인 안평대군에게 그를 잘 보좌하도록 부탁한 점 등은 세종의 후계왕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즉 세자의 건강이 열려되어 이를 보



완시키려는 현명한 세종의 판단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종 스스로는 성왕이었지만 결국 부왕인 태종 때에 일어났던 참담한 비극이 다시 문종의 사후 단종년간에 벌어지게 된 것이다.

1446년 3월, 온 천지에 봄기운이 활짝 만개하여 부드러운 온기가 궁실에 가득차 있었다. 세종의 나이 벌써 원이 되었다. 이제는 세자에게 정무를 넘기고 어느정도 건강을 되찾아 약간의 운신이 가능하였다.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는 그러한 왕을 곁에서 돌보느라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돌 볼 틈이 없었다. 오직 세종을 위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몸이 아주 좋지 않아 궁실에 품져 눕게 되었다. 왕후의 나이도 벌써 원들이나 되었다. 몸조리하기 위해 수양대군의 집으로 일단 몸을 옮겼다. 하지만 이미 왕후의 체력은 병마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 세자와 수양대군이 극진히 병간호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종도 근 사십년간의 고락을 같이 해 온 소헌왕후의 병환을 그렇게도 걱정했건만 왕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결국 3월 24일 봄빛이 완연히 세상을 뒤덮던 날, 세종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 온 소헌왕후는 남편과 자식들을 남기고 승하하였다. 잠시의 고요가 찾아왔다. 이윽고 슬픔이 온 방안을 가득 메우고는 곡성이 천지를 뒤덮었다. 온 백성들도 왕후의 죽음을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애도한 것이다. 왕후와 세종 사이에는 위로는 세자에서부터 막내아들인 영응대군(永膺大君)에 이르기까지 8남과 정소공주(貞昭公主)·정의공주(貞懿公主) 등 10남매가 있었다.

세종에게 있어 슬픔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조강지처를 잃은 마음과 앞서간 소헌왕후를 위로하여 저 세상의 복을 빌기 위해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훈민정음으로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집하여 내게 하였다. <석보상절>은 여러 불경 속에서 석가의 전기를 편집한 내용이다. 더욱이 세종은 떠나간 왕후를 그리워하며 서방정토를 생각하여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노래로 만들게 하였다. 즉 왕후를 극락정토에 있게 하고, 자신도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세자에게 서무의 결재를 넘긴 뒤에도 왕 자신이 건강이 좋아진 듯 싶으면 세자도 그렇고 신하들도 왕에게 많은 일들을 상의하였다. 또한 사신접대의 일들은 빼놓기 힘들었다. 세종은 먼저 떠나간 왕후 심씨, 태종과 원경왕후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도 궁궐 안에 불당을 만들어 극락왕생과 공덕과 복을 빌었다. 이것이 1448년 세종의 나이 스물이 되던 해이다. 성균관·사부화당의 생도들은 불당의 건립에 반대하였으나 왕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내 그 해 12월에 내불당이 완공되었다. 그 자신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유교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우선으로 하였지만 아직도 신앙이 갖는 종교의 영역을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불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사대부가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그러하였던 것이다.

세종에게는 일견 이제 왕 자신의 건강만 다스리면 모든 것이 좋아질 듯 싶었다. 아래로는 집현전의 젊은 유신들과 김종서, 황보인 등의 대신들이 버팀목이 되어 든든했다. 성균관과 사부화당 등의 유생들은 자신들의 믿는 바를 따라 왕에게 거침없이 상소를 올리는 정치적 풍토를 마련하였다. 몸은 병약하지만 믿음직한 세자인 문종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었고, 문무에 모두 뛰어난 수양과, 문예에 뛰어난 안평이 잘 뒷받침 해주고 있었다. 그 외 많은 자식들도 모두 효성이 지극했다. 남은 것은 자신의 건강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동안 세종은 집현전의 운영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의례와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훈민정음과 농업 및 과학기술, 전제의 정비, 세제(稅制)로서의 공법(貢法)의 완성, 의약기술, 음악, 국방 등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왕 자신은 이미 성왕으로 받들만큼 큰 업적을 쌓았다. 형들과도 사이 좋게 지냈고 백성을 위해



서 몸소 농사에 노심초사 하였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벌도 하고 위무도 하면서 안정시켜 변방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학문에 대해서라면 왕 자신이 당대 제일의 유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늘은 왕에게 성왕으로서의 능력은 주었지만 건강으로 왕을 뒷받침할 수 있을 힘은 주지 않았다. 나이 스물둘에 제왕의 자리에 올라 치세하기 어느덧 삼십년이 넘었던 것이다. 더구나 재위 30년 되던 4월에는 원손(元孫)인 문종의 장자 홍위(弘暉) 즉 후에 단종이 될 아이를 왕세손으로 책봉하였으니 후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성 싶었다.

왕의 나이 쉰셋이 되던 해의 설달에는 더욱 고통이 심하여졌다. 안질과 함께 말을 더듬고 가슴이 뛰면서 운신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더구나 호흡도 어려울 정도로 숨도 가빠와졌다. 해를 넘겨 신하들과 자식들의 새해 인사를 받다보니 어느 사이엔가 좀 몸이 나아지는 듯 싶었다. 정월 한달 동안 명에서 사신도 오고 또 세자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아뢰기도 하였다. 몸이 피곤하였지만 잠시동안 원기를 어느정도 회복하였다

이 무렵 세종은 영응대군의 집에 이어했다. 그러나 세종 32년 2월 16일 갑자기 임금의 병환이 위급해졌다. 마침내 세종은 2월 17일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응대군집 동별궁에서 5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세종의 생애는 우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시대를 장식하였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역사상에 되살아나길 간절히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의 영향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능은 소헌왕후 심씨와 나란히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지바른 곳에 자리하였다. 이곳 영릉에는 여전히 참배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 역사는 이



렇게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우리 역사에 있어 유교정치를 구현한 군주였다. 그 자신이 이미 성리학에 있어 달통하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유교정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것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서 위민(爲民) 혹은 애민(愛民)과 순리(順理)에 맞추는 것이었다. 단지 이념상에서가 아닌 실제로 이를 행하기 위해 우선 그 자신이 성실하게 학문을 닦았다. 집현전 등을 두어 유능한 인재를 길러냈다. 또한 지방민의 올바른 안착을 위하여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나가는 수령들에게 백성들을 잘 보살필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이종무와 김종서 등을 시켜서는 왜구와 여진족의 문제를 일소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다. 문화면에 있어서도 수많은 경서와 예서(禮書), 악서(樂書) 등을 펴내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전세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과학정책도 역시 훌륭하게 펴나가 측우기, 해시계 등이 만들어졌다.

세종은 어찌보면 태조·태종 등이 이미 마련한 비옥한 농토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훌륭한 농부였다고 하겠다.

여러차례 강조한 바이지만 세종 그 자신은 이미 유교정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여러 분야에서 실시하여 이념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 가. 집현전(集賢殿) 운영

유교문화의 완성이라는 점은 집현전의 운영, 육전의 법, 경연, 삼강과 오륜의 행실도, 예악의 정리, 경서 및 사서의 편찬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 내용은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훌륭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신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과 세종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을 조화롭게 운영하지 않았다면 많은 잡음과



함께 실패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먼저 세종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들의 학문을 키웠으며, 또 그들과 함께 정치운명을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학문연구기관이자 인재양성소로서의 집현전의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그 토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집현전은 고려 인종(仁宗) 14년(1136)에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이라고 이름을 바꾼데서 비롯 된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정종대에 설치된 일이 있었고 또 태종 17년 정월에 사간원에서 상소하길, 정치를 하는 데는 나라에서 나라일을 맡길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수문각(修文閣) · 집현전 · 보문각(寶文閣) 등이 이름 뿐이지 제구실을 못하니 새로 집현전을 만들자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집현전을 설치 운영하여 그 성과를 거둔 것은 세종 때였다. 즉 집현전이라고 하면 세종 2년 3월에 설치 운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와 대명(對明) 사대 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토대구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교 교양에 철저한 인재의 양성 및 이에 입각한 문물의 정비와 전통문화의 정리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집현전에는 유학에 능통한 연소한 문사들을 뽑아 이들에게 여러가지의 특전을 주어 그들의 학문과 연구활동을 보장하였다.

즉, 사헌부(司憲府)의 규찰을 받지 않아 신분이 보장되었고, 경제적인 배려 또한 각별하였다. 산사(山寺)에서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휴가인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주었다. 정원은 처음에 10명이던 것이 뒤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직무 중 중요한 것은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이었다. 따라서 이곳에 소속된 간원은 경연관(經筵官) · 서연관(書筵官) · 시관(試官) · 사관(史官) 지제교(知製敎)의 직책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경연과 서연이 인정(仁政)을 베풀기 위한 국왕과 세자의 수덕(修德)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현전의 기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의 연구분야는 중국의 옛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에 동원되



기도 하였다. 충실한 연구와 학문을 쌓도록 하기 위해 세종은 이들을 다른 관부에 전직도 시키지 않고 집현전에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일면 굉장한 특혜였다.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서 학문과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철저한 신분보장과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그리고 세종 자신의 학문적 관심은 집현전을 당대 제일의 학문연구기관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집현전은 세종조의 국가 정치 일반에 있어서 자문기관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국가 제도 · 정책 연구 기관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집현전을 운영한 결과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최항(崔恒) · 박팽년(朴彭年) · 신숙주(申叔舟) · 성삼문(成三問) · 이선로(李善老) · 이개(李塏) · 류의손(柳義孫) · 권채(權採) · 남수문(南秀文)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세종 때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세종 11년에는 대궐 서편에 집현전을 새로 마련하고 또한 장서각을 집현전 북쪽에 다시 올렸다. 집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저녁 늦게 나갔다. 때를 맞추어 부지런히 연구하였으며, 일상 왕의 옆에서 공부하였다. 집현전의 학자들에게는 삼시 세끼를 직접 궁중의 내관(內官)들이 대접하였고, 학자들은 밤에도 순번을 정하여 집현전을 지키면서 밤을 새워 책을 읽기도 하였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는 세종인지라 혹 집현전의 학사 중 무리하여 병이 나는 자라도 있을까 염려하여 내관에게 불을 밝히게 하고 집현전을 수시로 찾았다. 간혹 독서하다 피곤하여 깜빡 잠이 든 학사가 있으면 그들을 깨우지 않고 초피(貂皮)의 옷을 벗어 살며시 덮어주곤 하였다. 어찌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를 스승의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로 아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린 학사들이 있으면 당대의 유학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집현전의 운영은 세종 과 집현전 학사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하여 집현전에서 편찬된 서적을 몇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다.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 <치평요람(治平要覽)> · <훈민정음(訓民正音)> · <역대병요



《歷代兵要》·《효행록(孝行錄)》·《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서적들이 언해되거나 주석되어 그 학문적 성과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나타내 준다. 특히나 학사들의 학문적 성취와 관심에 대해서는 명나라의 유신들도 감탄하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세종 때 이렇게 활발한 연구활동과 학문활동 등이 수행된 집현전은 결국 정치적 역풍에 휘말려 세조 2년 육신사건(六臣事件)으로 혁파되게 되었다. 이 후 여러차례 집현전과 같은 기관을 두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결코 세종 때 집현전의 기능을 갖기란 어려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적 인 문화(편찬)사업은 그 뒤 홍문관(弘文館) 또는 정조대의 규장각(奎章閣) 등에 의해 계승되기도 하였다.

집현전의 운영을 통하여 마련된 유교적인 학문연구의 성과는 경전의 주해, 제도의 연구 등 여러 분야로 파급되어 나갔다. 여기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집현전 등에서 연구하고 마련한 국가의 유교적 의례인 국가오례(國家五禮 :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와 사대부·서인들의 유교적 의례로서 정리된 사례(四禮 : 冠禮·婚禮·喪禮·祭禮) 등의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왕조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체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종조에 이루어진 오례의 내용은 사실상 왕실중심의 의례만을 일단 정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국가질서의 편성보다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을 생각하는 의례, 더욱이 왕위계승을 유가적 논리 안에서 정치적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인다.

왕실중심의 의례의 정례화는 왕권을 유교이념으로 명분을 정립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례으로써 소개되는 주자가례는 사대부 중심의 사회공동체 질서론을 반영한 의례로 자리잡게 됨을 의미한다. 조선초기 사회의 정돈과정에서 보여 준 역사사실의 실태라고 하겠다. 이것은 조선왕조가 왕실과 왕권의 권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왕조의 정통성의 문제와 새로운 정권의 혁명적 내용도 수용하는 명분논리, 그리고 왕실의 정치적 위상의 준비가 바로 유교적 예론으로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례의 운영구조가 가지는 의미는 왕실 즉 왕권의 위상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해주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사례(四禮)의 체계와 내용은 이미 조선시대에도 그 보급 노력이 있었다. 세종조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양반 사대부층의 유교적 윤리 실행의 표준으로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정착되었다. 이것은 당시 유자층으로서 사대부의 반열에 있는 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덕규범의 의례였으며, 상층사회구조의 운영도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백성에 대해서도 유교적인 교화정책(教化政策)으로서 열녀·효자 등에 대한 표창과 이를 기리기 위한 정표(旌表)의 정책이 있었으며, 나아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만들어져 보급되었다.

집현전(集賢殿)에서 새로 올린<삼강행실>의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천하의 뿔뿔한 도가 다섯 가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首位)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經綸)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源泉)입니다. 만약 고대(古代)의 일을 상고하여 본다면, 순(舜)임금은 오전(五典)을 삼가 아름답게 하였으며, 성탕(成湯)은 일찍이 사람의 기강(紀綱)을 닦았고, 주(周)나라에서는 백성에게 오교(五教)를 소중히 여기어서 향삼물(鄉三物)로 선비들을 추거(推舉)하여 손님으로 예우(禮遇)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왕(帝王)의 정치가 무엇을 먼저 힘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덕 신해년에 우리 주상 전하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삼대(三代)의 정치가 훌륭하였던 것은 다 인륜(人倫)을 밝혔기 때문이다. 후세에서는 교화가 점점 쇠퇴하여져서, 백성들이 군신·부자·부부의 큰 인륜에 친숙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타고난 천성(天性)에



어두워서 항상 각박(刻薄)한데에 빠졌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습관에 옮겨져서 사람의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興起)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우매한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또한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한 길이 될 것이다.’ 고 하시고, 드디어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국(中國)에서부터 우리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방(東方) 고금(古今)의 서적(書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아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히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1백 인을 찾아내어,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詩)를 붙이었습니다. 이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고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삼강과 오륜, 인간사회의 질서체계를 오례와 사례의 구조를 통하여 사회의 운영을 교화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종실의 범위를 종친과 마찬가지로 왕의 현손(玄孫 즉 4대손)까지의 자손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의 제도를 정하였다. 즉 처음으로 종학(宗學)의 법을 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종실 자제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문장을 잘 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닦아 품가짐을 신중히 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종친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법률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무뢰배들과 어울려 갖은 비리를 저지르기 일쑤였으며, 공부하는데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친들을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키려는 의도와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왕실의 세력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왕실 주변의 인물을 정치권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적 조치는 종실의 인재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막았고 마침내 종학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종은 1428년 7월에 대군 이하 종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종학을 처음으로 건립하였고, 이듬해 10월에 학사를



세우고 교수로서 종학교수관(宗學敎授官)을 두었으며 또한 종학식략(宗學式略)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심화 확대된 유교의 정치이념과 사회윤리는 예악(禮樂)의 정리로 더욱 세련화 되었다. 유교사상에서 예(禮)·악(樂)의 정비는 곧 모든 질서의 안정을 뜻한다. 예라는 것은 도덕인의(道德仁義)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예제(禮制)가 행하여지면 이와 더불어 악(樂)이 흥한다는 것이 유가의 기본 인식이었다. 따라서 세종 때에 유교정치를 추구하고 이것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예악관에서 왕조의 예·악의 기준을 확립코자 하였던 것이다.

〈아악보(雅樂譜)〉의 서문에서 ‘악(樂)이란 것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길러 신인(神人)을 화(和)하는 소이(所以)이며, 천지를 순(順)하고 음양을 조(調)하는 도(道)’라고 하였다. 특히 의례상정소와 집현전의 연구활동 가운데는 실제 이 예악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종의 의도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구가 진전되었다. 즉,

“입금은 나라를 평정한 뒤에는 음악을 제정하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한 뒤에는 예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평안케 하는 공적이 커지면 악을 갖추게 되고, 군왕의 다스림이 백성들을 골고루 편하게 하면 예를 갖추게 된다.”

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예악을 참작하여 어떻게 조선의 것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악기를 정리하고 그 음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작업이 기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음과 악기에 정통한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상을 보이고 있었다. 세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악(雅樂)은 본래 우리 나라 악이 아니고 중국의 소리이다. 중국사람들은 일상 들어 익혀서 제사에 음율을 잘 연주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나서부터 향악(鄕樂)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악을 들으니 어찌 된 일인가? 더욱이 아악은 중국



에서도 역대 왕조마다 제작 정리 한 것이 다 같지 않아서, 황종의 소리[黃鐘之聲] : 아악의 표준음에도 높고 낮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악의 제도는 중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황종관(黃鐘管)을 만들자면 그 기후 조건을 험사리 바꿀 수가 없다.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 나라는 춥고 더운 기후가 중국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나는 대(竹)로 중국 음악의 황종 관을 만들어 쓸 수가 있겠는가? 황종에는 반드시 중국의 대를 쓰는 것이 옳겠다.”

음악의 기준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기초원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구체화한 사람이 바로 세종과 맹사성(孟思誠) 그리고 박연(朴堧)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실제 작업의 세세한 것은 지음(知音)과 악리에 정통한 박연이 맡아서 하였다. 여기서 세종의 배려와 세종 자신의 능력이 한층 돋보이는 역사기록이 세종실록에 적혀있는 것이다. 신하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결과를 측정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모자라는 점과 흠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세종과 박연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가 같았다. 다음의 대화내용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박연이 새로 만든 편경을 세종 앞에서 시험 연주하면서 생긴 일이다.

“중국의 편경(編磬)은 조율이 정확하지 않은데 박연은 참 잘 만들었다. 경돌을 얻은 일도 다행한 일이려니와 이 돌로 만든 편경의 소리는 맑고 고우며, 그 뿐만 아니라 조율도 꽤 잘 되었다. 그런데, 이칙(夷則 : 12울 가운데 하나. 9번째의 소리)의 경돌이 소리가 좀 높으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그 음의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음을 모르고 있었다면 도저히 지적할 수 없는 구체적인 부분이었다. 곧바로 박연은 경돌을 다시 세워 정밀하게 조사하고 일일이 소리를 귀기울여 들었다. 그러던 중 박연은 깜짝 놀랐다. 세종의 지적대로 이칙의 경돌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칙의 경돌을 만들 때



그어놓은 먹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 나아하는 소리가 높게 나게 된 것이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고, 더욱 세종에 대한 경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즉시 그 경도를 갈아 음이 올바르게 잡히도록 고쳐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종과 박연의 노력의 결과로 세종 12년 가을에는 궁중의 제도와 음악을 법도에 맞게 조화시켜 조화 음악에 아악을 쓰도록 하여, 매달 초하루·16일에는 아악을 연주하고 다른 네 번의 조회에는 전대로 향악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종 13년 정월 초하루에는 백관과 더불어 근정전(勤政殿)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정리되어 만들어진 아악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예에 따라 새해의 하례를 받았다. 종묘, 사직, 석전(釋奠), 천신제사, 선농(先農)·선잠(先蠶)의 음악을 바로잡아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악기와 악곡은 궁중예악으로서 오례의(五禮儀)에 맞춰 연주되었다.

실로 아름다운 소리와 광경이었다. 그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왕실의 위엄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부모의 손길같은 부드러움을, 또 때로는 즐거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듯한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만조백관이 자리한 가운데 수백명의 악인들이 수십 수백의 악기를 앞에 두고 그 장엄화려하면서도 단아하게 연주하였으니 참으로 인간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어서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다. 세종의 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열정의 결과 이루어진 산물이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와 더불어 친히 악보를 기록하는 법인 기보법(記譜法)도 창안하였는데 이것이 정간보(井間譜)이다. 여기에 음악의 시가(時價)와 박자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발상(發祥)>·<봉래의(鳳來儀)>·<만전춘(滿殿春)>등의 대곡을 작곡하여 기보하기도 하였다.



나. 불교와 사회정책

사회운영의 체계로서 이렇게 유교가 지도원리가 됨에 따라 삼국시대 이래로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원리 상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일반민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신앙으로서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유교의 가치체계, 특히 성리학적인 학문배경을 가진 사대부들과 학자들의 경우 불자들이 무위도식하며, 심하면 고리대와 더불어 투기까지 일삼는 것이 결코 국가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해져 불교에 대한 일대 정리를 하게 된다. 세종조에 있어서의 불교사원에 대한 정리가 그것이다.

먼저 불교의 토지와 노비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권력기반에 대한 것으로서 세종 1년에는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정리하여 국가에 귀속시켰다. 다음으로 불교사원의 종파를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세종 6년에 선교(禪敎)의 양종으로 병합하고 사사(寺社)·사사전·상주승(常住僧)의 정수를 재정리하였다. 세 번째로 불교행사의 제한과 축소 형태로서 법석송경(法席誦經)과 도성 안에서의 경행(經行), 궁내의 연등행사를 없애고 단지 승사(僧舍)에서만 이를 허락하였다.

강압책을 펴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국가 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세종 자신의 불교에 대한 믿음은 상당한 것이었다. 왕실 중심의 기우(祈雨)·명복(冥福)·구병(求病) 등의 불사는 계속되었으며 더욱이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한 뒤에는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궐내에 불당을 세우기도 하였고 불경에 대한 언해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의 이념정책은 송유억불(崇儒抑佛)에 기초하였지만 세종 자신의 입장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 후 왕실의 불교에 대한 호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를 보면 세종 자신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유자였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



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자신과 인천에게 닥치는 죽음과 병의 고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었다.

유가에서 말하는 유교정치의 핵심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있다. 특히 그 정치적 이념과 실제의 핵심인 ‘치국평천하’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일은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이야기되고 이를 모두 실현하고자 한다. 위민, 혹은 애민(愛民) 그리고 왕도(王道)정치의 핵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얼마만큼 이를 위해 고심하고 실현가능한 일을 고안하며, 실제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가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조의 정치는 중국의 삼대 즉 하은주(夏殷周)의 정치와 비견될 정도로 이상적 정치시기였다. 왕권은 왕권 나름의 정당성과 권위를 갖고, 신권은 신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그 치적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로 교양된 국왕과 유신들이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 유교적 민본사상에 근거한 덕치(德治)·인정(仁政)을 성취한 것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식(食)’의 문제이다. 실제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이 ‘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종은 바로 이를 깊이 파악하고 통찰력있게 여러 부분을 통하여 ‘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앞서 말한 왕도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바로 제반 대민시책의 구상과 실시, 경제구조의 재조정과 산업의 장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이 그것이다.

세종은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늘 열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는 경로와 효행, 절의, 구휼, 부역의 감면, 소송의 공정처리, 의약을 통한 구제, 형리(刑理)의 엄격함과 공평무사함 등을 통한 것이 그 내용이 되겠다.

즉, ‘늙은이를 공경하는 예는 내려온 지 오래되었다. … 이 늙은이들을 권념(眷念)하여 이미 중의로 하여금 향례(饗禮)를 거행하게 하고 또 자손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는데 …’ 라든가, ‘인(仁)은 어버이를 받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정사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니, 이것은 제왕의 성대한 전례이며 고금의 일정한 규정이다.’ 라고 한 것은 경로 와 효행에 대한 세종의 뜻한 바였다.

세종은 13년 6월에 형벌과 옥사를 처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곡하고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 그 세심한 살림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옥사(獄事)란 것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니,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하면,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된다. … 법을 맡은 관리들은 옛 일을 거울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여 마음을 공평히하여 자기의 의견에 구애되지 말고, 선입된 말에 집착하지 말며, 부화뇌동으로 전철을 본받지 말고, 구차하게 인순(因循)하지 말며,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옥사(獄辭)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반복하며 되풀이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구천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기뻐하여 영어(囹圄)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퍼져서 비오고 별나는 것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왕이 되어 백성의 어버이로서 보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옥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것은 후대의 제왕에게 있어 귀감이 되었다. 여기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면 세납과 공물, 요역을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들에게 곡식을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옥에 있는 죄수라도 병이 있으면 곧바로 치료 할 것을 명하였고,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을 통해 구제토록 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세종조에 이루어진 의약(醫藥)의 연구와 정리, 보급은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이전에도 조선에서 나는 향약에 대한 정리가 있기는 하였지만 미흡하였다. 세종조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약방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있게 되었다. 더욱이 세종 자신도 항시 병마에 시달리는지라 의약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였다. 세종 5년 6월 의약을 맡고 있는 전의제조(典醫提調) 황자후(黃子厚)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대부터 전해오던 향약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비판하고 이미 수록된 여러가지 약방에서 경험양약(經驗良藥), 즉 전에 써보았던 좋은 방문(方文)을 정리하였다. 또 각 약방의 주(注)에 향명(鄉名)을 달아서 약독(藥毒)의 유무와 그 약의 늙은이나 또는 어린아이에게 쓰는 법을 밝히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일러 주어 약을 알맞게 쓸 수 있고 쉽게 병을 고치자고 하였다.

의약서의 정리와 더불어 향약방의 수집과 향약재를 각 지방에서 구하였고 후에는 직접 산과 들에 약재를 심어서 재배 생산하면서 그 재배의 양상과 채취의 분량, 그 약을 치료에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는지의 일체를 보고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28년(세종 10년)에는 <향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5년 뒤인 1433년 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85권 30책의 분량을 가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 완성되었는데 이책에는 총 1만 706가지의 약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곧 세종은 이를 읽어보고 여기서의 약방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한방에 대한 연구를 명하여 다시 향약을 정리시켰다. 이에 세종 25년에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한방 의학의 모든 서적을 정리하여 다시 분류 편찬하는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때 모아서 이용한 중국 의약서적은 164



부(部)로 중국의 한대(漢代) 약방에서 당·송·원·명에 걸친 중요한 것은 모두 망라된 것이었다. 이를 모두 우리 실정에 맞게 91문(門)으로 크게 나누고 그 속에서 다시 세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작업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에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이 바로 <의방유취(醫方類聚)>의 작업이었던 것이고 결국 성종조에 가서야 인쇄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작업과 더불어 세종은 제도적으로도 의약제도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즉 유학 경서와 함께 의서(醫書) 공부를 함께 중시하도록 한 점,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의 원활한 운영을 꾀한 점, 활인원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온천을 통한 치료법의 개발과, 한증(汗蒸)을 통한 치료법을 연구하여 보급하도록 명하였다. 어찌보면 이것은 세종이 항상 병마에 시달렸기 때문에 관심을 쏟은 결과였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있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게 하고 또 원한을 풀어주는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검시법(檢屍法)이 있다. 이것은 바로 법의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도입된 <무원록(無冤錄)>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검시할 때에는 관계 관원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 임검하게 하였다. 세종 20년 겨울에는 이러한 <무원록>에 주(註)를 달게 하였다. 이 작업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세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종 때 법의학에 대해 알게 해주는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은 세종 21년 동짓달에 최치운(崔致雲)·변효문(卞孝文)·김황(金滉) 등에 의해 주해와 글자의 음과 말의 뜻을 달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이후 한성부에서 검시의 양식을 간행하여 각 도에 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 다. 산업의 장려책

세종조에는 산업의 장려 즉 농업의 여러 가지 진흥책을 마련하였다. 농사법의



개량을 위한 연구와 그 결과 만들어진 농서의 보급, 제언의 확충,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통한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의 종합인 공법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세종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왕은 적재적소에 공평무사하고 진취적이며 연구능력이 뛰어난 이들을 배치하고 그들을 관리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군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권농정책으로 대표되는 농상의 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구휼과 농법의 개량보급, 백성들이 산업에 전념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농업기술을 수집하여 농서를 편찬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는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되는 이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할 것을 누누이 말하고 또 그들에 대한 출척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성의 삶에 고통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수령칠사(守令七事)'로서 계속 강조된 바이지만 세종은 그 내용과 함께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작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가령 세종 15년 2월 9일에 목천현감(木川縣監)으로 나가는 박용(朴容)에게 '수령의 직책은 형벌을 삼가고 부역을 고르게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데 불과하니, 가서 그대의 직책을 다하라.'하고 이른 것이라든가, 또한 세종 15년 7월 18일에 지강령현사(知康翎縣事) 양점(梁漸)과 진성현감(珍城縣監) 민정(閔精)에게 '그대는 각기 임지에 가서 형벌에 관한 일을 조심하고 농사에 관한 일을 골고루 장려하여 백성의 생계를 풍부하게 하라.'

고 당부하는 사례에서 세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종이 수령을 직접 인견하고 수령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국왕을 알현한 수령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려 함은 물론이고 그들 각각은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국왕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것으로서 인식케 함으로써 모두 세종의 품안으로 포열되게 되는 것이다.

세종조에 지방사회의 질서가 안정된 것은 실로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재와 수재에도 불구하고 농토를 잃고 이



리저리 유랑하는 백성들이 거의 없었던 것은 지방현장에서 백성을 직접 책임지는 수령들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의 농상(農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묘했다. 일단 세종이 이해하고 있는 면을 살펴보자. 세종 26년 윤7월 25일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으니, 농사라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이요, 왕자의 정치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대명(大命)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를 복무하게 하는 것이니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 하여 그 생생지락(生生之樂)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세종의 인식이 바로 국가 → 백성 → 의식주에 차례로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바탕에 있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농서(農書)를 보급하려는 노력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고려말 충정왕(忠定王) 원년(1349)에 이암이 연경에서 구입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지합주 부사(知陝州府事) 강시(姜耆)가 간행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이와 함께 <사시찬요(四時纂要)>가 대표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태종 15년(1415)에는 <농상집요> 양잠편만을 한상덕(韓尙德)이 이두로 번역한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가 간행되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으며, 비록 오늘날에는 전하지 않지만 <농상집요>를 이두로 초역한 <농서(農書)>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현실은 이러한 일련의 중국 농서를 가지고 적용시킬 수 없었다. 세종이 지적하고 있는 바 대로 풍토와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전기의 농업에서는 ‘상경농법(常耕農法)’이 확립되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풍토의 차이와 발전적 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농업은 이제 조선의 농업 현실에 맞는 농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세종은 지속적으로 농사에 대한 관심과 권농책을 제기하였다. 가령 세종 10년 윤4월 11일에 권농방법을 의논하게 하여 예조판서 신상(申尙)이 ‘안동지방은 땅이 좁고 사람들이 많아서 농사짓지 않고 내버려 두는 땅은 거의 없는데도 사람들이 다 살림을 아껴 절약하므로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역농(力農)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을 상언하였다.

또 여산군(礪山君) 송거신(宋居信)도 말하길, ‘전라도에서는 황무지가 많으나 강원도에서 농민들이 옮겨가서 살게 된 뒤로 사람들이 늘고 숲과 초목에 덮인 질척한 늪이 다 논밭으로 개간 경작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문 지역에는 농민을 옮겨 경작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논과 함께 세종은 재위 10년 쯤에는 북관과 관서의 농민들을 위해 삼남의 선진농법을 보급할 것을 생각하였다. 즉 세종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경상도 감사에게 내리고 있다.

“함길도와 평안도의 두 지방은 토질이 기름지지만, 백성들이 농사짓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전 습관대로 농사를 지으므로 그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다 거두지 못하고 있다. 쓸만한 좋은 방법을 채택하여 북관과 관서의 농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니, 경상도 지방에서 논밭을 갈고, 씨를 심고, 김을 매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과 오곡에 알맞는 토성과 잡곡을 번갈아 가며 심는 법을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물어서 추리고 정리하여 책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이와 함께 국비로 재래의 농서를 1천 벌씩 찍어 보급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11년 5월에 마침내 정초(鄭招)는 삼남(三南)의 노농(老農)들에게 농사경험담을 적어 올리게 한 것들을 모아 정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현실에 맞는 농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농사직설(農事直說)>이다.



이것은 세종이 각 지방의 기후 풍토가 다 달라서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그 고장에 알맞는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옛날 책에 있는 방법과 다 같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 데에서 비롯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사직설>에 따라 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영농지도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농사에 진력을 다할 것을 말하였다.

농서의 보급과 더불어 세종 때 농업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언의 수축과 함께 수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차의 보급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세종 11년 11월 5일에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갔다온 박서생(朴瑞生)의 수차에 관한 보고에 의해서였다. 한재가 특히 심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수차를 만들어 보급한다면 어느정도 이를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듯했다. 이에 김신(金愼)으로 하여금 수차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였으며 이를 만들어 지방에 권장하여 수차를 쓰도록 하였다. 세종 12년 9월 말에 호조에 명한 세종의 의지는 강력했다.

“우리 나라 백성들은 다만 제언의 이(利)만 알고, 수차로 관개하는 것의 편리하고 이로운 것은 알지 못한다. 한번 한재를 당하여 농사를 실패하면 농민들의 형편이 참으로 불쌍하다.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이제 나누어 준 수차에 의거해서 수차를 만들어 백성들이 논밭에 물을 대는 데 쓰도록 하라.”

그러나 수차경차관(水車敬差官), 수차감조관(水車監造官)을 파견하면서까지 그 보급에 대해 노력했지만 실제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자연적 재해를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한 이 일련의 노력은 현장에서 수차를 쓰는 농민들과 이를 만들어 보급하고 지도하는 수령이 그 참뜻에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작동요령을 모른다든지, 일을 힘들어하여 거부한다든지, 혹은 자연조건을 무시하고 적용하려 하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결국 수차보급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한 세종의 참뜻과 의지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과학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의 노력은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시도되고 있었다. 기후와 강우,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1437년에 원나라의 천문학자 곽수경(郭守敬)의 제도를 본떠 정식 천문 관측장치로 경회루 연못 북쪽에 지름 6자 정도 크기의 간의(簡儀)가 만들어졌다. 또 경회루 남쪽에는 세종 때 위대한 장인인 장영실(蔣英實)이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를 만들었고 이를 더욱 교묘하게 하여 옥루(玉漏)가 고안되었다. 이것은 자동 물시계에다가 천문현상과 신선(神仙) 등이 나타나 저절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으로 정교한 자동시계였던 것이다.

여기에 농경에 꼭 필요한 역법의 바른 정리를 위해, 또한 기상관측을 위하여 대간의(大簡儀) · 소간의(小簡儀) · 혼의(渾儀) · 혼상(渾象) · 양부일구(仰釜日晷) ·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 규표(圭表) · 금루(禁漏) · 선기옥형(璿璣玉衡) 등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측우기(測雨器)는 서양보다 2세기나 앞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측우기는 전국 주요 지점에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한강과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水標)가 만들어져 중대한 관측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측량 및 천문 관측기구와 더불어 천문역산학의 연구성과로서 1442년에 <칠정산(七政算)>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 완성되었다. <칠정산> 내편은 원의 곽수경 등이 완성한 수시력을 서울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외편은 원나라에 들어와 있던 아랍 천문학체계를 소화한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이순지(李純之) · 김담(金淡) 등의 천문학자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성과물이었다.

세종조의 경제제도로써 빼놓을 수 없는 업적 중의 하나가 공법(貢法)의 제정이다. 이 공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지(田地)를 올바르게 측량하고 기록해야만 한다. 그 동안의 측량은 측량자가 가서 전답의 필지를 일일이 답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서 답험손실법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답험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 중간부정을 막고 국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조세원의 정확한 파



악, 경작자인 농민들에게는 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공법이란 본래 여러 해 동안의 토지생산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정한 액수를 과세하는 일종의 정액세법으로서 중국의 하후씨(夏后氏) 때 행하였다는 전설적인 제도이다. 세종은 즉위초부터 이러한 공법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처음 토로한 것은 세종 9년의 중시(重試)의 책제(策題)에서이다. 즉,

“예로부터 제왕의 다스림에는 반드시 일대의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법이다. … 손실담험은 구차히 애증에 쫓아 고하가 그 손에 달려 있으므로 백성이 해를 입는다. 이 폐단을 구하려면 응당 공법이나 조법(助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법은 반드시 정전(井田)을 한 뒤에라야 행할 수 있으므로 역대 중국에서도 오히려 불가능했다. 하물며 우리 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언덕과 진펄이 뒤섞여 있어 그것을 쓸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법은 하서(夏書)에 실려 있고 주나라 역시 조법을 썼다고 하나 향수(鄉遂)에서는 공법을 썼다. 다만 그것은 여러 해 작황을 비교하여 평상치를 정하는 까닭에 좋지 않다고 이르는 것이다. 공법을 쓰면서도 이른바 좋지 않다는 점을 없애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공법의 좋지 않은 점은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한 당시로서 흉년에는 관계 없지만 흉년에는 정액에 맞추기 때문에 수탈이 자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의 실시를 자기 혼자만의 의지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현실로 볼 때 세종은 이를 매우 획기적인 방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제 그 담세증인 농민들로부터 각 도 감사·수령·품관들에게 그 가부를 물어 계문토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법의 시행을 찬성하는 자는 9만 8,657인이며 반대하는 자는 7만 4,149인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토지생산력이 높은 지역인



경상도·전라도의 경우 6만 5,864 대 664로 찬성편이 절대 우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토지생산력이 낮은 함길도·평안도의 경우는 1,410 대 3만 5,912로 반대편이 우세하였다. 여기에 관료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결과에 자신을 얻은 세종은 마침내 세종 18년 윤 6월에 공법의 전담 주무관청으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였다.

오랜 기간을 두고 검토하고 논의하며 그 타당성을 실험한 결과로 결국 세종 26년 공법의 내용이 확정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농서의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기술의 적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동시에 꾀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농업생산력의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동시에 노력한 종합적인 구상에서였다.

그 결과 드디어 결부제에 의거하는 전분육등(田分六等)과 연분구등(年分九等)의 공법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과 고심 끝에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그 텅다고 하더라도 백성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구상과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세종이 참으로 성군임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법안을 입안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당시 왕권의 전제성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탄할 만하다.

#### 라. 훈만정을 창제

세종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백성의 생활에 대한 걱정이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정책으로 삶의 질은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세종은 결코 이에 머무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백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세종에게 있어 관심사는 백성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직접 접하는 수단을 발명하는 것이었다. 뜻을 펴려고 하여도 글자를 몰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



결해야 할 것인가?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중국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익혀서 나날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鄭麟趾)의 후서(後序)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나라는 예악과 문물이 중국과 대등한데 다만 방언과 풍속의 말이 중국과 같지 않다. 이 때문에 글을 배우는 지는 뜻을 깨닫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리는 곡절을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겼다. 옛날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 이두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부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한자를 빌어 쓰는 것이어서, 혹은 난삽하고 혹은 막히어, 비루하고 고거(考據)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만분의 일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두 군데 모두 그 동안 교화정책을 행함에 있어 상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편민(便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나라말에 따른 문자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따로 밝히고 있듯이 옥사에서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함을 먼저 들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이편(利便)함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한 것이었다. 또한 진정으로 ‘민본(民本)’이란 무엇인가를 치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피치자 즉 일반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려 하였으나 일군의 집현전 학자들과 대신들은 많은 상소를 올려 반대를 하였다. 특히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가 올린 반대 상소문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강의 요지는 사대의 노선에 이러한 문자창제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 문화의식 수준은 중국과 같은



정도인데 구태여 문자창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만리가 밝힌 반대 이유는

1. 중국과의 외교적·문화적 사대관계상의 문제점,
2.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 자체가 이적(夷狄)의 일이라는 것,
3. 지금까지의 우문정책(右文政策)에 미쳐질 손실,
4. 행정(刑政)의 요체는 결코 언문(諺文)의 마련에 있지 않다는 것,
5. 창제의 과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 서둘러지고 있다는 것,
6. 동궁(東宮)이 이 일에만 전념하여 그 성취에 손(損)이 생기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 상소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배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만든 본의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만일 이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했다면 지금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군상(君上)이 하는 일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四聲)·칠음(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이 운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겠느냐. 또 소(疏)에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라 하였으니, 내가 만년에 날(日)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서적으로써 벗을 삼았을 뿐이니,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해서 하는 일이겠느냐. 또 이것은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따위가 아닌데, 너희들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또 내가 연로하였으므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일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에만 있게한다면 환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시종하는 신하로서 나의 뜻을 환히 알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훈민정음 제작의 뜻이 오직 편민에 있음을 강조하고 상소문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일일이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다.

사실 훈민정음은 이미 세종 25년 12월에 완성되었었다. 위의 내용들은 훈민정음의 반포와 시행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었다. 세종 25년 12월의 말미 기록에 보면 ‘이 달에 상이 언문 28자를 친제(親製)하셨다. 그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고 초·중·종 삼성(三聲)으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 무릇 한문 및 우리 나라 말을 다 적을 수 있으니 글자는 비록 간요하지만 전환이 무궁하다.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이른다’고 적고 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 28년 9월 말에 이르러서야 수정 보완이 끝났음을 실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문자를 가지게 된 것이니 훈민정음의 창제야말로 위대한 문자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창제된 훈민정음의 활용에 있어서 세종은 26년에 일단 언문정(諺文廳) 또는 정음청(正音廳)이라는 기구를 두고 언해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첫 번째로 <운회(韻會)>라는 음운서를 택하였지만 어려움이 있자 다른 운서를 택하여 곧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편찬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즉 여기서 우리 나라 한자음의 표준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한자음 표기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언해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불경이 주로 이용되었다. <석보상절(釋譜詳節)>·<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월인석보(月印釋譜)> 등의 작품이 그 예이다. 또한 세종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노래 역시 훈민정음으로 적어 여타 군신들에게 550부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종이 불경의 언해를 먼저 시작한 데에는 그의 다른 의도가 숨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서 훈민정음 반대 상소와 여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반대층이 대개 유자층인 까닭에 유교경전이 아닌 운서나 불경을 택함으로써 유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렇게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적 창조력을 보여주었으며 마



침내 이로 인해 국어의 전면적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참제 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늘날 세종대왕의 이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글날’이 정해져 그 뜻을 새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마. 왕위의 위엄

궁궐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주권자인 국왕과 왕실의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그 제도를 사치스럽게 하면 백성들을 수고스럽게 하고 재력을 낭비하며 원성이 있게 된다. 반대로 누추하게 하면 왕실의 존엄을 보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검소하게 하되 누추하지는 않게 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왕의 존엄함을 드러내고 정령(政令)을 내리는 곳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태조대와 부왕인 태종, 그리고 자신의 대에 이르면서 이영으로 엮어 처음 정사를 시작하던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위의 내용에 맞는 궁궐의 구조가 갖춰지게 되었다.

태조 4년에는 경복궁(景福宮), 태종 5년에는 창덕궁(昌德宮)이 완공되었다. 이 양궁이 만들어 지면서 경복궁은 태조가 창건한 법궁(法宮)으로서 권위를 가졌고, 창덕궁은 왕이 기거하는 실질적인 왕궁으로서 이궁(離宮)의 역할을 하였다. 세종 즉위년에는 인정전(仁政殿)이 창덕궁 안에 만들어졌다. 세종은 또 상왕이 된 태종을 위해 수강궁(壽康宮)을 수리하라는 명을 내려 창경궁(昌慶宮)의 모태가 되게 하였다. 세종 8년에는 집현전 수찬(修撰)에게 명하여 경복궁의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짓게 하였는데, 홍례문(弘禮門)·광화문(光化門)·일화문(日華門)·월화문(月華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영제교(永濟橋) 등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다.

세종 11년에는 사정전(思政殿)과 경회루(慶會樓)를 중수하였으며 13년에는 광화문의 수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궁궐이 조성되다가 세종은 경복궁



과 수도 한양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벌이게 하였다. 이렇게하여 순차적으로 궁궐이 조성되어 감에 따라 감소하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한양과 궁궐의 모습이 갖춰진다. 이는 세종의 왕권의 확립과 더불어 궁궐의 기능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가의 체계가 잡히고 그 정치영역이 세분화되고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궁궐의 축조를 통해 갖춘 세종은 이제 조선건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집현전과 여러 경로를 통해 등용한 인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그것은 전대의 역사에 대한 정리와 편찬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전대 왕조인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 노력은 이미 태조조의 정도전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개국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 나온 것이 정도전과 정충이 편찬한 <고려국사(高麗國史)>였다. 태종조에도 역시 정도전 등이 쓴 <고려국사>를 다시 정리하여 과거의 사실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을 쏟았는데, 태종 원년에 하륜(河崘)에게 명하여 고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세종조에 넘어가게 되었다.

전조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시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고려왕조의 역사정리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편찬자들이 전 시대와 관련을 갖고 있어서 기록에 대해 가감을 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혹은 곡필을 하거나 취사선택에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가계를 미화하는 경우등 잘못된 역사를 쓸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왕실 자체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세종은 결코 이러한 입장에 빠지지 않았다. 세종은 즉위년 12월 25일에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를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에 공민왕(恭愍王) 이하의 사적은 정도전이 들은 바로써 더 쓰고 깎고 하여, 사신이 본 초고와 같지 않은 곳이 매우 많으니, 어찌 뒷세상에 미쁘게 전할 수 있으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세종이 생각한 역사란 이미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통해 보아온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역사의 기록이란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진솔하게 기록하는 방법인 춘추필법(春秋筆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귀감을 삼으려는 것이었다.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국어보정(國語補正)〉·〈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편찬은 이러한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읽고 이해하며, 그리고 다시 편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전시대의 문물과 제도 등에 대해 다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다.

즉 역사를 정리하면서 현재의 문물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법전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직(李穰)·황희(黃喜) 등이 쓴 〈신속육전(新續六典)〉, 정초 등에게 명해 개수하게 한 〈속대전(續大典)〉·황희 등이 찬진한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등의 법전이 그 내용이다.

사실대로 고려사를 기록하게 하는 한편으로 세종은 사관 및 신하들과 경연을 통하여, 혹은 신하들과 논의를 해 가면서 고려사의 기술체제와 서술방법, 사관(史觀) 등을 정리해 나갔다. 작업은 김종서와 정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춘추관(春秋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단 1442년 8월 12일에 신개(申概) 등이 마침내 〈고려사〉를 찬진하여 일단락을 맺었으나 소략한 것이 많아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친 후 〈고려사〉의 편찬체제는 기전체의 형식을 수용하여 기·전·표·지의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세종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고려사〉의 완성을 끝내 살아 생전에는 보지 못하고 말았다. 문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후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 등 총 139권으로 이루어진 〈고려사〉가 비로소 만들어졌던 것이다.

세종은 만들어진 역대실록과 사서 등의 보관과 전승을 꾀하였다. 언젠든 사고로 분실할 위험이 있기에 1445년 11월 19일,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星州)에 사



고(史庫)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역사편찬 작업을 통해 세종은 그가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던 간에 그 결과로서 조선의 건국을 합리화하고 정통성을 확인하며, 의리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민족의 자주성이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고려사 및 역사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의 정통성은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바가 되었다. 여기에서 세종은 고려와 조선의 계승 관계가 천명(天命)에 의한 것으로, 영웅적인 태조와 태종의 힘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선조들의 무공을 통해 정신적으로는 여진과 왜구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용비어천가>는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세종 24년 3월 2일 세종은 예문 제학 안지(安止)와 직집현전 남수문(南秀文)에게 다음과 같이 <용비어천가>의 편찬 의도를 내비쳤다.

“태조께서 잠저에 계실 때에 뛰어난 무덕(武德)이 하나둘이 아닌데, 지금 실록을 보니 어찌 이렇게 그 사이 간략하게 되었는가?”

또 이와 더불어,

“경들이 태조의 사실을 알고 있는 나이 많은 늙은이들을 찾아다니며, 사실대로 물어서 들은 것을 기록하여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하여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의 사적과 태조의 무예와 신공(神功)을 노래하고 태종의 임금될 자격과 천명을 기록한 <용비어천가>를 세종 27년 4월 5일에 완성하여 세종에게 바쳐졌다. 권제와 정인지, 안지 등이 총 125장, 10권으로 만든 것이다. 대서사시로서 노래로 부르고 악곡이 만들어져 연주되고, 또한 춤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이 올린 <용비어천가>의 상전문을 보면 그 내용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진다.

“어진 덕을 세상에 널리 베푸시고 큰 복조를 성하게 열으시매, 공(功)을 찬술(撰述)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가장(歌章)에 펴이 마땅하오니 이에 거친 글을 편찬



하와 예감(睿鑑)에 상당하옵니다.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뿌리깊은 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무성하고 근원이 멀면 흐름이 더욱 긴것이옵니다. …오직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사공(司空)께서 신라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서 여러 대를 서로 이으셨고 목왕(穆王)께서 처음 변방에 일어나서 큰 명(命)이 이미 조짐되었으며, 익조(翼祖)와 도조(度祖)가 연이어 경사(慶事)를 쌓으시고, 환조(桓祖)에 미쳐 상서가 발하였나이다. 은혜와 신의(信義)가 본래 진실하오매 사람들의 불쫓는 자가 한두 대(代)만이 아니오며, 상서로운 징조가 여러 번 나타났으며 하늘의 돌보심이 거의 몇 백년이옵니다.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상성(上聖)의 자질로써 천년의 운수(運數)에 응하시, 신성(神聖)한 창을 휘둘러서 무위(武威)를 떨쳐 오랑캐를 빠르게 소탕하시고, 보록을 받아 너그럽고 어짐을 펴서 모든 백성을 화목하고 편하게 하셨으며, 태종 공정 대왕께서도 영명(英明)하심이 예에 지나시고 용지(勇智)하심은 무리에 뛰어나서, 기미(幾微)를 밝게 보시고 나라를 세우시니, 공이 역만년에 높으시고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사직(社稷)을 편히 하시니,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옵니다. 위대하신 여러 대(代)의 큰 공은 전성(前聖)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가지런히 하였으며, 이를 형용해 노래하여 내세(來世)와 지금에 밝게 보이옵니다. …이에 목조(穆祖)의 처음 터전을 마련하실 때로부터 태종의 잠저(潛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릇 모든 사적(事跡)의 기이하고 거룩함을 빠짐없이 찾아 모으고, 또 왕업(王業)의 어려움을 널리 베풀고 자세히 갖추었으며, 옛 일을 증거로 하고 노래는 국어를 쓰며, 인해 시(詩)를 지어 그 말을 풀이하였습니다. 천지를 그림하고 일월을 본뜨오니 비록 그 형용을 다하지 못하였사오나, 금석(金石)에 새기고 관현(管絃)에 입히면 빛나는 공을 조금 드날림이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살피어 들이시고 드디어 펴 행하시,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큰 업(業)이 쉽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시골에서 쓰고 나라에서 써서 영세(永世)에 이르도록 잇기 어렵게 하소서. 편찬한 시가(詩歌)는 총125장(章)이온데, 삼가 쓰고 제본하여 전(箋)을 아뢰옵니다.”

그리고 29년 2월에는 이에 대한 주해(註解)가 완성되었다. 5월에 세종은 이렇게 하여 마련된 <용비어천가>를 강녕전(康寧殿)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더불어 6월 4



일에는 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취풍형(醉豊享)·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 등의 아악과 속악의 악보를 이에 붙였다. 참으로 보기힘든 광경이며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세종은 이 해 10월 16일 완성된 <용비어천가> 550벌을 신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왕실의 존엄성과 신성성, 그리고 당위성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또 다른 작업이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 바. 사대교린책(事大交隣策)과 국토의 완성

제(齊) 선왕(宣王)이 이웃 국가와의 교린(交隣)이 도(道)인가를 맹자에게 물었다. 이 때 맹자가 대답하길,

“오직 인자(仁者)만이 능히 대(大)로써 소(小)를 섬기니 이런 까닭에 탕(湯)이 갈(葛)을 섬기시고 문왕(文王)이 곤이(昆夷)를 섬겼습니다. 오직 지자(智者)만이 능히 소(小)로써 대(大)를 섬기니 때문에 태왕(太王)이 훈족을 섬기시고 구천(句踐)이 오(吳)를 섬겼습니다. 대로써 소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뜻을 즐거워(樂)하는 자요, 소로써 대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뜻을(天)을 두려워(畏)하는 자이니 하늘의 뜻을 즐겨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保全)하고,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사대와 교린이 갖는 그 현실적 이익과 함께 명분을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평안히 보유(保有)하는 방도를 일깨워 주기도 한 통념으로 인식되어온 맹자의 내용이다.

조선의 대외정책은 큰 범주에 놓고 볼 때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로 사대교린(事大交隣)정책으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특히 명(明)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준비하는 외교정책인 것이다. 명에 대한 사대는 힘의 열세가 부정될 수 없는 것인 한, 자기 보전을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외교관계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지에서서이기도 하였다. 명과의 무력 충돌을 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승산없는 싸움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명과 외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유무형상으로 이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물과 제도의 수입, 국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외교 정책과 기본 인식은 이와같은 노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또한 외교 명분론이기도 한 것이다.

세종에게 있어서 명과의 관계설정은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명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면서 그 문물과 제도의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조선의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이익을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태종과 세종조에 이루어진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력의 정비는 또다른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그동안 우리의 번방을 괴롭히던 북로남왜(北虜南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그것이다. 세종이 왜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한 일과 두만강 방면의 여진족을 쳐 육진을 개척한 것, 또한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개척한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세종 원년 5월에 왜구는 3천 척이나 되는 선박을 동원하여 비인(庇仁)·해주(海州) 등지를 약탈하는 일이 일어났다. 3천척이면 적어도 그 인원이 적어도 2~3만 명 이상이 된다는 추산이다.

당시 군국을 장악하고 있던 태종은 세종과 상의하에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를 삼아 중군을 거느리게 하여 6월에 출발토록 하였다. 병선 227척, 군사 1만 7285명의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었고 군량은 65일분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대마도 앞바다에 도달하자 대마도의 왜구들은 이들 대군을 아군으로 오인하고 오히려 맞이할 준비를 할 정도였다. 완벽한 기습이었던 것이다.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등은 7월에 수군을 이끌고 거제로 돌아왔다. 8월에는 태종과 세종이 돌아온 이종무와 장수들을 위하여 낙천정에서 영접하고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참으로 통쾌한 일격이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해안과 내륙지방까지 노략질하던 왜구는 이로인해 그 힘이 약화되었고, 대마도는 조선의 명령을 들어야 했다. 그 후 세종은 대마도와 일본에 유화책을 쓰면서 그들에게 대장경 등의 불경이나 생활용품, 기타 서적 등을 내리기도하여 왜구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남쪽의 근심을 덜 수 있었다.

북쪽의 여진족을 중심으로 하는 야인들의 잦은 침입과 약탈 역시 골칫거리였다. 물론 야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부족들은 서울까지 와서 자기들의 토산물을 바치고 필요한 물건을 얻어갔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허직(虛職)을 주어 회유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하였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야인들은 평안도·함경도 등지로 들어와 농산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기 일쑤였다. 세종은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여진족을 소탕하려면 압록강을 건너야만 한다. 하지만 명의 입장은 이에 대해 국경침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조선의 국경 사이에서 약탈을 행하는 여진의 존재는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존재였다.

1433년(세종 15) 세종은 곧 의정부·육조와 삼군 도진무에게 여진 토벌방책을 논의하게 하고 군대를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3월 7일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의 토벌계획 보고가 있는 뒤 오랑캐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였다. 5월 7일에 이르러 최윤덕은 평안도·황해도의 군사 1만 5천명을 이끌고 파저강(婆猪江) 부근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오랑캐 이민주(李萬住)의 무리를 소탕하였다. 5월 26일의 일이었다.

세종은 이에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근정전(勤政殿)에서 잔치를 베풀고 최윤덕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일은 명과의 외교문제를 일으켰고 야인들은 이를 믿고 다시 조선을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명나라에 있었다. 그들이 야인들에 대한 호의를 거두어 들이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좌승지에 오른 최치운(崔致雲)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이를 명나라에 알려 양해를 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치운은 황제의 외교적 양해를 얻고 칙서를 받아 돌아옴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최치운의 이러한 공적에 대해 세종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그에게 전 5백결과 노비 30명을 내렸지만 최치운은 자신은 충성심에 따라 일을 행하였고 국록을 먹고 있는 자로서 당연한 일임을 들어 몇차례씩이나 사양하였다. 세종도 또한 그가 진심으로 그러함을 알고 거두어 들었다.

태종 16년에 갑산(甲山) 소동두(小童豆)의 서편을 끊어서 여연군(崖延郡)을 설치한 것에 기초하여 세종15년에는 자성군(慈城郡)을 두었고 18년에는 무창현(茂昌縣)을 두었으며 25년에는 우예군(虞內郡)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군(四郡)이 개척되었다.

한편으로 함경도 쪽으로 들어오는 야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였다. 특히 경원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은 조선의 왕실이 일어난 곳으로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야인의 침입을 막고 수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진(鎭)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일게 되었다. 세종 16년부터 김종서와 여러 대신들은 많은 논의 끝에 세종과 김종서의 주장대로 육진을 설치하게 되었다. 김종서는 함경도 도절제사가 되어 이를 책임맡았다. 경원(慶源)·종성(鐘城)·회령(會寧)·경흥(慶興)·온성(穩城)·부령(富寧)의 육진이 세종 31년에 설치됨으로써 앞서의 사군과 육진의 지역을 경계로 삼는 오늘날 우리 나라 영역의 골격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세종과 김종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믿은 결과였다. 처음에 세종이 김종서에게 명하여 육진(六鎭)을 설치하려 할 때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었다. 반대하는 자는 “종서가 한도가 있는 사람의 힘으로써 이룩하지 못할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 죄는 죽여야 옳다.” 고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즉, “비록 내가 있으나 만일 종서가 없었다면 이 일을 죽히 할 수 없을 것이요, 비록 종서가 있으나 내가 없었더라면 죽히 이 일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었다.

세종은 북방의 야인과 남쪽의 왜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였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후에도 간혹 여진족과 왜구 등의 침입이 있었으나 그들도 조선의 강력한 대응을 두려워하여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조선과 무역을 하여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숨통을 터 주기도 함으로써 강은 양면 계책은 모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의 대외관계면에서의 정책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즉, 명에 대한 사대의 외교는 성(誠)으로써, 그리고 왜인과 야인에 대한 교린의 외교는 신(信)으로써 한다는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었다.

세종의 기쁨과 슬픔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 스스로의 편안함을 도모하여 방탕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경서와 사서, 그리고 부왕인 태종의 치세에서 보고 느낀 것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정신에 바탕을 둔 왕도를 익히고 펴나갔다.

나라가 위태하면 즐거운 임금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면 근심하는 백성이 없다. 나라가 혼란하면 위태하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편안하다. 이를 위해서는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순리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세종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웃음과 기쁨의 환호성이 온천하에 가득찼던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였다.

이제 대왕은 역사 속에서 그 웃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 가슴에도 그의 언어와 동작 하나하나가 새겨지고 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이는 영원할 것이다.

대왕을 세종이라 칭하게 된 연유를 보면 더욱 그의 업적에 숙연해 지기만 한다. 즉 문종 즉위년 3월 13일에 허후·정인지(鄭麟趾) 등이 의논하여 대왕의 시호를 고치기를 다음과 같이 아뢴 일이 있었다.



“역대(歷代)에 세종(世宗)이라고 일컬었던 군주(君主)는 중흥(中興)하였기 때문 이거나 혹은 창업(創業)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대행 대왕(大行大王)은 이와 같지 않은데도 세종이라고 일컫게 되면 덕행(德行)을 기록하는 뜻에 결점(缺點)이 있어서 역대 칭호(稱號)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문종(文宗)이라고 고쳐서 실제의 덕행을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문종이 말하기를,

“비록 칭호는 세종(世宗)이라고 하지마는, 선왕(先王)의 덕행은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북방(北方)에서 공훈(功勳)이 있었으니, 세종(世宗)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면서 중흥과 창업에 모두 의미가 있다하여 세종이라 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의정부에서 세종의 업적과 인품을 기록하여 예조에 상신하는 글의 말미를 인용하면서 세종대왕을 기리고자 한다.

“…… 왕이 인자하고 명철하여 과단성 있게 결단하였고, 효성 있고 우애하며 부지런하고 검박하였으며, 대국을 섬기는데 지성스럽고, 어버이를 섬기는 데 효도를 다했으며, 구족(九族)과 도탑게 화목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어진 사람을 임명하고 재능있는 사람을 시키고, 일은 반드시 옛 것을 스승삼아 제도를 분명하게 갖추어 놓았으니, 그물(網)을 들면 그물눈이 저절로 열려서, 섬에 사는 왜인과 야인(野人)들도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한 지 30여 년간에, 백성이 전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생업을 즐기었습니다. 문교(文教)가 크게 일어나서 울연(蔚然)히 불 만하였으니, 흥서(興逝)하신 날에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들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어록**

그러나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정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다.

# 세종대왕의 사람들



집현전 학사도

〈석봉 조무호 작〉

여

백

# 세종대왕의 사람들

## ●태종(太宗)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터이니 너는 태평성대를 열라.’ 던 임금. 그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太宗 1367 - 1422)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6남 2녀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당시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점을 쳐서 아이의 운명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터라 어머니 한씨는 이를 난 점쟁이 문성윤이란 사람을 찾아가 태종의 사주를 보였다. 그러자 그 사주를 본 점쟁이가 옷매무새를 고치고 한씨에게 공손하게 대답하기를 “이 아이의 사주는 귀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하시고 점쟁이에게 경솔히 물어보지 마소서.” 라고 하였다.

태종의 용모는 아버지의 얼굴을 빼다 박은 듯이 닮아 아버지 이성계의 사람이 각별했다. 태종 이방원은 138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시험에 병과 7등으로 급제하여 이성계로 하여금 대궐을 향해 절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태종은 진사시험에 합격하던 해에 당대의 문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민제(閔齊)의 둘째딸 숙(肅 : 뒤에 원경왕후)과 결혼했다. 이무렵 태종은 장인 민제를 통해 점차 정치적 후원자가 될 하륜(河崙)을 만나게 된다. 관상에 일가견이 있던 하륜은 민제의 집에 드나들면서 민제의 둘째 사위 태종의 얼굴에 보통사람과는 다른 기운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나이를 넘어 태종을 주군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였다.

1398년 정도전등에 의해 요동정벌과 사병혁파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반발한 태종은 8월 26일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과 세자 방석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1399년 9월 태종이 개성의 추동(楸洞) 잡저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태종이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침실 동마루 위에 흰룡이 나타난



것이다. 그 크기는 서까래만하고 비늘이 있어 광채가 찬란하고 꼬리는 꿈틀꿈틀 하고 머리는 태종이 있는 곳을 향하였다. 얼마 후 운무가 자욱하게 끼더니 그 흰 용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용이 왕을 상징하므로 태종이 왕 위에 오를 징조라고들 하였다.

1400년 1월 26일 회안군 방간과 박포가 태종에게 시기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태종을 치려고 군사를 동원하였으나 곧 패하여 회안군은 토산으로 유배되고 박포는 참수되었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다. 난이 진압되고 나서 태종은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그해 11월 11일 형 정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확립을 위하여 공신과 외척을 과감히 제거하였다. 1404년에 이거이, 이저 부자 1407년에 민무구, 민무질 형제 1409년에 이무, 윤목, 유기 1416년에 이숙번, 민무홀, 민무회 등이 사사되거나 축출하였다. 한편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가 이를 다시 육조직계제로 전환하여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밖에 지방, 군사, 토지, 조세, 노비제도등을 정비하여 건국초기의 혼란을 다스리고 국가기틀을 다졌다. 또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 덕수궁, 경회루, 청계천을 조성하므로써 세종대왕의 치세를 위한 토대를 완벽하게 마련하였다.

슬하에 12남 17녀를 두었는데 첫째가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효령대군이며 셋째가 세종대왕이다. 1418년 무절제와 방탕한 생활을 해온 사실을 들어 세자인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뒤 2개월 만에 왕위를 물려주었다. 1422년 5월 10일 천달방 신궁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는 태종이며 능호는 헌릉으로 광주 대모산(大母山 :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다.



**세종대왕 어록**

“무당이나 점장이의 일은 심히 괴이하므로 마땅히 엄금해야 되나, 그러나, 중고(中古)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종(祖宗)에 이르도록 모두 금하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점자로 없애어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실마리를 열게 하리라.”



## ● 원경왕후(元敬王后)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임금으로 섬기는 세종대왕. 그 분을 낳은 이가 원경왕후 민씨다.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 - 1420)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의 비. 여흥부원군 민제의 둘째 딸로 1365년 7월 11일 개성 철동에서 태어났다고 하나 여흥에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다. 원경왕후는 18세가 되던 1382년 두 살 아래인 태종과 혼인하였다.

원경왕후는 사대부의 여식으로는 드물게 사리에 밝으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와 태종 이방원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태종이 강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강씨의 여종을 유혹했다가 발각이 되었다. 강씨가 노하여 태종의 아이를 가진 여종을 죽이려하자 태종의 부탁을 받은 원경왕후가 궁궐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강씨가 보는 앞에서 여종에게 침을 뱉으며 자신의 지아비를 유혹한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듯이 펄펄 뛰자 강씨는 안심하고 원경왕후에게 여종을 내주었다. 이렇게 원경왕후의 기지로 살아난 여종이 효빈 김씨였다.

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병혁과 작업이 한창 일 때 동생인 민무구, 민무질등과 함께 남편의 사병들과 무기를 반대파의 눈을 피해 친정집에 숨겨 두게 하므로써 태종은 아무 손실없이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후일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이무렵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여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 즉 태종의 형제들이 대궐에서 숙직을 하게 되었는데 원경왕후는 이를 정도전 일당이 왕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술책으로 여기고는 사람을 보내 자신의 가슴에 갑작스런 통증이 생겼다는 핑계로 태종을 밖으로 불러내었다. 급히 대궐밖으로 나온 태종은 곧바로 정도전과 남은등을 기습하여 이들을 살해하고 배다른 동생이자 세자인 방석과 그의 형 방번 마저 죽이니 이것이 제 1차 왕자의 난이다. 2년 뒤인 1400년,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가 다음 왕위를 노리던 태조의 4째 아들 방간을 총동원하여 태종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일으킨 난이 제 2차 왕자의 난이다. 태종이 방간과 결전을 치루고 있을 때 초조하게 결과



를 기다리던 원경왕후는 군사 목인해(陸仁海)가 탔던 태종 사저의 말이 화살을 맞고 도망하여 스스로 마굿간으로 돌아오자 싸움에 패하여 태종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싸움터로 나가 자신도 죽으려고 하였다. 시녀와 종들이 말렸으나 고집을 꺾지 않다가 정사파(淨祀婆)라는 이웃 노파가 태종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자 비로소 집에 돌아갈 정도로 원경왕후의 성미는 대단했다.

임금이 된 태종은 외척의 세력을 분산시키고 왕실의 번성을 위해 후궁들을 많이 들였다. 이점이 원경왕후와의 불화요인이 되었다. 태종 2년 3월 7일, 성균악정 권흥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이게 되자 원경왕후가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환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운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을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갈등은 원경왕후의 친정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이 협유집권의 의심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었다하여 민무휼, 민무회를 자진시키는데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금슬이 나쁘기만 한것도 아니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슬하에 8자녀를 두었는데 양녕, 효령, 충녕, 성녕대군과 정순, 경정, 경안, 정선공주가 그들이다. 원경왕후를 왕비에 봉하는 책문에 보면 ‘일찍부터 집안의 화복함을 이루는 덕을 나타내었고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끌어서 종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으니 조강(糟糠)의 옛정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태종은 아들 세종대왕에게 “너의 모후의 공이 유씨(태조 왕건의 부인)의 제갑(提甲 ;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자 할 때 유씨가 손수 갑옷을 입히던 것을 이름)에 비교하면 더욱 좋다.” 고 말하곤 하였다. 원경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21년 만인 1420년 7월 5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으며 헌릉에 태종과 나란히 묻혀있다.



● 민제(閔霽)

알려진대로 태종과 원경왕후는 모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혈육과 지친을 도려낼 수 있었던 이가 태종이고 지아비를 위해서라면 병장기를 쥐고 말을 몰아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가 원경왕후였다. 헌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세종대왕이 어떻게 것처럼 온후하고 관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대왕의 눈에는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신하를 억박지르지 않았으며 백성을 강제하지 않았다.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에게 눈물로 호소할 줄도 알았고 죄인들에게 조차 갈증을 풀어줄 한사발의 물을 잊지않았다. 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성품의 연원을 외할아버지인 민제에게서 발견하고는 비로소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민제 (閔霽 1339 - 1408) 본관은 여흥, 자는 중회(仲海), 호는 어은(漁隱). 1357년 (공민왕 7)에 문과에 급제한 후 창왕때 개성윤(開城尹), 공양왕때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여흥백에 봉해졌으며 태종 즉위후 여흥부원군으로 개봉되었다. 타고난 자질은 어질고 검소했으며 경사에 밝았는데 특히 사학을 잘하였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여흥부원군 민제의 성품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일화가 성현(成俔)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여흥부원군 민제가 조회에서 물러나오면 매양 이웃집에가서 바둑을 두었다. 하루는 공이 미복(微服)하고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이 나오지 않으므로 홀로 누각 위에 올라앉았다. 어떤 녹사가 공을 모시러 공의 집에 왔다가 공의 간 곳을 물으니 문지기 아이가 “공께서 외출하셨는데 가신 곳을 모르겠습니다.”하였다. 녹사도 새로 온 사람이라 역시 공의 얼굴을 몰랐다. 그는 이웃집에 가서 누각에 올라가 신을 벗고 다리를 문에다 걸치고 공에게 말하기를 “노인은 뉘십니까” 하니 공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시오”하였다. 녹사가 “노인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실로 가족을 꿰매어 쪼그린 것이 아닌가요” 하니, 공이 “타고난 바



탕이 그런 걸 어찌 하겠소” 하였다.

녹사가 또 “노인을 글을 아십니까” 하니 공이 “다만 성명을 기록할 정도요” 하였다. 또 옆에 바둑판이 있기에 녹사가 “노인은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하니, 공이 “다만 행마할 정도요” 하였다. 녹사가 “그러면 한판 두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드디어 바둑을 시작하여 상대하자 공이 바둑을 두며 말하기를 “어디서 온 손님이요” 하니, 녹사는 “부원군을 뵈러 왔습니다”하였다. 공이 “나는 부원군이 되지 못하였소”하니, 녹사가 “압툭은 아직 울지 못합니다”하였다. 이러는 중에 조금 있다가 주인 영감이 뚫어앉아 “제가 영공께서 여기 오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고 대죄하여 마지 않으므로 녹사가 놀라 신을 쥐고 도망치니, 공이 “저 사람은 비록 새로 들어온 시골사람이지만 의기가 뛰어나서 보통인물이 아니다” 하고 이로부터 극히 후히 대접하였다.」

續  
8  
10

**세종대왕 어복**

“역서(曆書)란 지극히 정세(精細)한 것이어서 일상 생활에 쓰는 일들이 빠짐없이 갖추어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일식(日食)·월식(月食)의 경위만은 상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는 고인(古人)도 역시 몰랐던 모양이니, 우리 나라는 비록 이에 정통하지 못하더라도 무방하긴 하나, 다만 우리 나라를 예로부터 문헌(文獻)의 나라로 일컬어 왔는데, 지난 경자년에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穡)이 역법(曆法)의 교정(校正)을 건의한 지 이미 12년이 되었거니와, 만약 정밀 정확하게 교정하지 못하여 후인들의 기소(機笑)를 사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니, 마땅히 심력을 다하여 정밀히 교정해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산수(算數)에 밝아서 방원법(方圓法)을 상세하게 아는 자가 드물 것이니, 내가 문자를 해독하고 한음(漢音)에 통한 자를 택하여 중국으로 보내어 산법을 습득케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 소헌왕후(昭憲王后)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종대왕이 자리매김 되기까지 그 곁에서 조용히 내조의 덕을 쌓은 이가 있었다. 세종대왕과 함께 영릉에 묻혀있는 소헌왕후 심씨가 바로 그이다.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 - 1446) 세종대왕의 비. 청송 심씨. 경복궁 공사를 감독하느라 손발이 다 터진 좌의정 덕부(德符)의 손녀이며 영의정 온(溫)의 딸이다.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소헌왕후의 가문은 동생 심희(沈澮)가 세조때 영의정을 지냄으로서 3대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소헌왕후는 1408년 두 살 아래인 세종대왕과 가례를 올렸다. 세종대왕이 왕세자로 봉해졌을 때 경빈이 되었고 임금이 즉위하자 공비(恭妃)라 불리웠다가 1432년 중궁에게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는 일은 예전의 법이 아니라 하여 왕비로 개봉되었다.

세종대왕이 즉위하자 장인인 심온은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영의정이자 왕비의 친정 아버지였으므로 많은 벼슬아치들이 나와 인사를 했는데 전송하는 거마가 거리를 뒤엎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고 한다. 이 일이 왕권강화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상왕 태종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다. 때마침 심온의 아우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군사와 인사를 상왕이 처리하는데 대해 “명령이 두 곳에서 나온다.”며 평소의 불만을 말했다가 박습이 이를 밀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심정은 역모의 죄로 참형을 당하고 심온은 그 수괴로 지목되어 귀국도중 의주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뒤 수원에서 사사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소헌왕후가 압록강까지 몰래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귀국을 만류하였으나 심온은 “나는 일편단심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을 뿐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며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

사약을 가지고 간 금부도사가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고 심온에게 묻자 그 자리에서 받아쓰게 한 것이 ‘오자손세세홀여박씨상혼야(吾子孫世世忽與朴氏相婚也).’였다. 이 말은 내 자손들은 혹시라도 박씨와는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유언은 불문율로 후손들에게 전해져 왔고 설사 박씨와 결혼한다 할 지라도



아들을 못낳아 대가 끊기거나 융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왕비의 친정 어머니와 식구들은 관비로 내쳐졌는데 조정에서는 죄인의 자식이므로 왕비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주하였으나 태종이 이것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왕비의 친정식구들을 세종 8년 5월 19일 세종대왕의 결단으로 천역에서 풀려나 복직되었다.

이런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소헌왕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워낙 천성이 인자하고 착한 터라 질투나 욕심이 없었는데 왕비가 된 후로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여 후궁들을 예로써 대접하고 궁인들 상하를 은혜로 어루만지며 사랑하였다. 세종대왕이 총애한 여인들을 특별히 융숭하게 대하는 가하면 자기가 낳은 왕자들을 그들에게 맡겨 기르게 하니 후궁들이 감복하여 오히려 자신의 소생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여 키웠다. 왕비 또한 후궁의 자식들을 자신의 왕자들 처럼 대하니 궁중의 모든 여인들이 왕비를 부모처럼 대접하였다. 소헌왕후는 29년 동안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번도 사사로이 친척을 위하여 부탁하지 않았으며 절대로 바깥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임금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이런 아내였기에 왕비가 나오고 물러갈 때 세종대왕은 반드시 일어서서 공경하고 극진한 예로 대하였다고 한다.

정인지가 지은 영릉 지문에 보면

[대개 하늘이 성인을 내매 반드시 어진 배필을 지어서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나니 주나라의 태사(太似; 문왕의 비)는 풍아(風雅)에 파영(播詠)되어 천고에 빛났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지극한 덕과 지극한 다스림으로 문왕의 뒤를 따랐는데 왕후께서 또 이와같은 덕과 행실이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지은 배합이다. 문왕의 후비가 예전에 아름다움을 독차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소헌왕후는 1446년 3월 24일 수양대군의 집에서 52세로 승하하였다. 세종대왕과의 사이에 8남 2녀를 두었는데 문종,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응대군, 정소공주, 정의공주다.



● 회안대군(懷安大君)

회안대군(懷安大君 1364 - 1421)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한씨의 4째 아들로 함흥 귀주동에서 태어났다. 태종 이방원의 바로 윗형이다. 이름은 방간(芳幹) 호는 망우당이며 시호는 양희(良禧)이다. 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첫째부인은 판서 민선의 딸이고 둘째부인은 판서 황형의 딸이며 셋째부인은 정랑 금인배의 딸이다.

회안대군은 고려 왕조에서 군기시 소윤으로 있었고 조선 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 회안군에 봉군되었다. 1398년 회안공으로 개봉되면서 의흥삼군부 좌군절제사가 되었으며 제 2차 왕자의 난으로 유배중인 1401년 회안대군이 되었다. 제 2차 왕자의 난은 박포가 회안대군을 사주하여 일으킨 난이다. 박포는 개국 2등공신으로 태조 3년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의 권력 독주를 비난하다가 죽주에 유배되기도 하였으며 1차 왕자의 난 때 죽성군으로써 참여하여 지중추원사 의흥삼군부 우군동지절제사에 제수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무에 비해 포상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죽주로 유배되었다가 5일만에 풀려나 정사 2등공신에 책봉되었다. 박포가 회안대군을 충동질한 내용이 실록에 적혀있다.

“지난해 동지에 박포가 내집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의 큰 비에 대해 공은 그 응험을 아는가. 예전사람이 이르기를 「겨울비가 도를 손상하면 군대가 저자에서 교전한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같은 때에 어찌 군사가 교전하는 일이 있겠는가’ 하니 박포가 말하기를 ‘정안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날 것이다. 공은 마땅히 선수를 써야 할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공연히 타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하여 이에 먼저 군사를 발한 것이다.”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해 태종 이방원의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정종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은근히 박포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박포가 거사 당일 병을 칭하여 싸움에 나가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사태를 관망하였으며 방간의 군사가 태종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



있고 정종이 자신의 서자를 원자로 책봉하는 등 태종으로서는 위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내린 결론이다. 어쨌든 방간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나흘 뒤에 태종 이방원은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그해 11월, 왕위에 등극하였다. 회안대군은 황해도 토산으로 위배되었다가 10일만에 안산으로 옮겨졌고 다시 익산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태종이 한양으로 불러올릴 것을 논의했으나 신하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태종 2년 11월에 대간들이 회안대군을 제주도로 보내라는 청을 올리자 순천으로 옮기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때 태종 이방원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는 편지가 있다.

“내가 경진년 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형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날로 두터웠소. 근일에 김여생과 중 묘봉등이 거짓으로 ‘백형이 난을 꾸몄다.’고 일컬었으므로 이에 조사해서 반좌울에 처하였고 또 근자에 조사의가 동북면에서 군사를 움직이때 백관들이 대궐에 나와 백형을 제주로 내치라고 청하였는데 내가 제주는 바다를 격하여 너무 멀기 때문에 청을 허락하지 않았소. 백형은 의혹을 품지마오.’

실록에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회안대군에게 여러차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태종의 본심이 무엇이었는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태종이 죽기 1년전 즉 세종 3년인 1421년 회안대군이 흥성에서 병사했다. 회안대군의 신도비에는 은진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 태종이 특사를 보내 회안대군을 상경하라 하였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다 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다. 회안대군은 왕자의 난 이후 왕실족보인 선원록에서 삭제 되어있었다. 그러기에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였을 때 복상을 하지 못하였음을 애통하게 여겨 다시는 한강을 건너가지 않을 것을 맹세해 오던 터였다. 세종대왕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음을 목전에 둔 태종이 굳이 싫다하는 회안대군을 서



울로 불러 올리려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권강화를 위해 사돈과 처남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던 태종이 자신이 죽은 뒤 세종대왕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안대군을 어떻게 하려 했을까? 그 실마리를 전주시 금상동에 있는 회안대군 묘에 얹힌 일화에서 찾을 수 있다.

회안대군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태종은 지관을 보내 장례를 후하게 치를 것을 명하였다. 지관은 태종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신이 택한 방간의 묘지가 왕후 장성이 나올 길지라고 하였다. 이에 놀란 태종은 지관을 다시 내려보내 아흔 아홉곳의 지혈을 끊어 놓았다. 지관이 돌아와 이제 자손 대대로 호미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하자 그제서야 태종이 안심했다고 한다.

善



**세종대왕 어록**

“옥수(獄囚) 중에 부호(扶護)할 사람이 없는 자는 관에서 그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고, 질병에 걸린 자는 관에서 약품을 조제하여 구호하라고 누차 교지(敎旨)를 내렸는데도 옥에서 사망하는 자가 빈번하게 있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들이 마음을 써서 봉행하지 않음이 분명하였다. 이제부터 서울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감사가 이를 거둬 명백히 고시하고 또 고찰하라.”



### ● 양녕대군(讓寧大君)

세종대왕은 4형제중 셋째였는데 큰형이 양녕대군이다.

양녕대군(讓寧大君:1394-1462) 태종의 장남, 이름은 제(祗), 자는 후백(厚伯) 어머니는 원경왕후다.

1402년 3월 8일 祗( )란 이름을 받았고 그해 4월 18일 원자로 책봉되었으며 1404년 9월 6일 왕세자가 되었다. 3년 뒤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세자빈은 숙빈(淑嬪)에 봉해졌다. 양녕대군이 세자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로 두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양녕이 애초부터 임금되기 틀려먹은 방탕아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녕이 처음에는 열심히 군왕의 도리를 닦았으나 아버지의 마음이 셋째인 충녕에게 기우는 것을 보고 거짓으로 미친짓을 했다는 것이다.

왕세자 책봉교서에 보면 「원자 이제는 적장(嫡長)의 지위에 있고 남보다 빼어난 자질이 있다. 그러나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장차 어찌해야 어진이와 친하겠으며 고훈(古訓)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해야 정치를 보필하겠는가? 그러나 종친 태보가 모두 세자를 정할 것을 말하니 내가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달로 6일에 옥책과 금인을 주어 왕세자로 삼았다.」고 되어있다. 태종에게 양녕은 썩 마음에 드는 세자감은 아니었던 듯 싶다. 그래서인지 양녕대군에 관해서는 늘 나쁜 이야기가 먼저 들린다.

‘세자가 글은 안 읽고 글 공부방 마당에 새 덧을 놓고는 새가 날아오기만 기다렸다.’

‘스승인 계림군 이래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산란하다. 꿈속에서라도 이래가 보이면 그날은 반드시 감기가 든다는 말을 했다.’

‘막내동생 성녕대군이 죽었을 때에 궁중에서 활쏘는 놀이를 하였다.’

‘양녕은 권초가 좋은 사냥개를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황상을 보내 강아지를 구해오라고 했다. 집에는 권초의 부인만 있었는데 황상은 명을 어길 수 없어 강아지를 덜렁 안고 나왔다. 이 일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고 당연히 불호령이 떨어졌다.’



또 이에 앞서 동생 충녕군의 매를 빼앗은 일도 들켰다.’

‘곽선의 첩 어리를 간통하고 궁중에 들어왔다.’

양녕에 관한 좋은 이야기도 있다.

‘양녕대군의 천성이 효우(孝友) 하고 영민(英敏)하며 학문에도 정진하였다.’

‘1407년 9월 25일 양녕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그의 의젓한 인품에 감탄하여 황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융숭히 대접하였다.’

‘폐위 당한 양녕이 오히려 좋아하며 충녕이 과연 내게 속았다 면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마침내 1418년 6월 3일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 받을수 없다고 대소신료들이 청하니 태종은 세자를 폐하여 광주(廣州)에 추방하고 충녕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는다고 발표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12년을 더 살았다.

그의 즐거움을 보면 「양녕대군 이제가 즐하니 나이가 69세이다 성품이 어리석고 곧으며 살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활쏘기와 사냥으로 오늘을 살았다. 세종이 우애가 지극하였고 제(提)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여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전함을 얻었다. 광산군 김한로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3남 4녀를 낳았고 측실에서 6남 10녀를 두었다. 추증하여 시호를 강정(剛靖)이라 하였으니 굳세고 과감한 것을 강(剛)이라 하고 너그럽고 즐거워하며 제명대로 편안히 살다죽은 것은 정(靖)이라 한다.」고 되어있다.



**세종대왕 어록**

“오늘 밤에 만약 큰비가 있으면 냇가에 있는 인가가 혹시 유실되거나 침수될지도 모르니, 한성부에서는 미리 알려서 수재를 면하게 하라.”



### ● 효령대군(孝寧大君)

세종대왕의 둘째형이 효령대군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 - 1486)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둘째아들. 이름은 보(補), 초명은 호(祜),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 12세에 효령군 직위를 받았고 해주 정씨 정역(鄭易)의 딸과 혼인 하였다. 17세에 효령대군으로 봉해졌다.

효령대군은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에서 사냥하면서 다섯 번을 쏘아 다섯번을 다 맞추니 위사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세자자리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있다.

「충녕대군에게 세자의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심한 양녕대군이 효령대군의 처소를 찾아 가서 이르기를 ‘너는 내게 병이 있다는 것과 충녕에게 성덕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느냐?’ 하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효령대군이 대답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효령대군이 합장을 하고 벽을 향해 앉아 있는 것을 본 궁녀가 임금에게 보고를 드렸다. 태종이 깜짝놀라 효령에게 까닭을 물으니 ‘꿈에 부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태종은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다. 이후부터 효령대군은 항상 불상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법을 갖추었다.」

효령대군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여섯 임금으로부터 극진한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효령대군이 불교를 숭상하여 승려를 많이 모아놓고 불경을 풀이 하였는데 그때마다 세조 임금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궁중에서 베푼 잔치가 무르익어 한밤중이 될 때면 세조임금은 으레 초를 잡고 효령대군을 배웅하곤 하였다. 69세 때는 세조임금의 배려로 원각사 조성도감 도제조가 되기도 하였다.

하루는 효령대군이 일찍이 절에 예불하러 갔는데 양녕대군이 개를 끌고 팔에



는 매를 받치고는 첩을 데리고 절마당에서 술과 고기를 즐기니 효령대군이 언짢게 여겨 “형님은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니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 되고 죽어서는 보살의 형이 될 것이니 내 어찌 지옥에 떨어 지겠는가” 하였다 한다.

효령대군은 예성부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6남 1녀, 측실에서 1남 1녀를 두었다.

효령대군 즐기에 보면

「아들 7인이 있어 가장 젊은 사람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슬하에서 춤을 추니 진실로 한시대의盛事(盛事)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효령대군은 91세의 천수를 누리고 죽었는데 손자는 33인 증손자는 109인으로 후손이 번창하였다. 시호를 정효(靖孝)라 하였다. 너그럽게 즐기며 고종명한 것을 정(靖)이라하고 지혜롭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은 효(孝)라 한다.



**세종대왕 어록**

슬프도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수족이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니, 진실로 한번 실수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기어 잠시라도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법을 맡은 내외 관리들은, 옛 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 자기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고, 선입(先入)된 말에 위주함이 없으며, 부화뇌동(附和雷同)으로 따르는 것을 본받지 말고, 구차하게 인순(因循)하지 말며,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옥사(獄辭)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되풀이해 찾아서, 죽는 자로 하여금 구천(九泉)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여 영어(囹圄)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퍼져서 비오고 별나는 것이 시기에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 형조에서는 이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서 내외에 효유하라.”



### ● 성녕대군 (誠寧大君)

세종대왕에게 동복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성녕대군이다.

성녕대군(誠寧大君 1405 - 1418)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넷째아들. 이름은 종(種), 시호는 소경(昭頃). 10세에 성녕대군으로 책봉되었으며 그해 12월 창녕 성씨 좌찬성 회정공 억(抑)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다. 그러나 어린나이에 창진으로 죽었다. 슬하에 혈육이 없어 세종대왕의 3남 안평대군을 계자로 삼아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으나 안평대군이 1457년 계유정난에 연루되어 자식과 함께 죽자 제사가 끊겼다. 성녕대군의 부인 창녕 성씨 또한 그해 경주로 귀양가 폐출되었다가 친가에서 별세 하였으므로 세조임금은 1461년 효령대군의 6남 원천군(原川君)의(宜)로 하여금 대를 이어 제사를 봉행하게 하였다.

성녕대군이 죽자 태종은 2일간 수라를 물리치고 3일간 정사를 보지 않았으며 30일 동안 소찬을 하는등 몹시 상심하였다. 성녕대군을 치료했던 의원들을 의금부에 가두고는 “죽고 사는 것이 명(命)이 있다고 하나 처음에는 풍증(風證)이라고 하여 그 상극되는 약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보통있는 창진(瘡疹)이니 증세에 순응한다 하여 능히 구할 수 있는 처방을 쓰지 않았다. 거의 열흘을 고생하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내가 몹시 슬퍼하여 능히 스스로 마음을 너그러이 하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였다.

이에 앞서 성녕대군을 위한 수륙제가 진관사에서 베풀어졌는데 변계량(邊계량)이 지은 조문을 교서로 발표하였다. 그 조문을 태종이 직접 읽다가 반쯤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어서 끝까지 읽지 못했다고 한다.

「... 생각하건대 네가 태어난 것은 을유년이었으니 이제 14세인데 일찍이 하루라도 나의 좌우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수라를 들고자 하면 네가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내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자하면 네가 반드시 수행하여 함께 하였는데 이제는 그만이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겠느냐? 아아! 슬프다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여 아무런 흠이 있지 않았으며 총명하고 온아하고 효제함이 그 행동이었고



글을 읽어 때때로 익히고 활쏘기를 배워서 여러 번 과녁을 맞추었었다. 장가를 들도록 하였고 또 대군으로 봉하였으니 장차 어른이 되어 나의 노쇠함을 위로하리라 여겼는데 아아! 이제 그만이니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희디 흰 너의 얼굴이 항상 눈에 선하고 낭랑한 너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아아! 슬프다. 나와 중궁이 너의 죽음을 통곡하나 또한 이제 그만이다. 나는 너의 아버가 되지만 염(斂)에서 의금(衣衿)을 볼 수 없었고 빈(殯)에서 그 관을 어루만져 보지 못하고 무덤에서도 또 그 광(壙)에 임석할 수도 없으니 천승의 군주가 도리어 필부의 자식사랑함과 같지 못하도다 아아! 말에는 다함이 있으나 정에는 끝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세종대왕 어록**

“죄를 범하여 옥(獄)에 있는 홀아비[鰥夫]와 과부 및 형벌을 받은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만약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며,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로 항상 보살펴 기르게 하며,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한다면, 서울 안에서는 헌사(憲司), 지방에서는 감사가 규찰해 다스리게 하라.”



●문종(文宗)

문종(文宗 1414-1452)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맏아들이며 비는 화산부원군 권전(權專)의 딸인 현덕왕후이다. 1421년 왕세자에 책봉된 문종은 어릴때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측우기 제작에 직접 참여했을 정도로 천문, 역법, 산술에 뛰어났으며 안평대군과 쌍벽을 이룰만큼 서예에도 능했다. 또한 성격이 유순하고 자상하여 누구에게나 호평을 받았으며 거동이 침착하고 판단이 신중하여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없었다.

세자 시절에 굴을 나무소반에 담아서 집현전에 보낸일이 있었다. 집현전의 학사들이 굴을 다먹자 문종은 즉석에서 시를 짓고 반초서로 소반위에 썼다. 이를 본 학사들이 그 시를 다투어 베끼고자 하였는데 대궐에서 빨리 소반을 돌려 보내라는 전갈이 있자 다 베껴 쓰지 못한 학사들이 소반을 붙들고 차마 놓지를 못했다고 한다.

향나무 향기는 코에만 향기롭고  
기름진 고기는 입에서만 달구나  
가장 사랑스런 동정의 굴은  
코에 향기롭고 입에도 달구나

효심이 지극했던 문종의 가정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문종은 1427년 18세의 나이로 결혼을 했다. 세자빈은 도총제 김오문의 딸인 휘빈 김씨였으나 문종이 가까이 하지 않자 남편의 사랑을 돌리기위해 은밀한 방법을 쓰다 쫓겨났다. 1430년 두 번째 세자빈이 책봉되었는데 그가 종부시소윤 봉여의 딸로 순빈 봉씨였다. 순빈도 문종의 사랑을 받지못해 술마시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궁녀와 추문을 일으켜 폐위되었다. 1436년 정혜공주를 낳은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정했다. 권씨는 1441년 단종을 낳은 다음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나 문종이 즉위하던 해에 왕비로 추책되었다. 몸이 허약했던 문종을 보고 신하들이 낱을 걸러 정사를 보고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기를 청하였으나 “군주가 향락을 즐긴다면 비록 천년을 살더라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1년이라도 만족할 것이다. 반드시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안일해서는 안된다.”며 거절하였다.

문종의 시대는 세종대왕의 후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종도 아버지를 본받아 백성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 학교의 교관이 적당한 사람인지를 예조와 감사는 더욱 고찰하라
- 형옥의 관해서는 더욱 삼가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 감사와 수령은 향리를 엄하게 경계하여 민생의 평안함을 도모하라
- 국가의 용도에 긴요하지 않은 공물을 제한하라
- 백성들의 묵은 부채를 경감하라
- 알려지지 않은 학자나 효행이 지극한 이들을 찾아 상을 주라

즉위년 12월에 위와같이 백성들을 위한 조목을 발표하니 신민으로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관대한 정책을 기본 통치 방향으로 설정한 문종은 <동국병감> <고려사절요> <대학연의주석>등을 편찬케 했으며 3군 12사를 5사로 줄이고 진법을 편찬하여 군제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의욕적이던 문종은 건강악화로 인해 재위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일기로 승하하였다.

묘지문에 이르기를

「성품이 관홍하고 간중하며 명의하고 인서하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天性)에서 나왔으며 웃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대우함이 한결같이 지성으로써 하였으며 성색(聲色)은 가까이 하지 아니 했습니다. 임금의 학문은 고명하여 고금의 사실을 환하게 관찰하시고 더욱 성리(性理)의 학문에 연구가 깊어서 때때로 사신들과 더불어 역대 치란의 기틀과 선유 이동의 학설을 논하면서 한결같이 정리에 귀착



시켜 말은 간요하나 뜻은 참달하였으며 천문, 역산, 성운(聲韻)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정묘를 다 연구했습니다. 또 초서와 예서를 잘쓰고 문사에 전아했지마는 또한 일찍이 마음을 두지는 아니했습니다. 조회에 임해서는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니 그를 바라보면 엄연했지마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말할 적에는 태도가 온화하여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 했으므로 말하는 사람이 혹시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었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기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자리에 있는 지 30년에 선왕을 보좌하여 성사한 것이 실제로 많았으며 여러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기까지 하여 공덕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습니다. 즉위한 초기에 맨 먼저 언로를 넓히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며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며 문치를 숭상하고 무비를 중시하며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절의를 장려하며 수졸을 줄이고 전부(田賦)를 경감하며 급하지 않은 역사를 정지하고 쓸데 없는 비용을 줄이며 포흠을 감면하고 무고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바야흐로 원대한 계획을 넓혀서 신민들이 지치를 우려러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통함을 감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 어록**

“사람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승평(昇平)한 세상에서 어찌하여 성을 쌓기에 급급히 구는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때일수록 늘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함은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니, 어찌 도적이 침범하여 들어온 후에야 성을 쌓는다는 이치가 있겠느냐. 성을 쌓는다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것이다.



● 단종(端宗)

단종(端宗 1441-1457) 이름은 홍위(弘暉). 아버지는 문종,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이며 비는 정순왕후 송씨이다. 1441년 7월 23일 세종대왕의 원손인 단종이 태어났다. 이에 세종대왕은 “세자의 연령이 이미 장년이 되었는데도 후사가 없어서 내가 매우 염려하였다. 이제 적손이 생겼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기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없다” 고 하면서 대사면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행을 예고하듯이 사면령의 교지를 다 읽기 도 전에 전상에 있던 큰 촛대가 갑자기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왕세자빈 권씨가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자빈의 부음을 들은 세종대왕과 소현왕후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수라를 폐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세종대왕의 손자사랑은 도에 지나칠 정도였는데 “원손이라고 이름하는 자는 모두 개명하도록 하라” 는 전지를 내렸고 원손의 건강을 위해 아주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가 하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손자들 등에 업고 궁정을 거닐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단종은 자질이 뛰어나고 총명하였다. 1452년 문종이 종친과 더불어 회례연을 베풀때에 세자인 단종에게 궁료를 거느리고 근정전 앞에서 의식을 연습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고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 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경복궁 천추전에서 붕어하였다. 문종은 승하하기 전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이양, 민신, 이사철, 윤형, 이승손, 강맹경, 신석조 등에게 “유명을 받들어 어린 임금을 보필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 명을 받은 이들이 단종 보위하는 이른바 고명대신(顧命大臣)이다. 이렇게 해서 문종의 하나뿐인 아들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때가 1452년 5월 18일 이었다. 단종이 즉위하긴 했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모든 조처는 의정부와 육조가 도맡아하고 임금은 형식적 결재를 하는데 그쳤다. 인사 문제도 인사대상자의 이름에 황색점을 찍어올리면 임금은 단지 그 점위에 낙점하는 황표정사제도가 활용되었다. 이처럼 신권이 왕권을 위협하게 되자 왕족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있었



다. 차츰 정계의 판도는 수양대군 지지세력과 안평대군 지지세력으로 양분되어 갔는데 이들의 갈등이 계유정난을 불러왔고 이후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했다.

1456년 6월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임금자리를 내주고 수감궁으로 옮겨갔다. 1년 뒤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왕 복위사건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1457년 6월에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 되었다.

단종은 1457년 6월 22일 경복궁을 떠나 6일후인 28일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 도착 했다. 그 노정은 다음과 같다.

경복궁 - 살곶이 다리- 화양정 - 광나루 - 광주 - 양평 - 여주 이포 - 여주 상구리 (어수정) - 원주 부론(단정지) - 신림 - 황둔 - 솔치고개 - 주천(어음정) - 신흥 - 군등치 - 옷래실 - 배일치 - 점동 - 갈골 - 옥녀봉 - 선돌 - 청령포

영월에 도착한 단종의 심사를 말해주는 시가 남아있다.

달밝은 밤 자규새 울면  
시름 못잊어 다락에 기대었네  
네 울음 슬피 내듣기 괴롭구나  
네 소리없으면 내시름 없을 것을  
이세상 괴로운 이에게 말을 보내 권하노니  
춘삼월 자규루에는 삼가 부디 오르지 마소

이해 9월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계획이 발각되어 단종은 다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마침내 10월 24일 사사되었다. <연려실기술>에는 단종이 목을 매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羅將)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한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通引) 하나가 항상 노산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낀 노끈을 이어서 앉은 뒤의 창구멍으로 그 끈을 잡아 당겼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통인이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죽사하였다.

시녀와 종인들이 다투어 고을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죽어서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 이날에 뇌우가 크게 일어 지척에서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고 강렬한 바람이 나무를 뽑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짙 끼어 밤이 지나도록 걷히지 않았다.”

1698년 묘호를 단종으로 책봉하였고 능호는 장릉이라 하였다. 1454년 판돈녕부사 송현수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었는데 단종과 함께 강봉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정순왕후로 추복되었고 능호는 사릉이라 하였다.

**세종대왕 어록**



“사람의 지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天性)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職分)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외방(外方)의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에, 숨이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외사(外舍)로 내어 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장사지내는 날에는 향도(香徒)들을 많이 모아서 술을 준비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니, 어찌 유속(遺俗)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아아, 사람은 진실로 각기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天性)이 있으니,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요마는, 다만 오래도록 습속(習俗)에 젖어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지금부터는 유사(攸司)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교조(教條)를 명시(明示)하여, 가가(家家)로 하여금 구습(舊習)의 오점(汚點)을 환히 알도록 하여 자신(自新)해서 인효(仁孝)의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혹시 고치지 않는다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다.”



## ● 세조(世祖)

세조(世祖 1417-1468) 이름은 유, 자는 수지(粹之).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둘째 아들. 비는 정희왕후 윤씨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하여 학문을 잘하였으며 무예도 뛰어났다. 세종대왕이 평강에서 강무를 할 때에 세조는 13살이었는데 물이꾼들이 몰아오는 사슴을 향해 7발을 쏘아 모두 명중시켜 주위를 놀라게 했다. 1440년에 세종대왕이 규표(圭表)를 바로잡기 위해 세조와 안평대군 및 다른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각산 보현봉에 올라 해지는 것은 관측하게 하였다. 돌길 위험하고 아득하게 벼랑이 내려다 보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지럽고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세조만이 나는 듯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모두 탄복하였다. 세조가 대군 시절에 늘 소매 넓은 옷을 입었으므로 궁중사람들이 모두 웃으니 세종대왕이 이르기를

“너와 같은 용력있는 사람은 의복이 이만큼이나 넓고 커야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처음에 진양대군으로 봉해졌다가 1445년에 수양대군으로 고쳐 봉해졌다. 대군으로 있을 때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궁궐안에 불당을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김수온과 함께 불경의 번역과 향악의 악보를 정리하였다. 1452년 관습도감 도제도가 되었다. 이해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면서 신권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해지게 되었다. 세조는 이런 원인이 어린 단종과 고명대신들 그리고 안평대군의 모호한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단호한 응징만이 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회를 엿보던 끝에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1455년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중심 정책을 펼쳤다. 먼저 양성지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지와 지도를 찬수하게 하였고 이듬해 사육신이 주동이 된 단종복위계획 관련자를 색출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치법과 정보를 편집하여 후왕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국조보감>을 편수하고 전대의 역사를 재조명한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였으며 최항 등에게 명하여 그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경국



대전)을 편찬하게 하였다. 세조는 군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를 제조하게 하고 각읍과 영의 둔전을 정비하고 각도에 군적사를 파견하여 장정의 군적누락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태조 때 37만명 세종 때 70만명이던 군정이 지방군제를 진관체제로 확정하자 80~1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충찬위, 만강대, 호익위, 파적위, 장용대 등의 군대를 새로 편성하였다. 이처럼 군제개혁과 군비확충을 통한 군사력의 강화는 곧 바로 국방의 안정으로 나타났다. 즉 1460년 모련위의 여진족 토벌과 1467년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의 여진족 이만주 부자를 목베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정에도 힘을 기울여 공물대납을 금하고 양잠에 관한 책을 번역하고 윤리교과서 격인 <오륜록>을 찬수하였다. 문화사업으로는 <역학계몽도해>, <주역구결>, <대명률강해>, <금강경언해> 및 대장경의 인쇄와 선대 임금의 어제시문 발간 등에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세조는 왕권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상명하달(上命下達)식 정치 운영으로 나라 전체의 경색을 초래하여 사회도처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이 문종에게 말하기를 “국가의 안위가 네 한몸에 달려있다.”하고 세조에게 “국가에 재난이 많을 때는 너희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 너는 보통 제자(諸子)의 예가 아니고 나라의 안위에 관계된다.”하니 세조가 이 말에 감격하여 울었다고 한다.

이 아버지를 늘 못잊어 해서인지 1468년 5월 12일 죽음 몇 달 앞둔 세조가 아버지 생각에 다시 눈물흘리는 기사가 실록에 적혀 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종친·재신·제장과 담론하며 각각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영순군 이부에게 명하여 8기(妓)에게 언문가사를 주어 부르도록 하니 곧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었다. 임금이 세종을 사모하여 묵연히 호조판서 노사신을 불러 더불어 말하고 한탄하다가 눈물을 떨구니 노사신도 또한 부복하여 눈물을 흘리므로 죄우가 모두 안색이 변하였다.」

세조는 둘째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날 승하하였다. 묘호는 세조, 능호는 광릉이다.



### ●안평대군(安平大君)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그러므로 패자가 좋게 그려질 리가 없다.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긴 궁예의 기록이 그러하듯 그로부터 530여년 뒤에 벌어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갈등에서도 패자인 안평대군에 관한 기록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안평대군은 1453년(단종 1) 9월 죽은 아내를 장사지내기 위해 여주를 찾았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 - 1453)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解堂), 낭간거사(琅居士), 매죽헌(梅竹軒).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다. 세종대왕 즉위년(1418) 9월 19일에 태어나 1428년 대군에 봉해졌고 이듬해 좌대부언정연(鄭淵)의 딸과 혼인했다. 1430년 수양, 임영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함경도에 6진이 설치되자 1438년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아인을 토벌하였으며 황보인, 김종서등과 제휴하여 수양대군과 맞섰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 글씨, 그림 모두를 잘해 삼절(三絶)이라 불렸으며 식견과 도량이 넓어 많은 이들이 교유하고자 모여들었다. 그런데 안평대군의 평가는 그가 죽은 뒤인 세조때에 이르러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에 쓰여진 <용재총화>에 보면 「안평대군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을 잘하였으며 서법이 매우 뛰어나 천하제일이었다. 또 그림그리기와 거문고 타는 재주도 훌륭하였다. 성격이 경솔하고 허황하여 옛것을 좋아하고 좋은 경치를 즐겨 북문밖에다 무이정사(武夷精舍; 武夷精舍의 오기인 듯)를 지었으며 또 남호가 가까이에도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많은 책을 모아두고 문사를 불러모아 십이경시(十二景詩)를 지었다. 또 사십팔영을 지어 혹은 등불밑에서 이야기하고 혹은 달밤에 배를 띄웠으며 혹은 연구(聯句)를 짓고 혹은 바둑 장기를 두고 풍류가 끊이지 않았다. 항상 술마시고 놀았으니 당시의 이름있는 선비로서 교분을 맺지않은 이가 없었고 무퇴하고 잡스러운 일을 하는 이도 많이 모여들었다. 바둑판과 바둑



알은 모두 옥으로 만들었고 또 금물을 글자에 입히고 사람에게 명주와 생김을 짜게하여 붓가는대로 글씨를 쓰다가 초서와 행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내어주는 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평대군이 아내 정씨를 여주에 장사지낼 때의 기록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조금 심해진다. 「용(琮;안평대군)이 여흥 공관에 있으면서 장사는 근심하지 않고 이현로, 이의산, 박하등 여러 소인배와 더불어 혹은 활을 쏘기도 하고 혹은 바둑을 두 기고 하며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잔치하며 혹은 기생을 끌고 방주를 강에 띄워 오르내리면서 뱃놀이하고 희롱하여 법도가 없었다. 이미 국상을 당하고 또 집에 상사가 있는데 함부로 놀기를 예사로 하며 … 」 - 단종 1년 9월 9일

같은 해 10월 25일의 단종실록에서는 안평대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용(琮)이 성녕대군의 후사가 되어 성녕의 부인 성씨를 간통하였고 또 세종때에 궁의 담을 넘어 출입하여 두어 계집종을 간음하였고, 세종 2년 안에 여러 소인들과 더불어 미복차림으로 마을에 나가 간음하여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은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고 상피(相避)도 가리지 않아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1447년 4월 안평대군의 꿈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에 신숙주, 이개, 정인지, 박연, 김종서, 박팽년, 이현로, 서거정, 성삼문, 김수은 등 21명의 찬문이 실려있는데 이들의 면면에서 안평대군의 교류범위가 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사육신중의 한사람인 성삼문과는 <매죽헌>이란 호를 같이 사용할 정도로 의기가 투합했던 것으로 보아 안평대군의 인품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53년 계유정난때 아들과 간통했다는 치욕적인 누명을 쓴 성녕대군 부인은 아들로 삼았던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게 죽자 분한 마음에 굶어죽고 말았다. 비록 양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생모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은 1747년(영조 23) 영의정 김재로의 상소로 복관되었다.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세종대왕 어록**

“다시 묻지 말라. 무지(無知)한 백성이 나를 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차마 어찌 죄를 주겠느냐. 속히 놓아 보내라.”



### ● 정소(貞昭)공주와 정의(貞懿) 공주

세종대왕은 4명의 딸을 두었다. 그중 소헌 왕후 심씨에게서 2명의 공주를 낳았는데 정소(貞昭)와 정의(貞懿)공주다. 세종 6년 2월 25일 13세의 나이로 큰딸 정소공주가 죽었다. 세종대왕은 3일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육선(肉膳)도 철수하였으며 예장, 조묘 두 도감을 설치하여 상례를 주관하게 하였다. 내관 최득룡을 시켜 공주에게 사제하여 제문을 짓기를

“왕은 말하노라. 수요(壽夭)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비록 옮길 수 없는 것이나, 부녀간의 지극한 정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구나 슬프다. 너의 일생은 연약한 여식으로 자라났다. 자태가 단정하고 밝으며 품성은 곧고 아름다우며 손을 이끌고 다닐 때부터 효제(孝悌)함이 너의 행실이였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성인과 같았다. 자애의정이 솔리어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네가 결혼하여 함께 편히 영화를 누리려 하였더니 어찌 어린 나이로 하찮은 병에 걸려 좀 더 살지 못하고 드디어 대고(大故)를 당할 줄 뜻하였으랴. 조섭을 잘못 하였던가, 기도함이 귀하였던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성음과 용모는 완연하건만 정상(精爽)한 넋은 어디로 갔는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참으려 하니 가슴을 적신다. 빈실(殯室)에 치제(致祭)하니 넋이 알음이 있거든 내 이 말을 알리라.” 하였다.

이 딸에 대한 세종대왕의 애정은 각별하였다. 세종 8년 4월 12일 정소공주의 담제를 지내면서 그 제문에 이르기를 “장수와 단명에 기수(氣數)가 있으니 예로부터 피하기 어렵지만 부녀간의 정은 언제나 변할 리가 없는 것이다. 대개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마음은 천성에서 나오는데 어찌 존망을 가지고서 다름이 있다 하겠는가. 아아, 네가 죽은 것이 갑진년이었는데 세월이 여러번 바뀌매 느끼어 생각함이 더욱 더하다. 이제 담제일이 닥쳐오매 내 마음의 슬픔은 배나 절실하며 너의 그 예쁜 모습을 생각하매 영원히 유명이 가로막혔도다. 이에 중관(中官)을



명하여 사실을 진술하고 전(奠)을 드리게 하노라. 아아, 제도는 비록 한정이 있지만 정에는 한정이 없도다. 영혼이여, 어둡지 않거든 와서 흠향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둘째 딸이 정의 공주다.

정의 공주는 세종 10년 2월 13일 죽성군 안맹담(安孟聃)에게 시집갔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역산(曆算)을 해독하여서 대왕이 사랑하였다.

공주의 시집인 죽산 안씨 대동보를 보면 훈민정음 창제와 공주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도움을 받고 의견을 나눈 상대는 학자들이 아니라 왕자와 공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죽보의 내용은 「세종대왕이 나랏말이 문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변음과 토착을 다 연구하지 못하여 여러 대군들로 하여금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냈는데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대왕이 크게 칭상하고 노비 수백구를 하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정의 공주는 성종 8년 2월 11일에 죽었다. 공주와 결혼하여 연창위가 된 안맹담은 「부귀롭게 성장하여 학술은 없으며 불법을 몹시 좋아하여 밥먹이는 종이 항상 10여명이나 되었다. 중의 옷을 입고 중의 아랫자리에 앉아서 불경을 읽고는 밥을 먹으며 살생을 싫어하고 양잠도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세종대왕 어록**

“봄 사냥 때에는 3품 이하의 시위 군사(侍?軍士)는 친히 우구(雨具)를 가지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을 세웠는데도 그대로 시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반드시 노자(奴子)로 하여금 가지고 있게 하니, 비가 오는 때에 미처 착용(着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령(軍令)이 또 엄중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친히 스스로 말 위에서 갖고 다니게 하라. 만약 명령에 위반하는 자가 혹 있거든 검찰(檢察)하여 처벌하게 하라.”



### ●세종대왕의 큰며느리들

세종대왕의 큰아들은 문종이다. 문종이 왕세자 시절에 3번씩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도 놀라운 일이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심정은 어떠했을 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은 총제 김오문의 딸인 휘빈 김씨였다. 그녀는 문종의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 압승(壓勝)의 술법을 쓰다 발각되었다. 휘빈 김씨가 시녀 호초에게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물으니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쪽 여자는 배척을 받는다.”하였다. 이에 휘빈 김씨는 자기가 시기하는 효동과 덕금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가족신을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베내어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이나 그 술법을 쓰고자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또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정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도 전해들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휘빈을 불러 정황을 물으니 사실과 같으므로 세종대왕은 마침내 “이러한 부도덕한 자가 만드는 제사는 조종의 신령이 흠향하지 않을 것이며 왕궁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세종 11년 7월 20일 휘빈 김씨를 폐하고 서인으로 삼았다.

두 번째 큰며느리가 종부시소윤 봉여의 딸인 순빈 봉씨다. 순빈은 시기와 질투함이 휘빈 김씨보다 더했다. 권승휘(단종의 생모)가 세자의 아이를 잉태하자 분개하고 원망하여 소리내어 울었는데 울음소리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렸다. 세종대왕이 이 며느리를 달래는 한편으로 문종에게 봉씨를 가까이 하도록 타일렀다. 이를 기회로 봉씨는 “임신을 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가 한달 뒤에 “낙태했다.”고 거짓 말을 해댔다. 문종의 사랑이 멀어지자 시녀들의 변소에 가서 벽 틈으로 외간 사람들을 엿보는가 하면 궁궐 여종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봉씨의 실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상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했으며 여종 소쌍을 침실로 불러들여 “옷을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하여 남녀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세종 18년 10월 26일 순빈



봉씨를 폐출시켰다.

세 번째 며느리를 골라야 할 세종대왕으로서는 걱정이 태산같았다. 서울과 지방의 명가의 딸 몇사람을 보았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 2달 뒤 세종대왕은 아들 문종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세자공의 여인들 중에서 세자빈을 정하기로 마음 먹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세자빈을 세우는 일은 성상의 결단에 있사오니 신등이 감히 정할 바는 아닙니다.” 하니 권양원과 홍승휘 두 여인을 놓고는 “세자는 흥씨를 낳게 여기는 듯 하나 나는 권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관한성부사 권전의 딸인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았다. 권씨는 이때 이미 문종의 딸인 경혜공주를 낳았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1441년 단종을 낳았으나 이튿날 산후병으로 죽고 말았다. 세종대왕은 미안한 마음으로 우부승 지에게 “빈에게는 장성한 자식이 없으니 진실로 불쌍하다. 경이 마땅히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살펴서 곡진하게 포치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 하고는 왕세자빈의 복이 끝났어도 고기를 들지 않았다. 또한 빈의 아버지 권전을 불러 위로하며 말하기를 “대체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사랑을 받기란 어려운 일인데 빈은 이미 나와 중궁에게 사랑을 받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원손의 탄생이 족히 내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다. 명의 길고 짧은 것은 수가 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경은 나를 위하여 슬픔을 억제하라.” 하였다.

세자빈 권씨는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 현덕왕후(顯德王后)로 추봉되었다.



**세종대왕 어록**

“착한 자를 선대(善待)하는 것은 자손에게 미치게 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는 일은 그 자신에 그치는 것은 옛날의 후(厚)한 뜻이었다. 지금 장리(臟吏)의 자손을 억제하고 등용하지 않는 일은 비록 악인을 징계하고자 한 처사이나 옛날의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재덕(才德)이 있는 자는 통례(通例)에 따라 서용하라.”



● 황희(黃喜)

조선왕조 5백년을 통틀어 가장 어질고 슬기로왔던 만인의 재상하면 누구나 황희 정승을 떠올릴 것이다.

황희(黃喜; 1363 - 1452)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壽老) 였는데 나중에 희(喜)로 고쳤다.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이다. 판강릉대도호부사 군서(君瑞)의 아들이며 개성 가조리에서 출생하였다. 1383년 사마시, 1385년 진사시, 1389년 문과에 급제하여 1390년(공양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고려 유신들이 새 왕조를 거부하고 은거해 살던 두문동에 함께 있다가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마지못해 벼슬길에 나왔다. 이후 세종대왕까지 4대에 걸쳐 임금을 모시면서 어질고 현명한 신하로서 조선초기의 국가기반을 닦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태종으로부터 “경은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서 대우하였고 하루, 이틀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 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죄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세종대왕 때는 18년간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황희가 워낙 유명했기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황희의 진면목을 살펴보자.

“ 개성 송악산에 용암폭포가 있어서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는데 황희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된 날로부터 갑자기 물길의 뚝 끊어져 열달동안 흐르지 않다가 황희가 태어나자 전과같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 젊었을 때 파주 적성에서 개성으로 가던 중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노인을 만났다. 황희가 큰 소리로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일손을 멈추고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누런 소가 잘하고 검은 소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말했다. 황희가 ‘왜 귀엣말로 하시느냐?’ 고 묻자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람 말의 좋고 나쁜 것을 모두 알아 듣는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황희는 매사에 더욱 과묵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남의 시비를



함부로 입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는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와서 호소하였다. ‘저 계집종과 다투었는데 이와같이 간악합니다.’ 하고 아뢰니 황희는 ‘네 말이 맞다.’ 하였다. 조금 뒤에 다른 여종이 와서 똑같이 호소하자 ‘네 말도 맞다.’ 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황희의 조카가 ‘아저씨의 흐리멍텅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말했으니 이 아이가 옳습니다.’ 하니 ‘네 말도 맞다.’ 고 할 뿐이었다.”

“황희의 셋째 아들 수신(守身)이 기생과 사귀면서 관계를 끊지 못하자 황희는 관복을 입고 문 밖까지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아들이 황공하여 땅에 엎드려 그 까닭을 묻자 ‘나는 너를 자식을 대하는데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는 나를 아비로 여기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손님으로 알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다.’ 하였다. 수신은 이로부터 기생을 만나지 않았다.”

“평안도 순문사로 있었을 때 이장손이란 사람이 황희를 모욕하고 글을 올려 비난하므로 태종이 화해시킨 적이 있었다. 뒤에 황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장손이 외방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황희는 오히려 이장손을 내적인 헌납으로 천거하였고 곧 다시 천거하여 사인으로 삼았다.”

이렇듯 너그러운 황희가 김종서에게만은 그렇지 않았다.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박절할 정도로 꾸짖고 김종서 대신 그 하인의 불기를 치게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였다. 좌의정 맹사성이 “김종서는 당대의 명신인데 어찌 그렇게도 허물을 잡으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황희가 “김종서를 아끼기 때문이오, 훗날 재상이 될 인재인데 성미가 과격하고 기운이 지나치단 말이오. 신중히 처결해야 할 일도 가뻐이 넘겨서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소. 미리 그 기운을 꺾어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지 결코 그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김종서를 우의정으로 추천한 것도 황희였다.

황희는 1452년 2월 90세의 나이로 죽었다. 시호는 익성(翼成). 사려가 깊은 것이 익(翼)이고 재상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成)이다.



● 맹사성(孟思誠)

소를 즐겨타고 피리를 잘 불었으며 비가 새는 초가살이를 기쁨으로 여겼던 세종시대의 청백리가 맹사성이다.

맹사성(孟思誠 1360 - 1438)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 고려 수문전제학 희도(希道)의 아들이며 최영의 손녀사위이다. 1386년 문과 시험에 을과 1등으로 합격하여 춘추관 검열로 관직에 나갔다. 1419년 이조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고 1427년 우의정이 되었다.

맹사성이 5살때의 일이다. 최영장군이 낮잠을 즐기다가 배밭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놀라 깨어보니 아이들이 배 밭에서 배를 따먹고 있었다. 최영이 소리높여 야단을 치자 다들 도망갔는데 유독 한 아이만이 먹다남은 배를 손에 들고 정중히 절하면서 사죄를 하였다. 이 아이가 맹사성이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최영은 그를 손녀 사위로 삼았다.

맹사성은 효성이 지극하였다. 열살 때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일주일 동안 미음도 먹지않았고 장례를 치른 뒤에 3년동안 산소를 지키며 죽을 먹었다. 어머니 묘 옆에 잣나무가 있었는데 산돼지가 내려와 잣나무에 몸을 비비곤하여 말라죽게 되었다. 맹사성이 통곡하니 그 이튿날 산돼지가 그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그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여 정려문(旌闕門)이 세워졌다. 맹사성의 아버지도 효자였는데 1431년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이 왕명으로 저술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이와같은 맹사성부자의 효성에 관한 일화가 실려있다. 맹사성의 본가가 온양에 있어서 그곳에 내려갈 때면 관청에 들르지 않고 시종 한명만 거느리고 간편한 차림으로 가곤 하였다. 한번은 소를 타고 온양에 내려갔는데 양성(陽城), 진위(振威)의 두 사또가 맹사성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호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무렵 소를 탄 노인이 두 사또의 앞을 지나가면서 본체만체 하였다. 사또들이 화가 나서 하인을 보내 힐책하였다. 하인이 돌아와 이르기를 “온양의 맹고불(孟古佛)이라 하더이다.” 하니 두 사또가 깜짝놀라 도망가다 허리에 찬 관인이 풀어져 연못에 빠지는 줄도 몰랐다. 그후 이



연못을 인침연(印沈淵)이라 했다.

맹사성이 온양에서 올라오던 길이었다. 용인에서 비를 만나 주막에 들었다가 녹사시험을 보러 서울가는 영남 사람을 만났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두사람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묻는 말은 ‘공’자로 끝내고 대답하는 말은 ‘당’으로 끝내는 ‘공당문답(公堂問答)’을 시작했다.

신분을 숨긴 맹사성이 먼저 시작했다.

‘무슨일로 서울에 가는공?’ ‘녹사 시험에 응시하러 간당’ 맹사성이 웃으며 ‘내가 공이 뽐히도록 해줄 공?’ 하니 ‘하하 그렇게 못한 당’ 뒷날 시험에 합격된 영남 선비가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 맹사성이 그에게 ‘그래, 어떤 공?’ 하니 그제서야 맹사성이 좌의정임을 알아본 선비는 엎드려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죽어 지이당’

어리둥절하고 있던 재신(宰臣)들에게 맹사성이 지난 이야기를 해주자 좌중은 배를 잡고 웃었다. 맹사성의 추천으로 그 선비는 여러 고을에서 유능한 아전으로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하루는 병조판서 황상(黃象)이 맹사성의 집에 찾아왔다. 그때 소나기가 쏟아지자 집안 곳곳에 물이 새어 의관을 모두 적시게 되었다. 정승이 된 후에도 맹사성의 집은 늘 가난하고 협소했기 때문이었다. 황상이 집으로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정승의 집이 그렇게 초라한데 내가 어찌 행랑채를 짓겠는가?” 하고는 준비해 두었던 집 지을 재목을 모두 치우라 하였다고 한다.

맹사성이 젊었을 때 제관으로서 소격정에 치재를 하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꿈속에서 하인이 “칠성이 들어오신다” 전하였다. 잠에서 깬 맹사성이 뜰에 내려가 공손히 맞으니 여섯 대부는 이미 들어 왔고 일곱 번째는 독곡 성석린이었다. 언젠가 맹사성이 죄를 얻어 저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좌정승 성석린이 병중임에도 지극히 임금께 간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맹사성은 이후 평생토록 성석린을 부모와 같이 섬기었으며 성석린이 죽은 뒤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당을 지날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렸다.

맹사성은 79세에 죽었는데 실록에 「사람됨이 조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예우하는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벼슬하는 선비로서 비록 계급이 얇은 자라도 뵈고자 하면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에도 역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 앉은 후에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세종대왕 어록**

“대개 들으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게 되면, 하늘의 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수재나 한제가 드는 것은 모두가 사람이 불려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으니, 내가 박한 덕으로 큰 기업(基業)을 계승하여 지키며, 신민의 위에 얹혀 있으면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으르지 아니하여 응성하고 태평하게 다스려지기될 도모하였으나, 나의 밝음이 사리를 잘 깨닫지 못하며 은택이 능히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제가 서로 잇달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는데, 이제 한참 농사할 달을 당하여 다시 심한 가뭄을 입게 되니, 고요히 그 그릇된 근원을 생각하면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뼈 아프게 스스로 깊이 책망하여도 어찌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기에 이에 곧 바른 말을 들어서 닦고 살피는 [修省] 데에 자료를 삼아, 하늘이 경계하심에 응답할까 하노니, 여러 신료(臣僚)들은 각기 힘써 생각하여 과인의 잘못이라든지, 정령(政令)의 그릇됨이라든지, 민생의 집고(疾苦)되는 것을 숨김 없이 다 말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지극한 심정에 도움이 되게 하라. 너희 예조에서는 이 뜻을 중외에 자세히 알리라.”



● 유관(柳寬)

세종 15년 5월 7일 우의정으로 치사한 유관이 88세로 죽었다. 세종대왕이 부음을 듣고 의식대로 신하를 위해 곡하는 절차를 거행하고자 하니 지신사 안송선이 아뢰기를 “오늘은 잔치를 베푼 뒤이고 또 예조에서 아직 정조장을 올리지 않았으며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니 내일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고 흰 옷과 흰 산선으로 흥례문 밖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 의식을 치루었다.

유관(柳寬 1346 - 1433) 본관은 문화(文化). 초명은 관(觀), 자는 몽사(夢思), 뒤에 이름을 관(寬)으로 고치고 자를 경부(敬夫)라 했다. 호는 하정(夏亭). 삼사판관 안택(安澤)의 아들이다.

1371년 (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원종 공신이 되었다. 대사성, 대사헌, 전라도 관찰사, 대제학, 형조판서를 거쳐 1418년 (세종 즉위년) 다시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으며 1424년 우의정이 되었다. 1426년 막내아들인 유계문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자 관찰사(觀察使)의 ‘관’자와 유관의 ‘관’자가 같아 혼동되기 쉬움으로 계정하여 이름을 관(寬)으로 고쳤다. <필원잡기>에 유관의 이야기가 나온다.

「유관은 공정하고 청렴했으며 방정했다. 최고의 지위에 올라도 한칸짜리 초가집에서 살며 벼룩을 입고 짚신을 신었으니 담박하게 살기가 이와 같았다. 공무를 마친 뒤에는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 하지만 뵈려는 이가 있어도 살펴볼 뿐이지 성명은 묻지 않았다.

공이 흥인문 밖에 살 때 었다. 당시 사초를 금륜사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절은 성안에 있었다. 이때 공은 수사의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일찍이 부드러운 모자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으며 수레와 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공이 제자들을 이끌고 시를 읊으며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사람들이 그 아량에 탄복하곤 했다.」

유관은 평소 출근 때에도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녔으며 집에 돌아오면 거



올에도 늘 맨발로 지냈고 반찬은 겨울에는 된장, 여름에는 물 오이로 끼니를 때우고 여가가 있으면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었다고 한다. 서울 신설동은 조선조에 우산각골로 불리워졌었다. 청백리 유관이 방안에서 우산을 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마철이 되어 진종일 비가 내리자 유관의 집안 천장이 여기저기 새기 시작하였다. 유관이 우산을 받혀들고 부인을 돌다보며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까?” 하니 부인이 “우산없는 집은 반드시 다른 준비를 해두었을 겁니다.” 라고 답하자 유관이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이런 유관이 죽자 세종대왕이 교서를 내려 슬퍼했다.

“높은 신하 큰 보필로 일찍부터 임금 돕는 충성이 현저하매 덕을 높이고 공을 깊음에 마땅히 은전의 예식 포함지로다. 생각건대 경은 기질이 온전히 순후하고 성품이 너르고 깊어서 학문은 고금의 사리에 통달하고 재주는 경제의 포부를 갖추었도다. 경외(京外)에 복무하기를 3대 조정에 근속하였다. 동경에 나아가 원이 되매 백성들은 빌리기 원하는 생각을 품었고 남쪽지방에 순무하니 사람들은 자르지 말라는 노래를 불렀도다. 대현(臺憲)을 맡아서는 이단을 철저히 배척하였고 나라 정치를 잡아서는 한결같은 법을 깎듯이 지켰도다. 문앞에는 사사로 찾는 자가 끊어졌고 곳간에는 남는 재물이 없었도다. 지위를 낮추어 깔끔한 풍도를 지니었고 덕은 높아도 교만한 태도가 없었으니 사림의 모범이요 진신(縉紳)의 높은 이였도다. 더구나 동궁을 보도(輔導)한 은혜가 있고 경연에 모시어서 깨우쳐 준 공이 많았도다. 행여나 편히 휴양함으로써 백세를 누릴 줄로 여겼더니 하늘이 남겨주지 아니하여 문득 장서(長逝)하게 하시고, 곧 애도를 표하여 조의를 드리며 시호를 의논하여 이름을 바꾸게 하노라. 이에 예관을 보내어 약소한 제전을 베풀노니 아아 먼저 근심하고 뒤에 즐겨함이며, 이미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였거니, 삶의 영광과 죽음의 슬픔이야 어찌 이승의 다름이 있으리오. 신령이여 어둡지 않거든 나의 지극한 심회를 살피라.”



●허조(許稠)

허조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손수 고치에서 실을 뽑아 겹옷을 지어 주었으므로 매양 기일을 당하거나 시제 때에는 반드시 속에다 입고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이라는 시를 외었으며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 옷으로 염습하라.”고 후손들에게 일렀다고 한다.

유자음(遊子吟) - 길 떠나는 아들의 노래

맹교(孟郊)

자모수중선(慈母手中線) 어머니는 손에 실과 바늘을 드시고  
 유자신상의(遊子身上衣) 길 떠날 아들의 옷을 지으신다  
 임행밀밀봉(臨行密密縫) 먼 길에 해질까 촘촘히 꿰매시며  
 의공지지귀(意恐遲遲歸) 돌아옴이 늦어질까 걱정이시네  
 난장춘초심(難將寸草心) 한 마디 풀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보득삼춘휘(報得三春輝) 봄볕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이 갚으랴

허조(許稠 1369 - 1439) 본관은 하양(河陽).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 도관정랑 윤창(允昌)의 손자이며 판도관서 귀룡(貴龍)의 아들이다. 1383년 진사시험과 1385년 생원시험에 합격하였고 139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허조는 조심이 많고 엄하여 집안을 다스리는데도 엄격하고 법이 있었다. 자제의 교육은 모두 <소학>의 예를 써서 하였는데 조그마한 행동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않고 반드시 삼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허공은 평생의 음양의 일을 모른다.”하니 공이 웃으면서 “만약 내가 음양의 이치를 알지를 못하면 큰아들 후(竦)와 둘째아들 눌(訥)이 어디에서 났으리오.”하였다.

매월당 김시습이 나이 겨우 3살에 어려운 한문책을 줄줄 읽었을 뿐만아니라 한 시까지 짓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허조가 사실을 알아보려고 김시습을 찾아가 늙을 노(老)를 넣어 시 한수를 지어보라 하였다. 김시습이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노목개화 심불노(老木開花心不老)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허조가 크게 감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허조는 조선초기의 유교적 윤리관 보급을 위한 각종 제도와 이념을 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보위를 물려준 직후의 태종이 세종대왕에게 이르기를 “허조는 참 재상이며 나의 주춧돌이다.”라고 하였다. 경사에 정통하였으며 강직하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하였기에 덕망이 높았다. 나라에 흉년이 들면 “아무런 음식이라도 좋다. 내 무슨 마음으로 배부르기를 바라겠는가.”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죽을 쑤어 먹곤 했다고 한다.

1438년에 우의정이 되었고 1439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죽기 3일 전에 도승지를 통하여 임금께 아뢰기를

“신이 포의로서 편벽되게 상은을 입어 지위가 상상에 이르고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마음에 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병으로 60여일을 앓았으므로 살아나서 다시 용안을 뵙지 못할 것같기 때문에 신의 회포를 말해 올리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야인이 있고 동쪽에 섬오랑캐가 있는데 만약 일시에 함께 난리를 일으키면 위태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여러 신하들은 다뿔가며 태평성대라고 말하니 누가 위태하기 전에 난리를 근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위에서 진념하시어 더욱 변경을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세종대왕이 “실로 좋은 말이다.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세종대왕 어록**

지금부터 각 고을에 욕이 없는 것은 새로 짓고, 좁은 것은 고쳐 수리하고, 남자·여자와 경하고 중한 죄수가 거처하는 데를 구별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여 훈훈지인(欽恤之仁)을 넓히도록 하라.”



● 윤회(尹淮)

세종대왕이 술의 해독이 큼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술 잘먹는 신하들이 여럿 있었다. 그 중의 한사람이 윤회다.

윤회(尹淮 1380 - 1436) 본관은 무송(茂松). 자는 청경(淸卿), 호는 청향당(淸香堂). 동지춘추관사 소종(紹宗)의 아들이다. 나이 10세에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외울 정도로 총명함과 민첩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1401년 증광문과에 올라 급제한 뒤 좌정언, 이조·병조의 좌랑, 이조·예조의 정랑을 거쳐 1417년에 승정원의 대언이 되어 태종입금을 보좌했다.

윤회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여관을 찾았으나 여관 주인이 투숙을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뜰 밑에 앉아있었다.

그때 주인집 아이가 큰 진주를 가지고 마당에서 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마침 곁에 있던 흰거위가 그것을 삼켜버렸다. 집주인이 진주를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자 윤회를 의심하고 그를 퐁퐁 묶어놓았다. 이튿날 아침에 관가에 데리고 갈 작정이었다. 윤회는 변명 한마디 하지않고 다만 주인에게 청하여 거위도 묶어서 자기 곁에 두도록 하였다. 다음날 아침 거위가 눈 뿜속에서 진주가 나왔다. 주인은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워 얼른 윤회에게 사과하고 나서 왜 어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윤회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어제 말했다면 당신은 저 거위의 배를 가르고 진주를 찾았을 것 아니요? 그래서 온갖 욕된 것을 참고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요.” 하였다.

윤회가 술을 몹시 좋아했기에 술과 관련된 일화가 적지않다.

태종 1년 11월에 응봉사 녹사로 있을 때 윤회는 직무상 무역으로 바꾸는 말의 장적을 써야 하는데 술에 너무 취하여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순군옥에 감히는 일이 있었다. 세종 2년 9월 병조참의 윤회가 책보사로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할 때 술에 취하여 반열에 들어와 실의(失儀), 불경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려 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임금이 “윤회는 술을 마시면 곧 취한다. 취중의 일을 논 할 것이 없으니 내가 마땅히 불려서 책하리라.” 하고는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兩殿)에서 하사하는 술 이외는 과음하지 말라.” 하였다.

이무렵의 일이 필원잡기(筆苑雜記)에 기록되어 있다.

「문도공 윤희와 집현전 학사 남수문은 모두 문장에 뛰어났지만 술을 좋아하여 늘 지나치게 마셨다. 세종대왕은 이들의 재주를 아껴 술을 3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 뒤부터 두사람은 반드시 큰 그릇으로 3잔을 마시니 말이 3잔이지 실은 다른 사람보다 곱을 마신 셈이었다. 세종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다.”내가 술을 경계한 것이 도리어 술을 많이 먹도록 권한 것이로다.”」

윤희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있다.

문도공 윤희의 문장은 당대 으뜸이었다. 세종조에는 혼자 경연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술을 너무 좋아하여 지나치게 마셨다. 하루는 술에 취하여 집에 누워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사람을 보내 급히 불렀다. 주위사람들이 부축하여 말에 태워도 공이 숙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모두들 걱정하였다. 그런데 임금 앞에 나아가서는 조용히 자문에 따르는데 조금도 취한 빛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할 조서의 초안을 잡으라고 명하자 나는 듯 붓을 놀려 모두 임금의 뜻에 합당하게 쓰자 임금이 “정말 천재로다.”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문성(文星)과 주성(酒星)의 정기가 모여 이 현인을 낳았다.” 고들 했다.

1432년에 윤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세종대왕이 기복(起復: 상중에 있는 관리를 탈상전에 복직시켜 기용하는 일)시켜 대제학에 임명하였다. 윤희는 <고려사>를 개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자치통감훈의>를 찬집하였다.

풍질을 앓던 윤희가 57세에 죽으니 세종대왕이 사제(賜祭)하며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천성이 호매하고 학문이 정박하며 일찍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각에서 이



름을 날렸도다. 한림원에서 제서를 초하매 문장이 고결하였고 후설의 임무를 맡으  
 때 출납이 상밀하였도다. 세자궁에 빈객으로 있으면 보도가 심절하였고 경연에서  
 논강하매 깨우쳐 준 바가 많았도다. 그 외에 가는 곳마다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  
 으매 내 마음에 심히 가상히 여겨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도다. …(중략)  
 의지하고 말김이 한창 중한데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빨리 맞아 가는가 . 영령을  
 슬피 생각하여 술 한잔을 드리게 하노니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거든 혹시나 흠  
 양할 지어다.” 하였다. 시호를 문도(文度)라 하였는데 학문이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함을 문(文)이라 하고 마음을 능히 의리로써 제어함을 도(度)라 한다.



**세종대왕 어록**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  
 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威儀)를 잃게 한다. 혹  
 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을 파괴시키  
 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擧)할 수 없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  
 보지 않는단 말인가.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  
 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  
 과 징계를 삼으라.



● 최만리(崔萬理)

한글하면 세종대왕과 더불어 생각나는 이가 있다. 바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다. 최만리(崔萬理 ? - 1445)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자명(子明), 호는 강호산인(江湖散人). 고려시대 해동공자로 불리던 최충의 12세손이며 예빈시 소윤 하(荷)와 중화 양씨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141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419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가 되었으며 세종 9년인 1427년 증시에 합격하여 정4품 응교가 되었다. 1437년 직제학, 1438년 부제학, 1439년 강원도관찰사, 1440년 다시 집현전 부제학으로 복귀하였다. 1443년 12월 30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4년 2월 16일 언문으로 고급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를 번역하게 하자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과 다른 문자를 씌우므로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럽다.
- 2)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것은 오랑캐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3) 쉬운 언문만을 배워 입신할 수 있다면 어렵게 한문을 배울 사람이 없어질 것이므로 학문에 손실을 가져오고 정치에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 4) 언문을 써서 직접 읽고 듣게 한다면 육사의 억울함을 없앨 수 있다하나 말과 글이 같은 중국에서도 무고함을 당하는 일이 많다.
- 5) 풍속을 바꾸는 일은 큰일인데 여론을 무시하고 급하게 처리하니 불가하다.
- 6) 언문을 배우는 일은 문사의 여섯가지 기예중의 하나 일 뿐이니 동궁의 성학(聖學)에 방해가 된다.

이에 세종대왕은 임금의 마음을 몰라 준다며 최만리 이하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 6인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이튿날 정창손만을 파직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그러나 최만리는 집현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445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세종대왕은 집



현전 부제학 자리를 비워놓고 최만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의 부음을 듣고서 “대쪽같은 만리가 결국은 죽었구나”하면서 침식을 잊은 채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한다. 알고보면 최만리는 세종대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신하중의 한 사람이었다. 최만리는 정인지와 함께 세자에게 고금의 유익한 말과 착한 정치를 진술하고 민간의 일을 말하기도 하여 세자의 어질고 효성스러운 덕을 보양한 공이 컸다.

최만리는 술을 좋아하였는데 특히 잔에 가득 부어 마시기를 좋아하였다. 세종대왕이 이르기를 “경은 몸을 생각하여 앞으로 하루 3잔 이상씩은 마시지 마오.” 하였다. 어느날 취기가 있는 최만리를 보고 세종대왕이 나무라자 옆에 있던 동료가 말하기를 “만리는 정말 3잔만을 마셨을 뿐입니다. 단지 스스로 큰 술잔을 만들어 마셨습니다.”하니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경의 절제함이 그토록 심한 줄 몰랐소.” 하고는 공관으로 하여금 커다란 은술잔을 만들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이 술잔을 집현전 본관에 갖다놓고 수시로 최만리를 접대하게 하였다. 훗날 율곡 이이가 집현전에서 숙직을 하다가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만약 친손이 와서 이 술잔을 잡는다면 더욱 더 성대한 일이 될텐데...” 하였다. 최만리는 5남 1녀를 두었는데 이 외동딸의 증손자가 바로 율곡 이이였다. 이 율곡은 최만리에게 외현손이 되는 셈이다.

최만리는 세종조 12명의 청백리 중 제일 처음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이 하사한 신문 밖 저택은 천칸의 집이 들어설 만큼 넓다하여 천간허(千間墟)라 불렸으며 최만리가 살던 동네의 고개이름은 만리현(萬理峴)으로 불려졌다. 시호는 공혜(恭惠)이다.



**세종대왕 어록**

“시체를 검안하는 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달린 일이었다.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 중에는 혹은 친히 검시(檢屍)하지 않고 다 아전에게 맡긴다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하여금 친히 자신이 검시하게 하라.”



### ● 남수문(南秀文)

문도공 윤회와 더불어 세종대왕이 걱정할 정도로 술을 마셨던 사람이 남수문이다. 남수문(南秀文 1408 - 1443)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경질(景質), 경소(景素). 호는 경재(敬齋). 병조참판 금(琴)의 아들이다. 142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정자가 되었다. 이해 12월 권채, 신석견(뒤에 석조)등과 함께 사가독서의 명을 받았다. 세종대왕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집현관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어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독서에 전념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하라.” 하였다.

세종대왕은 남수문의 학문을 높이 사 성균관 직강 김말과 함께 여러 대군에게 글을 가르쳐주게 하였다. 남수문은 1435년 <통감훈의>의 편찬에 참여하여 윤회, 권채, 정인지등과 함께 <통감>을 주해하기도 하였으며 1436년 문과 증시에 장원을 하여 집현전 응교가 되었고 이후 왕명을 받아 많은 글을 지었다. 남수문은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 윤회, 권채, 신석견등과 자주 시문을 겨루었는데 사람들이 남수문의 문장이 제일이라고 추앙하였다.

1442년 임금의 병으로 흥천사에서 경찬회가 열렸을 때 남수문이 지은 설선문(說禪文)이 실록에 실려있어 그의 명문장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삼가 여암화상 장하에 청하옵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특히 조종을 위하여 흥천사 사리탑을 중창하시어 공사를 마치시고 이에 경찬회를 베풀게 하셨으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법연을 주장하여 진승을 열어 넓히시고 조종으로 하여금 불과를 둔성하게 하소서. 그옥히 생각하건대, 5천권의 교회와 연설은 비록 글귀가 지극히 많다 하오나 3대 조파의 깊은 근원을 언어로써 가히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남하는 분변이 없다면 누가 향상하는 마루를 알 것입니까. 적은 정성을 살피주시와 오의를 널리 드러나게 하소서. 이 흥천사의 탑은 실로 조종이 경영하신 것입



니다. 세월이 오랜 까닭으로 기둥이 기울어지고 집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미루어 받들어서 옛 모습대로 복구하시니 삼층의 고운 집마루가 빛났으며 노을 빛 무늬가 높게 번쩍이고 천함의 불경을 수장하였으니 칠보 아침은 별같이 비칩니다. 이에 청정한 불도들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경찬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엮드려 생각하옵건대 여암화상 장하께서는 총림의 큰 간체이며 석원의 높은 표준입니다. 마음은 백수의 선에 참여했고 학문은 패엽의 종지를 전하였습니다. 서각자루를 휘둘러서 상연의 빛을 더하였고 물현금을 만지어 승평곡을 드리우며 무공적을 붙여서 미묘한 소리를 가만히 울립니다. 모든 사람의 보고 듣는 가운데 복리를 같이 더하게 하여 주소서.」

세종대왕이 남수문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이에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이 “사가독서를 통해 학문이 깊어진 학자들에게 어려운 중국어를 배우게 하기보다는 그동안 연구해온 학문을 전공케 해달라.”는 상서를 올렸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내 생각에는 문화연구와 중국어를 겸해 수습하여도 학문연구에 손실을 가져올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오경과 사서를 모두 중국말로 읽는다면 국가에 보익됨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하였다.

1443년 4월 29일 집현전에서 숙직하던 남수문의 병이 심하므로 세종대왕이 급히 내의 두사람을 보내 구료하였으나 마침내 죽고 말았다. 사림이 그의 재주와 36세의 젊은 나이를 애석하게 여기는 가운데 세종대왕은 특별히 관곽과 쌀, 콩, 종이등을 부의로 하사하였다. 이 해 6월 19일 “이제 들으니 남수문에게 하사한 관을 생나무로 만들어 주었다니 내 마음이 매우 상하였다. 대저 임금이 관곽을 하사하면 상주의 마음에 어찌 임금의 하사를 감격해 하지 않겠으며 죽은 사람도 또한 어찌 땅 밑에서나마 감동하지 않겠는가. 만약 하사한 것이 좋지 못하면 상주가 비록 은덕에 감사할 지라도 어찌 유감이 없겠으며 임금으로서도 비록 하사는 했으나 어찌 하사한 본의에 합당하겠는가”하면서 앞으로는 이미 법을 세운대로 마른나무 관을 제작하여 하사하도록 승정원에 지시하고 있다. 남수문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깊었음을 보여주는대목이다.



● 정갑손(鄭甲孫)

〈용재총화〉에서 성현은 정갑손의 인간적 풍모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정절공 정갑손은 나의 육촌이다. 내 큰형이 정절공의 집에 가서 뵈오니 공이 형을 불러들였다.

공은 아직 아침이라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명이불에 초석자리를 깔고 있어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공이 말하기를 “네가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불 밑에 손을 넣어라.” 하고는 서로 경사를 강론하였다.」

정갑손(鄭甲孫 ? - 1451)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인중(仁仲), 종추원사 흠지(欽之)의 아들이며 세종의 후궁 소용 정씨의 아버지다. 1417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부정자, 감찰, 병조좌랑, 헌납, 지평 등을 거쳐 지승문원사가 되었다. 1435년 강직한 성격을 인정받아 좌승지로 발탁되고 예조참판, 전라도 관찰사, 대사헌을 지냈다. 그 뒤 우참찬, 좌참찬을 역임했고 중종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정갑손은 용모가 험걸차며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울 뿐더러 기량이 넓고 너그러워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다. 하지만 청빈하여 집에는 모아둔 재물이 없어 베이불을 덮고 부들자리를 깔고 거처하였다.

대사헌으로 있을 때 이조판서 최부가 그 아들에게 품계를 건너뛰어 전라도 경력겸 판사에 임명하자 정갑손이 임금앞에서 면척하기를 “최부는 나이 70이 넘어 오래 치사하여야 마땅함에도 성은이 지극히 융숭하여 전형을 맡기셨는데 은혜에 보답하여 힘을 다할 생각은 아니하고 감히 이러하니 죄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세종대왕이 “사람 쓰는 일에 밝지 못한 내가 오히려 매우 부끄럽다.”하며 무마하였다. 임금앞에서 물러나와 회식할 때에 최부가 손이 떨려 수저를 잡지 못하고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니 정갑손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서로 각각 직책을 다하자 함이지 해치고자 함이 아니요.”하였다. 정갑손이 이처럼 불의를 보면 분개하여 바른 말을 하고 권력있고 세력있는 자를 피하지 아니하니 탐욕스런



사람도 결백하여지고 나약한 사람은 뜻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조정에서도 믿고 중히 여겼다.

정갑손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처신하였다.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아 서울에 와 있는 사이에 아들이 함길도 생원 향시에 합격하였는데 정갑손이 돌아와서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학업이 아직 정하지 못한데 어찌 요행으로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느냐?”하고는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빼버렸다.

세종대왕의 상중에 병이 심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그 어머니가 몸을 추스리라고 고깃국을 권하자 “제가 재덕이 없이 지위가 이에 이르렀고 우리 부자 형제가 두루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니 살아서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나 고기를 먹고서 사는 것은 먹지 않고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정갑손은 평생에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낸 적이 없었으며 집이 가난하여 조석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고 뚫어진 바람벽과 떨어진 돛자리도 돌보지 못하면서도 태연하였다. 그가 죽자 아우 정창손이 제문에 이르기를 “남들은 뜻이 있되 재주가 없음을 근심하나 공은 뜻도 있고 재주도 있었으며 남들은 말 할 수 있되 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나 공은 말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었다. 공의 뜻으로 공의 재주를 행하면 넉넉히 왕화를 단정하고 일세를 도견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믿고 썼었는데 공이 이미 돌아갔으니 아아! 슬프다.” 하였는데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나친 칭찬이 아니라 하였다. 시호는 정절(貞節)인데 곧은 길로 흔들리지 않음이 정(貞)이요, 청렴을 좋아하여 욕심을 이김이 절(節)이다.

蟲

### 세종대왕 어록

“경외 공처(京外公處)의 비자(婢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백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 정인지(鄭麟趾)

정인지(鄭麟趾 1396 - 1478)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저(伯雎), 호는 학역재(學易齋). 아버지는 석성현감 정흥인(鄭興仁)이며 어머니는 낭장 진천의(陳千義)의 딸이다. 정흥인이 내직별감으로 있을 때 소격전에 들어가 재를 올리면서 집안을 일으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마음 속으로 빌었다.

이 무렵 그의 부인이 삼태성(三台星)을 품에 안는 꿈을 꾸 뒤 정인지를 낳았다. 5세 때부터 책을 읽었는데 눈만 스치면 곧 암송하고 글도 잘 지었다. 16세에 생원시에 1위로 뽑혔으나 나이가 어리다하여 4등으로 내렸다. 19세 때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빈시주부로 관직을 시작했다. 1427년 문과복시에서 정인지의 답안을 채점한 맹사성이 “이 사람의 답안문은 대국인 중국에서도 구하기 어렵다.”고 감탄하였다. 당연히 장원에 뽑혔고 세종대왕의 특명으로 정3품인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겸 세자 우필선이 되었다. 이후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천문, 역산, 대소간의, 일성정시의, 훈천의, 천평, 규표, 흠경각, 보루각 등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사륜요집(絲綸要輯), 치평요람, 태조실록,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기여하였다.

소헌왕후 심씨를 장사 지낼 때의 일이다. 마침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자 왕후의 재궁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임시로 낙천정에 안치되었는데 사람들이 재궁의 머리를 남으로 두라고 하고 혹은 북으로 머리를 두라하며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영의정 황희가 정인지를 급히 불러 물으니 “예기에 빈소에 있을 적에 남으로 머리를 두는 뜻은 그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 무덤에 있어 북수(北首)하는 것은 유명(幽冥)이 된 연고인 것이다. 이제 또한 빈소이니 남수(南首)가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말을 듣고 여러 대신들이 말하기를 “재상은 글을 읽지 않을 수 없다하더니 사실이구나.” 하였다. 한번은 세종대왕이 정인지에게 귀신의 이치를 물었다. 정인지가 성인의 글과 현인의 책을 넘나들며 사리정연하고 조예깊게 아뢰니 임금이 그를 맨 앞자리에 앉도록 후대하였다.



정인지는 성종 9년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성(文成)인데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음이 문(文)이고 임금을 도와 끝맺음이 있음이 성(成)이다.

서거정이 정인지의 신도비에 이렇게 썼다.

「.....미산 소동과의 영기를 나눠 받은 창여 한퇴지의 은하같은 글이로다. 때에 적응한 어진이요 세상에 드문 재조로서 옥당에 벼슬하고 그 이름이 인각에 올랐도다. 조용한 담소는 조정안에 우러르고 경륜으로 군왕을 도와 많은 공적을 이룩했네. 단정한 몸매로 집무함에 시종 자세가 불관하고 이내 만들고 이내 베풀어 백성복지를 이룩했도다. 가는 곳마다 옳지 않음이 없고 때에 따라 마땅히 처리하여 백성의 희망을 걸머지고 나라의 안위를 한몸에 지녔도다. ...」

그러나 그의 즐기에서 사신은 이렇게 논평한다.

「정인지는 성품이 겸손하여 자신의 생활도 매우 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만석이 되었다. 그래도 전원을 널리 차지했으며 심지어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 것까지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이를 그르다고 하였다. 그의 아들 정승조는 아버의 그늘을 바탕으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며 그 재물을 늘림도 그의 아버보다 더하였다.」

蟲



### 세종대왕 어록

“화재를 당한 여러 집과 가산이 모두 타서 식량이 떨어진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식량을 공급하고, 화상을 입은 자는 의원으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고, 사망한 자는 한 사람에 대하여 쌀 1석과 종이와 거적 등의 물품을 주어 매장하게 하고, 그 중에 친족이 없는 자는 관청에서 장사에 쓸 기구를 주어 한성부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장사지내게 하라.”



●강희안(姜希顔)

「내 친구인 인재선생(仁齋先生)은 뛰어난 학자를 배출한 명문 출신으로 젊어서 부터 사치함을 익히지 않고 독서를 좋아하며 널리 보고 많이 기억하였으며 큰 포부가 있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현직에 올라 명성이 높았다. 천성이 담백함을 좋아하고 번잡 화려함을 일삼지 않았으며 날마다 글 속에 묻혀 즐겼다. 그림·시·글씨 세가지 법도의 깊은 이치를 우뚝하니 깨달았는데 특히 시에서는 왕유나 위응물 과 흡사하고 글씨는 왕희지 와 조맹부를 견비했으며 그림에 있어서는 유송년이나 곽희를 본 받았다. 그가 얻은 신묘함은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종2년 7월 16일 서거정 씀.

강희안(姜希顔 1417 - 1464)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우(景遇). 호는 인재(仁齋). 지돈녕 부사 석덕(碩德)의 아들이며 좌찬성 희맹(希孟)의 형으로 세종대왕과는 이질(姨姪) 간이다. 144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돈녕부주부가 되었다.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해석을 상세하게 덧붙였고 최항 등과 용비어천가의 주석을 붙였으며 집현전 직제학 최항, 성삼문, 이개 등과 동국정운을 완성하였다.

세종대왕이 보옥(寶玉)에다가 명나라에서 내려준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길러 길이 후세에 번창하리라. (體天牧民永昌後嗣)’는 여덟자를 새기고자 하였으나 전서(篆書)로 쓰는 것을 어려워 하던차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강희안을 천거 하였다. 그만큼 강희안은 재주가 있었다. 그림으로는 교두연수도(橋頭淵水圖),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 강호한거도(江湖寒菊圖) 등이 있는데 특히 고사관수도는 턱을 팔로 괴고 물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고사를 주제로 하고 주변의 산수는 그를 위한 무대장치처럼 그려 자연을 위주로 표현하던 안견의 산수화와는 큰 대조를 보이는 걸작이다. 저서로는 1449년 부지돈녕부사에 오르면서 쓰기 시작한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있다. 이 책에는 강희안이 직접 회초를 키우면서 알게 된 회초의 특성과 재배법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이 길러보라고 명한 일본 철쭉화, 영산홍에 관한 일화가 전한다.



「세종대왕 재위 23(1441)년 봄에 일본에서 철쭉화분 몇개를 바쳤다. 임금께서 뜰에서 기르도록 명하셨다.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은 흙잎으로 매우 컸다. 색깔은 석류와 비슷하고 꽃받침은 겹겹이었는데 오랫동안 시들지 않았다. 자색(紫色)으로 잎이 많은 우리 나라의 품종과 아름답고 추함을 비교하면 모모와 서시(西施)의 차이보다 심했다. 임금께서 즐겁게 감상하시고 상림원(上林園)에 하사하시어 나누어 심도록 명하셨다. 바깥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일본 철쭉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운 좋게도 주상과 친척 관계였으므로 일가의 어른으로부터 뿌리를 약간 얻을 수 있었다. 그 품종의 습성을 몰랐으므로 화분에도 심고 땅에도 심어 시험하였다. 땅에 심은 것은 얼어죽었으나 화분에 심은 것은 별탈이 없었다. 몇 년 사이 가지가 점점 번성하더니 4~5월에 다른 꽃들이 시드는 속에서도 호방하고 요염한 자태가 붉은 비단처럼 빛났으므로 누추한 나의집에서 감상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손님이 오면 화분 하나를 내어 보여주었지만 누구도 어떤 꽃인지 알지 못했다.

아아! 동해 멀리 살고있는 섬 오랑개와 한양과의 거리는 만여 리(里)가 되니 임금의 교화가 동쪽으로 뻗치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푸른 바다를 건너 공물을 바치고 철쭉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한나라에서 사신(장건)을 떠나면 서역(西域)으로 파견하여 18년 만에 겨우 석류(安石榴)를 얻어 왔을 뿐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안에 들여 놓을 때 덥게 해서는 안되며 물을 주되 습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지를 굽혀 서향화를 접붙이는 방식대로 땅에 접붙인다. 질그릇 화분을 사용한다.」

강희안은 시·서·화에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유독 음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는데 악사가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손가락을 천천히 돌려 연주해 보아라.”하였다. 강희안이 악사의 손놀림을 오랫동안 눈여겨 보더니 “비록 소리는 이루지 못하지만 대강은 할 수 있겠다.”고 하고는 직접 한 곡조를 연주하였는데 그 음을 잃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명민함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강희안은 사은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인수부윤(仁壽府尹)에 임명되었



다가 1465년 10월 9일 등창이 나서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는 4녀를 두었다.



**세종대왕 어록**

“대개 들으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게 되면, 하늘의 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수재나 한재가 드는 것은 모두가 사람이 불려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으니, 내가 박한 덕으로 큰 기업(基業)을 계승하여 지키며, 신민의 위에 얹혀 있으면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으르지 아니하여 융성하고 태평하게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였으나, 나의 밝음이 사리를 잘 깨닫지 못하며 은택이 능히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는데, 이제 한창 농사할 달을 당하여 다시 심한 가뭄을 입게 되니, 고요히 그 그릇된 근원을 생각하면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뼈 아픈게 스스로 깊이 책망하여도 어찌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기에 이에 곧 바른 말을 들어서 닦고 살피는 [修省] 데에 자료를 삼아, 하늘이 경계하심에 응답할까 하노니, 여러 신료(臣僚)들은 각기 힘써 생각하여 과인의 잘못이라든지, 정령(政令)의 그릇됨이라든지, 민생의 질고(疾苦)되는 것을 숨김 없이 다 말하여,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지극한 심정에 도움이 되게 하라. 너희 예조에서는 이 뜻을 중외에 자세히 알리라.”



● 최윤덕(崔潤德)

조선 개국 초기 명장인 최운해의 아들이자 무인으로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인물이 최윤덕이다.

최윤덕(崔潤德 1376 - 1445)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여화(汝和), 백수(伯修). 호는 임곡(霖谷).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운해(雲海)이고 어머니는 창원 이씨이다.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장군인 아버지는 국경을 지키러 변방에 나가야 했기에 최윤덕과 그 형제들은 이웃동네 양수척(楊水尺)의 집에서 길러졌다.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에 의하면 「그는 성장하면서 골격이 굵고 체력이 뛰어 났으며 팔의 힘이 강인 하였다. 어느 날 사냥에 나갔는데 깊은 골짜기에 이르러 갑자기 큰 짐승이 수풀에서 나타나니 못 짐승이 놀라 흩어졌다. 윤덕이 하나의 화살로 이를 쏘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와 양수척에게 말하기를 “무늬있는 큰 짐승이 있기에 내가 쏘아 꺼꾸러뜨렸다.” 하기에 양수척이 가보니 큰 호랑이 었다. 양수척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겨 운해 장군의 처소에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하였더니 윤덕이 무예의 기질이 있음을 알고 활쏘는 법을 가르쳤다.” 라고 하였다.」

음관으로 기용되어 아버지를 따라 여러번 전공을 세운 윤덕은 1402년에 낭장이 되고 1406년 지태안군사가 되었다가 1410년 무과에 급제하여 상호군이 되었다. 1419년 최윤덕은 이종무와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때의 일을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세종원년에 최윤덕이 도 절제사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는데 6월 17일 함포에서 발선하여 7월 초3일에 돌아왔다. 진실로 신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작전이 아니면 어찌 빠르기가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최윤덕은 공무가 끝나면 툴툴이 관청 뒤 빈 땅에 손수 채소를 심어 가꾸곤 하였다. 소송하러온 백성이 그가 목사인줄 모르고 “지금 사또께서 어디 계시오?” 하니 시치미를 떼고 “지금 관청에 있소.” 하고는 재빨리 관복으로 갈아입고 그 소송을 처리 하였다. 어느 날 부인 한 사람이 울면서 고하였다. “지난 번에 호랑이가 제 남편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최윤덕이 “내가 너의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마.”하고는 호랑이를 쏘아 죽여 배를 가르고 뱃속에 있는 뼈를 거두어 의복



으로 싸서 관속에 넣어 주었다. 그 부인은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1433년 파저강의 야인인 이만주가 함길도 여연에 침입하였을 때 이를 물리쳐 우의정에 특진되었다. 세종대왕은 근정전에서 최윤덕의 승리를 치하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고 친히 술잔을 잡아 윤덕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또 세자로 하여금 술잔을 돌리게 하면서 윤덕에게 앉아서 술을 받도록 하는 특전을 베풀었다.

이처럼 분에 넘치도록 임금의 사랑을 받은 최윤덕은 무관으로서 재상의 직에 있을 수 없다는 소를 올려 무관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께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다가 1435년에 오히려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에 최윤덕이 황망히 사직서를 올리니 세종대왕이 간곡한 말로 비답하기를 “축나라의 제갈량과 당나라의 배진공 또한 모두 승상의 관직에 있으면서 국방에 전념했거늘 일찍이 제갈량 못지않은 지략으로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대의 덕이 어찌 정승의 직위를 감당하지 못하랴? 비록 겸양지덕을 표하긴 하더라도 그대의 공을 누가 더불어 다룰 수 있겠는가? 정승이 되었음을 더욱 무겁게 여겨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해 주기 바라노라.” 하였다. 최윤덕을 아끼던 세종대왕은 이듬해 그를 영종추원사에 임명하였다.

경원부사 송희미(宋希美)가 적이 쳐들어 왔는데도 겁을 먹고 나아가 싸우지 않아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붙잡혀 갔다. 군법에 의해 송희미가 죽게 되었는데 친구 사이였던 윤덕이 그를 위해 술상을 차리고는 위로하였다. “상심하지 말게 법은 피할 수 없네. 우리 인생은 한번은 죽어야 하네. 나 또한 죽으면 그대 뒤를 따르겠네.”

최윤덕은 70세의 나이로 죽었다. 시호는 정렬(貞烈)이다. 청백하게 절조를 지키는 것이 정(貞)이요 공이있어 백성을 편안히 한 것이 열(烈)이다.

**세종대왕 어록**

그러나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정에 따라 용서할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다



## ● 하경복(河敬復)

하경복의 집안 가리켜 3대 연시호(連諡號)의 명문가 라고 일컫는다.

3대 연시호란 양정공 하경복, 그의 아들 강장공 하한, 하한의 아들 경절공 하숙보가 잇달아 나라에서 주는 시호를 받은 것을 말한다.

하경복(河敬復 1377 - 1438) 조선초의 무신. 본관은 진주(晉州). 아버지는 병조판서에 증직된 하승해 이고 어머니는 전객서령 선진기의 딸이다. 하경복이 태어날 때 어머니 선부인이 자라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곧 태기가 있어 그를 낳았다.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왕팔(王八) 이라고 하였다.

하경복의 탄생설화가 한가지 더 있다. 선부인의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기이하게 생각되어 큰자라 한 마리를 찾아 내어 강물에 던져 주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시 꿈에 나타나 사례하면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경복을 낳았다. 하경복은 1402년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부정을 거쳐 상호군이 되었다. 1410년 무과 증시에 합격하여 첨지총제가 되었으며 이후 함길도 도절제사, 의정부 참판, 함길도 병마절제사를 거쳐 1432년 관중추원사가 되었다.

하경복은 어려서부터 기운이 남보다 뛰어났다. 감사 숙위의 직책으로 궁문에 숙직하고 있을 때 마침 동짓날이어서 상림원(上林苑 : 비원)온실에서 가꾼 매화 몇분을 궁문 곁에 옮겨 놓았다. 경복이 긴 가지 하나를 꺾어서 투구 위에 꽂으니 꽃을 맡는 이가 크게 놀라 꾸짖으매 경복이 말하기를 “우리집 울타리 가에 마소(馬牛)를 매는 것이 이 나무요, 꺾어서 땔나무도 하는 것인데 무엇이 귀할게 있으리오.” 하며 조금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의 기백을 장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가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로서 변방에 부임할 당시 임무가 막중하여 어머니에게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갔다. 어머니에 대한 하경복의 효도가 지극함을 알고있던 세종대왕은 종종 존문사(存問使)를 시켜 선부인의 안부를 묻고는 이 사실을 하경복에게 서찰로 알려주면서 “진진(戰陣)에서 용맹이 없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했으니 경이 변경에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또한 어찌 큰 효도가 아니리오. 내가 경



의 뜻을 살피서 특별히 구휼을 더하니 경도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너그럽게하여 나를 위해 충성을 바쳐주기 바라노라.” 고 부탁하였다. 하경복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게됨에 따라 세종대왕은 경복의 동생 하경리를 진주 주위의 아홉 고을의 원으로 번갈아 제수하여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토록 배려하였다.

하경복은 진실로 의가 아니면 비록 터럭 끝만한 것일 지라도 결코 취하지 않아서 야인들조차도 그의 청백함에 탄복하였다. 그의 성품을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그가 함길도에 있을 당시 부인 정씨가 그의 녹봉을 밀천으로하여 저택을 세우니 경복이 돌아와서 못마땅하게 여겨 말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초가집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집을 이렇게 장대하게 세운단 말인가.” 하고 곧 그 집의 철거를 명하였는데 그의 아들과 사위와 이웃들이 모두 혈지말라고 간청한 뒤에야 비로소 중지했다. 이렇듯 하경복이 북방에서 진무하기를 15년 동안 하였는데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여 사졸들이 즐겨 그의 쓰임을 받았고 야인들도 두려워하여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였다. 국가에서 그에게 의지하기를 마치 장성(長城)같이 하였는데 62세에 이르러 죽었다. 시호를 양정(襄靖)이라고 하니 갑주에 노고가 있음을 양(襄)이라고 하고 덕으로 회유하여 대중을 편안하게 함을 정(靖)이라 이른다.

論

세종대왕 어록

“옥(獄)이라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을 징계하자는 것이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옥을 맡은 관리가 마음을 써서 규찰하지 아니하여, 옥에 갇힌 사람들이 혹은 병에 걸리고, 혹은 얼고 굶주리거나, 혹은 옥졸의 꾀박과 고문으로 인하여 원통하게 생명을 잃는 자가 없잖아 있으니, 지금 서울 안의 옥수(獄囚)로서 죽은 자가 있거든 죄의 경중을 분별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연을 갖추어 아뢰라. 외방에서는 다만 죄수의 죽은 자를 형조에만 보고하고 계달하지 아니하니, 서울과 외방의 법이 달라 실로 온당치가 못하였다. 금후로는 외방의 옥수로서 치사(致死)한 자도 또한 경중을 불문하고 본범(本犯)의 죄명과 처음에 가둔 월일과 병에 걸린 일시와 치료한 약과 병 증세와 신장(訊杖)의 때린 횟수와 죽은 일시를 갖추 기록하여 형조에 이문(移文)하고, 또 따로 계문하되 함식(恒式)으로 만들라.”



●김종서(金宗瑞)

김종서(金宗瑞 1383 - 1453)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도총제 김추(金鍾)의 아들이다. 1405년 문과에 급제하여 1415년 상서원직장을 지냈고 시간원 우정언, 광주판관, 함길도 도관찰사, 형조·예조판서, 의정부 우찬성을 거쳐 문종 때 좌찬성, 우의정. 단종 때 좌의정이 되었다. 6진개혁의 공이 너무 커서 김종서를 무신으로 알기쉬우나 그는 고제와 의례에 조예가 깊었으며 집현전 학사를 지휘하여 <고려사>를 편찬할 정도의 학문적 능력을 가졌던 문신이었다.

성현이 쓴 <용재총화>에 그의 문재를 드러내는대목이 있다.

「제학 최흥효는 글씨 잘쓰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는데 그 필적은 오로지 진나라 유익의 필체를 모방하였었다. 비록 붓놀림이 순수하고 익숙했지만 거칠고 촌스러운 모습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태종이 친히 정사를 보던 날 제학이 이조낭청으로 입시하여 남의 임명장을 쓰는데 붓을 가지고 그것을 그리되 아주 오래되어도 나아가지 못하므로 김종서가 병조낭청으로 옆에 있다가 한번 붓을 들어 수십장을 날려썼다. 다 쓰고 나서 옥새를 찍으니 자체와 옥새자국이 모두 단정하므로 태종이 돌아보고 좌우에게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쓸만한 인재다.” 하여 김종서가 이로말미암아 떨쳐 일어났다.」

1419년 춘궁기의 충청도 민정을 살피기 위해 김종서가 파견되었다. 도내를 두루 돌아본 김종서가 도내 각 관청에 굶주린 백성이 남녀 장정과 약한 자 모두 12만 2백 49명인데 이들에게 나누어준 쌀이 1만 1천 3백 11석이고 장이 9백 49석이라는 자세한 보고를 올리니 세종대왕이 그의 기민한 행정능력을 높이 사 곁에 두고 아끼게 된다.

1433년 12월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된 김종서는 이후 1440년 12월까지 7년 동안 변방에 머물면서 6진을 개혁하고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공로를 세웠다. 이 기간동안 김종서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나 세종대왕은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책임이 막중함을 들어 백일 만에 상복을 벗게하고 육식을 권하면서 다시 함길



도로 내려보냈다. 또 여러차례 김종서를 모함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세종대왕은 그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김육(金堉)이 지은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아무런 세종대왕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비록 과인이 있더라도 종서가 없었다면 족히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고 비록 종서가 있더라도 만약 과인이 없었다면 이 일을 주관하고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김종서가 신바람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김종서가 여진을 정벌하여 육진을 개척하면서 두만강가에 석성을 쌓고 장대에 올라서서 대장부의 기개를 뽐낸 시조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서서  
긴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김종서도 안평대군의 요청에 따라 <몽유도원도>에 제화시를 남겼는데 이 시에서조차 자신을 알아주는 세종대왕을 향한 충성심이 배어있다.

「...(중략) 인생은 쇠나 돌이 아니라 백년도 번개처럼 달아나느니 어떻게 선도나 무 뽐아내다가 궁전 뜰안에 옮겨 심을 수 있어 저 3번 도둑질 하던 아이(동방삭) 꾸짖어 대며 만세토록 우리 임금께 바쳐 올릴까.」

1449년 8월 김종서는 요동지방이 소란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평안도 도절제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상경하라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았으나 돌아와 복명하기 전인 2월 17일 세종대왕이 갑자기 승하하니 2월 24일 김종서는 응복의 먼지도 털지않은 채 빈전에 쫓아 들어가 통곡하고 또 통곡하였다. 김종서는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는데 1746년에야 비로소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 사육신(死六臣)

사육신이란 1456년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신하를 말한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유독 사육신이 칭송되는 것은 남효온(南孝溫)의 저서 ‘추강집(秋江集)’에서 연유한다. 남효온은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 행위로 규정하고 세조를 비난했다. 그는 당시 공론에 의거하여 단종 복위 사건의 주도 인물로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6인을 선정하고 육신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추강집에 실려 있다.

1456년 6월 1일 세조가 상왕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을 초대하여 베푸는 창덕궁 연회에 성승, 유응부, 박쟁등이 별운검에 임명되었다. 사육신들은 이 기회에 세조와 측근들을 제거하고 상왕을 복위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한명회의 주장에 따라 세조가 연회당일 별운검을 폐지하도록 명하고 또한 왕세자도 질병 때문에 연회에 불참하게 되자 부득이 거사를 뒤로 미루게 되었다. 훗날 임금이 농작물의 상황을 알아보는 관가(觀稼)를 행할 때 노상에서 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창덕궁 거사가 미루어지자 복위 운동이 참가하였던 성균사예(成均司藝) 김질(金質)이 겁을 먹고 장인인 우찬성 정감손과 함께 6월 2일 세조에게 밀고하였다.

거사 실패뒤에는 처참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삼문이 먼저 국문을 받았다. 거사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유성원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월 7일 박팽년은 옥중에서 죽었고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응부 등은 1월 8일 궁기감 앞에서 거열형을 받고 죽은 뒤 3일동안 효수(梟首)되었다. 사육신의 가족 중 친자식들은 모두 교형(絞刑) 처하였고 그 밖의 가족들은 변방의 노비가 되었다. 아들 사육신은 숙종 17년(1691년) 신원되었다. 1758년(영조 34) 단종 복위 60년을 맞아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응부, 하위지가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유응부는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모두 시호를 받았다.



● 박팽년(朴彭年)

박팽년(朴彭年 1417 - 1456)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인수(仁壽), 호는 취금헌(醉琴軒). 안생의 손자이며 종립의 아들. 어머니는 김익생의 딸이다. 16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2년 뒤인 1434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정자가 되었다. 박팽년의 집안은 아버지 박중립과 박팽년 그리고 박팽년의 동생들인 인년(仁年), 기년(耆年), 대년(大年)등 5부자가 모두 집현전 학사를 지낸 명문가였다. 1447년 4월 안평대군은 도원에서 노닐던 꿈을 꾸 뒤 안견으로 하여금 이른바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하고는 꿈 속에서 함께 무릉도원을 찾았던 박팽년에게 서문을 부탁하기도 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울분을 참지 못한 박팽년이 경희루 연못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던 일화가 <육신전(六臣傳)>에 전한다.

“을해년에 상감(세조)이 선위를 받자 팽년은 나라 일을 끝내 건지지 못할 줄 알고 경희루 연못에 나와서 스스로 빠져 죽으려 하니 삼문이 곧세게 만류하며 이르기를 ‘바야흐로 이제 신기(神器 ; 옥쇄)가 비록 옮겨갔지만 아직 상왕이 계시고 우리들이 죽지 않았으니 뒷날을 도모할 수 있다. 도모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는다해도 또한 늦지 않음에 오늘의 죽음은 나라에 보탬이 없다.’ 하니 팽년이 이를 쫓았다.”

또 육신전에는 단종복위 거사에 실패한 후 붙잡혀 고문을 받는 박팽년의 모습이 기록되어있다.

“팽년등이 사실이라 말하자 상감(세조)이 그 재주를 아끼어 몰래 타이르기를 ‘네가 나에게 귀순하여 처음 도모한 것을 숨기면 살 수 있다.’ 하니 팽년이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상감을 부르는데 반드시 나오리라 함에 상감이 입을 틀어막게하고 이르기를 ‘네가 이미 나에게 신하를 칭했었으니 지금 비록 일컫지 않는다 해도 이익이 없다.’ 하자 대답하기를 ‘내가 상왕의 신하인데 어찌 나오리의 신하가 되었었겠소. 일찍이 충청감사를 1년 했지만 단 한번도 신하를 칭하지 않았었소.’ 했다. 사람을 시켜 팽년이 올린 장계목록을 교열하게 하니 과연 하나의 신(臣)자



도 없었다.”

신(臣)자는 모두 거(巨)자로 써놓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심정을 박팽년은 시조로 이렇게 읊고 있다.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변할 줄이 이시라

세조는 박팽년이 이렇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것에 격노하여 모진 고문을 가 하니 박팽년은 6월 7일 옥중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자 세조는 6월 8일에 성삼문 등 사육신과 박팽년의 부친 박종립, 성삼문의 부친 성승등을 군기감 앞길에서 거 열형(車裂刑)으로 처형했고 박팽년의 시신도 그렇게 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들인 기년, 인년, 대년과 매부인 봉여해도 6월 21일 에 능지처사되고 9월 7일에 그 아내 천안 전씨(全氏 1417 - 1499)는 노비가 된다. 이때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朴珣)의 처 성주 이씨가 유복자를 잉태하고 있다가 대구 친정으로 내려가 낳았는데 마침 종이 딸을 낳아 이와 바뀌 길러 살려내었다. 이 아들이 박비(朴婢)라 불려지던 박일산(朴一珊)으로 이후 1472년(성종 3)에 그 이모부인 이극균이 경상감사로 내려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지수토록 하여 죄를 사면받게 하니 사육신 중 오직 박팽년의 혈통만 이어지게 되었다. 박팽년은 다른 사육신과 함께 1691년(숙종 17)에 복관되었고 1758년(영조 34)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세종대왕 어록**

“금년은 도내의 농사가 잘못 되어서 백성들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고, 또 입춘(立春) 뒤에 날마다 큰 눈이 와서 심한 추위에 얼음이 얼어서, 굶주린 백성들이 있을까 보아 걱정된다. 이미 산과 들의 나물도 캘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이웃간에 빌리거나 꾸어줄 수도 없어서 그대로 먹지 못하고 얼어죽는 일이 있을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 경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하여 널리 구제를 시행하여, 실농(失農)한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하여서 나의 마음에 맞도록 하라.”



### ● 성삼문(成三問)

성삼문(成三問 1418 - 1456)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아버지는 도총관 승이며 어머니는 현감 박첨의 딸이다.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고 묻는 소리가 세 번이나 들렸다하여 삼문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가 되었다. 1445년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 신숙주와 함께 요동을 13번이나 왕래하면서 그곳에 유배 중이던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을 만나 음운을 물어 보았다. 또한 명나라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들어가 음운과 교장의 제도를 연구해와서 1446년 9월 훈민정음을 반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448년 4월 3일 원손인 홍위(弘偉 : 단종)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어린 원손을 안고 궁정을 산보하다가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원손을 잘 보호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이 부탁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단종복위를 도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1456년 6월 단종복위거사 실패후 국문을 당할 때 성삼문은 세조를 가리켜 '진사(進賜 : 종친에 대한 호칭)'라 호칭하고 뚝뚝하게 모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세조가 준 녹(祿)은 참고에 쌓아두었으니 모두 가져가라 하였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으면서 세조의 불의를 나무라고 또한 신숙주에게도 세종대왕과 문종의 당부를 배신한 불충을 크게 꾸짖었다. 격노한 세조가 무사를 시켜 쇠를 달구어 성삼문의 다리를 태우고 팔을 잘라냈으나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문초를 받고 있던 강희안을 변호해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해주기도 하였다.

세조는 6월 8일 성삼문과 성승, 유응부, 박쟁, 이개, 하위지, 박종립등을 궁기감 앞길에서 사지를 두 수레에 잡아매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로 처형하고 분리된 시신들을 각처로 끌고 다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하며 머리는 장대에 꽂아 3일 동안 시가에 효수해 걸어놓았다. 6월 21일에는 성삼문의 아우인 삼빙(三聘), 삼성(三省), 삼고(三顧)와 성삼문의 아들인 맹첨(孟謙), 맹년(孟年), 맹종(孟宗)



終)이 능지처사되고 부인 연안 김씨와 딸은 운성부원군 박종우의 종이 되었으며 어머니 죽산 박씨는 계림군 이흥상의 종이 되었다. 성삼문이 죽은 뒤 그의 집을 살펴보니 세조가 준 녹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을 뿐아니라 가재도구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방바닥에 거적자리만이 깔려 있었다고 한다.

성삼문이 수레에 실려 형장에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다.

북소리 울리며 명 재촉하니  
 내 목숨은 서쪽 바람에 기울어진 해일세  
 황천 길에는 집이 없으니  
 오늘 밤에는 어디에서 쉬어갈꼬

그리고 성삼문은 형장에서 이런 시조를 남기고 죽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1691년에 이르러 사육신의 절의를 조정에서 공인하여 성삼문의 관작을 추복시켰고 1758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성삼문의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세종대왕 어록**

그런 까닭으로 경중과 외방에 술을 금하는 영을 만들어 상시로 고찰하도록 하였으나, 세력이 있고 교활한 무리들은 농업은 힘쓰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여 보통으로 때지어 마시는 사람들은 교묘히 법망(法網)을 피하여 징계를 당하지 않았는데, 시골 구석의 빈약한 백성들은 봄에 밭갈고 여름에 김매어 몸에 땀이 배고 밤에 흙이 묻어 한 해 동안 근로 신고하다가, 다행히 한가한 날을 만나 겨우 맛있는 술과 푸성귀의 안주를 준비하여 그 노고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죄고에 걸려서 잡혀 와 매를 맞게 되니, 내가 차마 보지 못할 일이다.



●이개(李垲)

이개(李垲 1417 - 1456)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청보(淸甫), 백고(伯高). 호는 백옥헌(白玉軒). 목은 이색의 증손이며 중추원사 이종선의 손자이고 이계주의 아들이다. 청수한 기질과 고결한 품성을 타고나서 옥골선풍으로 칭송되었는데 체질은 옷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섬약하고 얼굴은 미인이 무색할 정도로 잘생겼었다고 한다. 143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자 세종대왕은 그의 가문과 재주를 높이 사 집현전 학사로 발탁했다. 이개는 성삼문, 신숙주, 하위지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고 진관사, 장의사 등 한적한 절에서 독서와 저술등에 전념하며 학문을 연마했다. 1441년에는 집현전 저작랑으로서 박팽년과 함께 명황계감(明皇誠鑑)을 편찬하였다.

세종대왕이 명황계감의 편찬을 명하며 이르기를 “당나라 명황(明皇 : 현종)과 양귀비(楊貴妃)의 일을 그린 자가 펴 많았다. 그러나 희롱하고 구경하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내가 개원(開元 : 현종 2년 - 29년) 과 천보(天寶 : 현종 30년 - 44년)의 성패한 사적을 채집하여 그림을 그려두고 보려한다. 명황은 영주라고 이름 하였었으나 만년에 여색에 빠져 패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처음과 끝의 다름이 이 같은 자가 있지 않았다. 국가를 맡은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편찬하여라.” 하였다.

이개도 안평대군과 친교가 깊어 <몽유도원도>에 친필시를 남겼다. 당대에 제일 맑고 빼어났었다는 그의 시와 글씨를 여기서 볼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지위 맑고 높으면 도가 절로 더 해져  
초연히 세상 밖 신선세계를 꿈속에서 보네  
안개 노을 가득한 골짜기 꽃이 피고 지는데  
대나무 숲 우거져 길은 있는 듯 없는 듯  
단사로 능히 뼈를 바꾼다 어지러이 말하지만  
어찌 대낮에 억지로 병을 걸어 두겠는가.



그림 펴놓고 생각으로 신선세계 노닐어 보나  
 내마음 때끼고 행적은 더욱 거칠에 부끄럽기만 하다.”

수양대군은 단종원년(1453) 10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안평대군에게 모반의 혐의를 씌워 강화도에서 사사케 하였다. 이에 앞서 안평대군과 친교가 깊었던 집현전 학사들을 대거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로 인해 사헌부 집의로 승진된 이개를 비롯한 사간원의 하위지, 성삼문 등이 공론에 밀려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상소에 이름을 빌려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옛 친구인 이개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이개를 집현전 부제학으로 임명한 세조는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4서 5경을 강하게 하고 부제학 이개에게 술을 따라 올리라는 특전을 베푼다.

그러나 단종을 향한 이개의 충성심에는 변화가 없었다. 단종 복위에 실패한 후 국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개는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불로 온몸을 지지는 참혹한 형벌앞에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이까짓 것이 무슨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더 혹독하게 가하라.” 고 외쳐 세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기를 꺾어 놓았다고 한다. 그는 거열형을 당하기 위해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정(禹鼎)처럼 중하게 여길 때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하지만  
 흥모(鴻毛)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것도 오히려 영광이네  
 새벽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  
 현릉(顯陵 : 문종의 능)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

이개는 1691년에 다른 사육신과 함께 신원되고 1758년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 하위지(河緯地)

하위지(河緯地 1412 - 1456)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천장(天章), 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 적촌(赤村)이고 군수를 지낸 하담의 아들이다. 하위지는 1438년 식년시에 장원급제를 하였는데 근정전에서 치러진 회시에서 써낸 대책문이 대간들의 무능을 신랄하고 명쾌하게 지적하는 명문장이어서 조정을 크게 술렁이게 하였다. 이에 세종대왕은 하위지를 파격적으로 종6품인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한다. 하위지는 늘 과묵하고 공손하며 예의가 있어서 대궐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렸고, 비가 와서 길바닥에 비록 물이 고였더라도 그 질편한 길을 피하기 위하여 금지된 길로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세종대왕 시절에 양성한 인재가 문종 때에 이르러 한창 성하여 졌는데 그 당시의 인재를 논할 때는 하위지를 으뜸으로 삼았다. 1439년 10월 25일 하위지는 병이 심하여 고향 선산으로 내려가 요양하려고 사직을 청했다. 이에 세종대왕은 “위지는 내 근신으로 병을 얻어 낫지 않으니 내가 심히 걱정이다. 약과 음식을 내리고 또 벼슬을 더하여 보내려 하는데 어땠겠느냐.”고 승정원에 물었다. 우승지 조서강 등이 답하기를 “상감이 근신을 걱정하고 아끼시는 것은 심히 아름답다 하겠으나 벼슬을 더하는 것은 실로 근거할 바가 없으니 청컨대 사직장을 돌려 주고 그 도 감사에게 연속해서 약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십시오. 만약 온천에서 목욕하고자 한다면 그 감사로 하여금 후하게 공급을 더해 주도록 하는 것이 편할 듯 합니다.” 하니 세종대왕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과 음식을 하사하고 경상감사에게 전지를 내려 하위지를 치료하게 하였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을 이처럼 사랑하였다. 당연히 임금에 향한 하위지의 마음도 간절하였다.

1447년에 올린 상소문의 일부다.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시종의 자리를 더럽히며 지나치게 성은을 입었으니 스스로 보답할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형과 아우의 일로 제게 베푸신 정은 지금이나 예전에 없던 바입니다. 돌아 보건대 무슨 작은 공로라도 있기에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외람되게 입겠습니까. 밤중에 일어나면 눈물이 비 오듯 흘러 내립니다. 상사환난에 당도하면서부터 여러 달이 지나니 대궐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신하의 정성이 아침 저녁으로 더욱 간절하기만 합니다.”

세조가 왕위에 올라 하위지를 예조참판에 임명하였으나 세조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 받은 봉록을 따로 한 방에 쌓아두고 먹지를 앓았다고 한다. 단종복위 모의가 발각되자 하위지의 재주를 아까워한 세조가 은근히 타이르면서 “그 일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하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조가 직접 나와서 죄인들을 세 차례나 단근질을 하였다. 하위지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역적 이름에 올랐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죽음인데 또 물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였다. 세조는 화가 났으나 단근질은 하지 않았다.

성삼문과 같은 날에 거열형을 당하였고 1691년에 복관되었으며 1758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하위지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그의 두 아들 호(琥)와 박(珀)도 연좌되어 죽게 되었다. 작은 아들 박은 그때 스무살이 채 안되었는데 조금도 떠는 기색없이 금부도사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께 작별인사 드릴 시간을 주시오.” 그는 꿇어 앉아서 어머니에게 고하였다.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음을 당했는데 자식이 어찌 혼자 살겠습니까?” 또한 누이 동생을 돌아보며 단단히 일렀다.

“물수되어 노예가 되겠지만 여자의 의리는 마땅히 한 남자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절대 개돼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약을 받아 사람들은 과연 하위지의 자식답다고 말하였다. 하위지의 동생들인 강지, 기지는 문과에 합격하였고 소지는 생원이었는데 모두 함께 죽음을 당했다. 하위지의 아들 박은 뒤에 지평에 증직 되었다.

의기가 투합한 박팽년에게 보낸 하위지의 시조가 한 수 전한다.



남아의 얻고 잃음 예와 지금 같거니  
 머리 위 분명히 밝은 해 비치네  
 도룡이 보내심은 응당 뜻이 있으리니  
 호수 안개 비에 즐겨 서로 찾자함이라.



**세종대왕 어록**

“왕은 말하노라. 근본에 보답하는 데에는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클 것이 없고, 정치를 하는 데에는 효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할 것이 없다. 예전의 법을 상고하여 신민들에게 널리 고하노라.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우리 황비 원경 왕태후께서는 곤도(坤道)를 본받으시고 건도(乾道)에 짝이 되어 깨우치고 경계하시어 서로 돕는 도리가 있으셨고, 간신들에게 사사로이 청탁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지난 무인년에 종통(宗統)이 장차 그릇되려는 때에 우리 황고(皇考)를 도우시어 불세(不世)의 대훈(大勳)을 이루시고, 중궁(中宮)의 자리를 바로하심에 미쳐서는 내치(內治)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하주(河洲)의 정숙하신 덕행을 드러내시고 위애를 계승하시었다. 내가 조그마한 몸으로 큰 기업을 계승하여 바야흐로 사랑의 훈계를 받으려 하였더니, 애통하게도 갑자기 하늘에 오르셨으니, 특별한 칭호를 올리지 않고는 어찌 위대한 공을 밝힐 것이라. 영락 22년 7월 초하룻날에 삼가 백관을 거느리고 옥책(玉冊)을 받들어 존호를 더 올려 창덕 소열 원경 왕태후라 하여, 문장으로 높이는 예식을 갖추어 아름다움을 들려드리는 심정을 펴볼까 하노라. 아아, 옥(玉)을 깎고 금을 이겨[泥金] 이미 바른 칭호를 받들어 책문(冊文)을 올렸으니, 친한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복(福)을 거두어 너희 백성들에게 주려고 기대하는 바이니, 너희 대중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체득하라.”



● 유성원(柳誠源)

유성원(柳誠源 1426 - 1456)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浪干) 한성좌윤 유호(柳許)의 손자이며 의정부 사인 유사근(柳士根)의 아들이다. 144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왔다. 세종대왕의 배려로 1년간 사가독서를 한 뒤 집현전 저작랑으로 의학총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 책의 감수를 맡았던 안평대군은 낭간이란 자신의 별호를 나누어 줄 정도로 유성원에게 호감을 보였다.

당시 집현전 남쪽에는 큰 버드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1450년 흰 까치가 와서 동지를 짓더니 하얀 새끼를 낳았는데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1453년에 죽었다. 어떤 사람이 유성원을 놀리기를 ‘화근은 버드나무로부터 시작될 것’ 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대로 유성원은 화를 당하고 집현전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문종 즉위년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할 시학(侍學)으로 유성원과 이극감이 뽑혔다. 문종이 당부하기를 “이제 그대들을 세자의 시학으로 삼아 세자에게는 붕우의 예절로써 대하도록 할 것이니 그대들도 또한 붕우처럼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기를 펴지 못하여 할말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경서의 의리와 고금의 격언에 있어서는 조용히 부드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깨닫는바가 있도록 하라.” 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성원은 왕세자에게 친구같은 스승이 되어 뒷날 단종이 되는 왕세자와 가장 스스럼없는 사이가 된다.

1453년 5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강권하여 자기를 수종한 사람에게 상을 준일이 있었다. 이에 유성원이 “병요(兵要)·병서(兵書)는 세종께서 이미 찬정하시고 문종께서 손수 덜고 보태셨으며 수양대군도 또한 참여 주장 하였습니다. 신미년(1451)에 이르러 그 초고를 쓴 사람은 모두 가자(加資) 하였는데 수찬(修撰)한 관원은 이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자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면 어찌 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듣건대 수양대군이 세 번씩이나 칭한 뒤에 허락을 얻었다니 대저 입금이 군웅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들로 하여금 밑에서 분주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관작을 상주는 것 하나뿐인데 한번 가볍게



시행하면 잠차 어떻게 아랫사람을 쓰고 제어하겠습니까?” 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1449년 12월 중국의 황제가 바뀌어 사신들이 조칙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 공교롭게 세종대왕과 세자가 모두 봄이 아파 사신을 맞이하는 일이 수양대군에게 맡겨졌다. 유성원과 박팽년이 임금에게 조칙을 맞이하는 중대한 일은 수양대군보다 왕세손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일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넘보게끔 하는 빌미가 되었음직 하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으로 인해 수양대군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정난이 마무리 되면서 조정에서 대신들이 수양대군의 공을 포상하여 주공(周公)에 비유하고 집현전 학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초안하라고 하자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집현전 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있다가 협박을 당하여 정난녹훈의 교서를 기초하고는 집에 돌아와 통곡을 하였으나 집안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종서의 암살을 슬퍼하며 지은 시조가 한 수 전한다.

초당에 일이 없어 거문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렷더니  
문전에 수성어적이 잠든 나를 깨워라

1456년 단종복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주모자들이 속속 붙잡히자 성균관 사예로 있던 유성원은 급히 말을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유성원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혼자 가묘에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부인이 문을 열고 보니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한 뒤였다. 1691년에 복관되었으며 1758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 유응부(兪應孚)

유응부(兪應孚 ? - 1456) 본관은 기계. 자는 신지(信之), 선장(善長). 호는 벽량(碧梁). 유응부는 키가 크고 얼굴에 위엄이 있으며 활을 잘쏘고 용맹스러웠다. 세종대왕과 문종이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데 효도 또한 지극하여 어머니를 위로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언젠가 동생 응신(應信)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으로 가던 중 말 위에서 기러기를 쏘아 땅에 떨어뜨림으로서 어머니를 기쁘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유응부는 1448년에 첨지중추원사가 되었고 경원도호부사, 경원절제사를 거쳐 의주목사가 되었다. 세조가 즉위한 직후에는 동지중추원사로 있었다.

유응부는 1456년 창덕궁 연회장에 별운검으로 나가게 된 것을 기회로 세조를 살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하였다. 때마침 연회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왕의 호위를 위해 세우려던 별운검을 폐하고 세자가 질병으로 경복궁에 머물러 있게 되자 박팽년과 성삼문이 거사를 연기했고 함께 모의했던 김질이 고발함으로서 단종복위를 위한 거사 계획이 탄로나고 말았던 것이다. “권람과 한명회를 죽이는데는 이 주먹이면 족하지 어찌 칼을 쓰겠는가.” 하며 거사의 강행을 주장하던 유응부도 붙잡혀 세조의 국문을 받았다. 유응부가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벌이던 날에 내가 한 자루 칼로써 족하(足下 : 대등한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세조를 가리켜 부른 말)를 죽여 폐위시키고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하였으나 불행히 간사한 놈에게 고발당하였으니 응부는 다시 무슨 일을 하겠소. 족하는 빨리 나를 죽여주오.” 하였다. 분노한 세조가 무사를 시켜 유응부의 살가죽을 벗기게 하고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국문장에서 유응부는 성삼문등을 돌아보며 “지난번 사신을 초청하여 연회하던 날 내가 칼을 쓰자고 하였으나 그대들이 굳이 말리며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의 화를 초래하고야 말았구나. 그대들처럼 피와 수단이 없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하고는 세조에게 “만약 이 사실 밖의 일을 묻고자 한다면 저 쓸모없는 선비들에게 물어보라.” 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세조가 성이 나서 달군 쇠를 가져



와 유응부의 배를 지지게 하니 살이 이글이글 타올랐으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쇠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땅에 집어 던지며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하고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유응부는 지극히 청렴하여 2품의 재상급 관직에 있으면서도 거적으로 방문을 가리웠고 고기없는 밥을 먹었으며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여 처자가 이를 원망할 정도였다. 유응부가 죽던 날에 그 아내가 울면서 길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아서도 남에게 의지함이 없었는데 죽을 때는 큰 화를 입었구나.” 라고 하였다고 한다. 남효온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단종 복위의 주역은 성삼문과 박팽년이고 행동을 담당한 자는 유응부라고 하므로서 이 세사람을 삼주역(三主役)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다른 사육신과 함께 1691년 복관되었고 1758년에 사육신중 유일하게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왕위찬탈의 뜻을 품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충신들을 죽이자 이를 한탄하며 읊은 유응부의 시조가 있다.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 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 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繼



**세종대왕 어록**

“목면(木綿)은 민간에서 긴절히 쓰이는 물건이다. 혹은 베를 짜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옷에 입히는 솜을 만들기도 하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평안도·함길도는 겨울의 추위가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나, 그 인민들이 겨울 추위를 막는 계책에 소홀하여 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지금 종자와 심는 방법을 보내니, 경들이 나의 뜻을 본받아 도내의 각 고을에 나누어 먼저 관가(官家)로 하여금 심어서 토지의 성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대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비록 자기의 생활에 절실히 이익됨이 있더라도, 만약 관가에서 영을 내린다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을 내게 되니, 모름지기 강제로 이를 심지 말게 하라.”



●신숙주(申叔舟)

신숙주(申叔舟 1417 - 1475)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범옹(泛翁), 호는 희현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 공조참판 신장(申樞)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지성주사 정유(鄭有)의 딸이다. 1438년 사마양시에 합격하여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농시 직장이 되었다. 1443년 서장관으로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신숙주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시를 지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신숙주의 시를 보고는 모두 감탄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신숙주의 일본행과 관련하여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숙주가 과거에 응시하러 경복궁으로 갔는데 대궐 문앞에 커다란 괴물이 입을 썩 벌리고 있어서 모든 응시생들이 다 그 입을 통해 들어갔다. 이때 신숙주는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서서 괴물을 쳐다 보았다.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하나가 신숙주의 옷소매를 잡고 “공은 저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을 보았소?”라고 묻고는 “그것은 내가 조화로써 만들어낸 괴물이니 공은 잘 간직하시오.”하였다. “너는 누구냐?” 하고 신숙주가 물으니 “나도 사람ियो. 공이 앞으로 귀한 재상이 될 것을 알고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함께 하려고 하오.” 하고 대답했다.

신숙주는 그 괴물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앉으나 누우나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 괴물은 신숙주의 집안에 일어날 모든 일과 과거의 합격 여부를 신숙주에게 알려주었다. 신숙주가 사신으로 일본에 갈 적에 이 괴물을 시켜서 먼저 뱃길의 깊고 얕음과 거리를 알아 오도록 시켰기 때문에 신숙주는 먼 뱃길을 무사히 다녀 올 수 있었다. 신숙주는 자손들에게 이 괴물에게도 따로 제사를 차려 주라는 유언을 남겼으므로 신숙주의 제삿날에는 반드시 괴물에게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공이 많았고 성삼문과 함께 13차례나 요동을 방문하여 명나라 학자 황찬을 만나 음운을 배우기도 하였다. 1452년 수양대군이 고명사은사로 명나라에 갈 때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동행하였는데 이때부터 신숙주는 수양대군



과 특별하게 맺어졌다. 수양대군은 임금의 뒤  
“환공과 관중, 한 고조와 장량, 당 태종과 위징의 관계는 나와 숙주의 관계와 같  
다.”고 하였다. 정난공신, 좌익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고령군에 봉해졌으며 익대  
공신, 좌리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두 번째 영의정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단종 복위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친구인 성삼문이 인두로 살을 지지는 작  
형을 당하면서 세조 곁에 서있는 신숙주를 보고 “처음에 너와 더불어 집현전에  
있었을 때 세종대왕께서 왼손을 안고 뜨락을 산보하시다가 여러 유신들을 돌아보  
시며 ‘과인이 죽은 다음에 경들이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늘 너는 홀로 그것을 잊었느냐.”고 꾸짖자 신숙주는 대답을 못하  
고 얼굴을 떨구었다고 한다.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신소설 신숙주부인전에 보면 「신숙주의 아내 윤씨는 집현  
전학사들이 잡혀갔다는 하인의 전갈을 듣고 남편을 따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  
는데 오히려 대신이 되어 행차를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자 더럽다고 욕을하고  
침을 뱉은 뒤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한다.」

신숙주의 즐기에는 「타고난 자질이 고매하고 관후하며 활달하였으며 경사에 두  
루 미치고 까다롭거나 자질 구해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의를 결단함에 있어 강하를  
터놓은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 조야가 의지하고 중히 여졌다.」고 되어 있으나 즐  
기 말미에 사신이 논평하기를 「세조를 섬김에는 받들어 순종만 했고 예종조에는  
형정이 공정함을 잃었는데 광구한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 임금의  
특별한 총애가 성하였으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욕을 만났고 죽은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4째아들 신정이 주살되었으니 슬퍼할 진저!」하였다.

**세종대왕 어록**

“근년에 경중과 외방의 사람이 어린애를 길에 버리게 되니, 비록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은 잔인함이 아주 막심한 일이다. 서울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  
금, 지방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이들을 끝까지 찾아 잡도록 하되, 고발해 잡도  
록 한 사람은 특별히 상전(賞典)을 베풀게 하고, 서울과 지방에 널리 효유하여 모  
두 두루 알도록 하라.”



● 김시습(金時習)

김시습(金時習 1435 - 1493)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는 설잠(雪岑). 아버지는 충순위를 지낸 김일성이고 어머니는 선사 장씨이다.

어느날 성균관 사람들이 공자가 반궁리 김일성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김시습이었다. 김시습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글자를 읽고 3세때 글을 지었으며 5세에 중용, 대학을 배워서 신동이라는 소문이 났다.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그 재주를 칭찬하면서 이름을 시습이라고 지어 주었다.

김시습이 3세때 지은 시중의 하나다.

개화(開花)란 이름을 가진 유모가 보리방아를 찧는 광경을 보고

무우뇌성하처동(無雨雷聲何處動) 비는 오지 않는데 우뢰소리 어디서 들리나  
황운편편사방분(黃雲片片四方分) 누런 구름 조각 조각 사방으로 날리네

라고 읊어 그의 천재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김시습의 소문을 들은 세종대왕은 그를 승정원으로 불러 지신사 박이창으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하였다. 박이창이 김시습을 무릎위에 앉히고 여러번 시험하였는데 그때마다 좋은 시를 척척 지어내었다. 세종대왕은 “내가 너를 직접 만나보고 싶지만 사람들의 이목에 놀라움을 줄까 싶어 그만둔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쪼록 재주를 감추고 공부를 힘써하거라. 자라서 학업이 성취되길 기다려 크게 쓰겠노라.” 하였다. 상으로 비단 50필을 받았는데 어른들도 가지고 가기 어려운 무게였다. 그러나 김시습은 비단 끝자락을 잡아매고 그 한쪽 끝을 손에 잡고 끌고 나갔다. 이때부터 김시습은 ‘오세신동(五歲神童)’으로 소문이 났다. 그 뒤 13세까지 이계전, 김반, 윤상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각종 사서와 제자서를 배우고 익혔다. 15세때 어머니를 여의고 20세에 훈련원 도정을 지낸 남효례의 딸과 결혼하였다. 삼각산 중흥사에서 글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이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자 3



일동안 통곡하다 읽던 책을 불태운 뒤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김시습은 작은 키에 호기가 넘치고 예의 따위는 전혀 처리지 않는 성품으로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못견뎌하며 전국을 방랑하였다. 비오는 밤이면 흰종이 100여 장을 꺼내어 물가에 앉아 혼자 읊조리면서 시를 쓴 다음엔 물에 던지기를 종이 다 할 때까지 하였다. 달밝은 밤이면 청초한 목소리로 이소경(離騷經)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곤 하였다. 술을 몹시 좋아하여 취하도록 마신 뒤에는 “우리 영릉(英陵:세종대왕의 능호)을 다시는 못 밟는구나.”라고 한탄하며 슬피울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당부와 어머니의 기대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로 말미암아 좌절되자 온몸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노년에 자신을 돌아보며 쓴 회한이 담긴 시들중의 한수 이다.

어머님 어머님 훌륭하신 우리어머님  
알뜰살뜰 삼천방(三遷坊)에서 기르셨지요.  
제게 문선왕(文宣王: 공자)을 배우도록 하신 뜻은  
경술로서 요순세상 만들길 기대하셨다네  
어찌 알았으리오  
유학의 도 세상과 어긋나서  
이몸 10년동안 관산길에 해떨 것을

김시습은 1493년 59세를 일기로 충청도 무량사에서 죽었다. 한문 소설의 <금오신화> 시집과 문집을 모은 <매월당집> 이 전한다. 정조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청간(淸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세종대왕 어록**

“요사이 비가 시기를 어기고 있으니, 형벌이 적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지 못함이 있나 염려되니, 그 상사(常赦)로서 원면하지 못할 죄 이외의 도죄 이하 및 충군(充軍)·부처(付處)·정역(定役)한 사람으로서 본범(本犯)이 도죄(徒罪) 이하인 자는 모두 다 용서해서 죄를 면하게 하라.”



● 장영실(蔣英實)

우리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세종대왕의 시대를 지목할 것이다. 세종시대는 실로 방대한 과학사업이 행하여 졌다. 당시의 과학이란 천문학과 역학이 주류다.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천문학과 역학은 4계절을 정하고 1년간 할 일을 규정하는 사업으로써 임금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 인식 되었기에 임금이 마땅히 관심을 갖고 익혀서 실천해야할 ‘제왕의 학문’이었다. 이 과학 기술의 황금기에 장영실이 있었다.

장영실(蔣英實 : 출생년대와 사망연대 미상) 중국계 귀화인과 기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아산(牙山). 실록에는 「행사직(行司直) 장영실은 그 아버지가 본래 원나라의 소항주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라고 기록되어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아산의 명신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던 까닭에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 무렵 장영실은 자신의 타고난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으나 조금도 서운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며 틈만 있으면 무엇이든 자세히 관찰하고 그 원리를 밝혀내는데 열중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도르래를 달아서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게 하거나 창고에 쌓인 창 칼 등 병기를 손봐서 다시 쓸 수 있게 했다. 또 마을의 물이 부족하자 10리 밖에서 나무 흠통으로 강물을 끌어 들였고 성을 쌓거나 농기구를 개량하는 일에 솜씨를 발휘했다.

항상 널리 인재를 찾고 있던 세종대왕은 그를 중국으로 보내 천문기기에 관해 연구하도록 하였다. 천민이었던 장영실을 배려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씀이 실록에 나타나 있다.

“장영실의 공묘한 솜씨가 보통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임인·계묘년 무렵에 상의원 별좌를 시키고자 하여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



할수 없다.’ 하고 말생은 ‘이런 무리는 상의원에 더욱 적합하다.’ 고 하여 두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꺾이 하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한즉 유정현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 고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라서 별좌에 임명하였었다. 장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에 뛰어나서 매양 감무할 때에는 나의 곁에 가까이 모시어서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공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마는 만약 이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암만해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원나라 순제(順帝)때에 저절로 치는 물시계가 있었다 하나 그러나 만듭새의 정교함이 아마도 영실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물을 능히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護軍)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호군이 된 장영실은 간의와 혼천의를 완성하였고 1434년 10월에는 자격루를 만들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불러서 “요 몇 년동안 가뭄과 홍수로 농사일을 망치었다.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자면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날부터 장영실은 앓으나 서나 비를 재는 기계생각에 골몰하던 중 우연히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마당에 구덩이를 패이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측우기를 고안했다. 장영실이 만든 측우기는 주철 또는 청동으로 만든 원통형의 본체와 돌로 만든 측우대, 고인물의 깊이를 재기 위한 자등 3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이탈리아의 카스텔리가 만든 우량계보다 197년이 나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장영실은 앙부일구, 규표, 옥루, 갑인자등 수많은 과학기기들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이런 공을 치하하여 대호군이란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장영실은 1442년 그가 감독하여 제작된 임금의 가마가 부러지고 허물어지자 불경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었고 장형을 받은 뒤 벼슬에서 쫓겨나 외로운 생애를 보내다 죽었다.



● 박연(朴堧)

「임금은 나라를 평정한 뒤에는 음악을 제정하고 백성을 편히 살게한 뒤에는 예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공적이 커지면 악(樂)을 갖추게 되고 군왕의 다스림이 백성들을 골고루 편안하게 하며 예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예악론이다. 이런 세종대왕의 음악사상을 뒷받침한 사람이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으로 추앙 받는 박연이다.

박연(朴堧 1378 -1 458) 조선초기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초명은 연(然), 자는 탄부(坦夫). 호는 난계(蘭溪)다. 아버지는 삼사좌윤을 지내고 이조판성 증직된 박천석이고 어머니는 통례부사 김오의 딸이다. 박연은 어려서부터 기질이 남다른 듯 뛰어났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하는 일이 성인과 다름이 없었고 침착하고 사려깊게 처신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는데 21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으나 애통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 다시 어머니 무덤가에서 3년을 지냈다. 그가 시묘살이 하는동안 호랑이가 줄곧 호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기에 조정에서는 효자정문을 세워주었다.

2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교리가 되었다. 사간원 정원, 사헌부지평, 세자시강원 문학, 예문관대제학, 판중추원사등의 벼슬을 했으나 박연의 진가는 음악분야에서 발휘되었다. 그의 음악적 천재성을 알려주는 일화가 용재총화에 실려있다.

「대제학 박연이 어렸을 적 향교에서 수업할 때 이웃에 피리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학이 독서하는 틈에 곁하여 피리를 익히니 일향에서 모두 뛰어난 솜씨라 인정하였다. 제학이 과거보러 서울에 왔다가 이원의 피리잘부는 광대를 보고 그 교정을 청하니 그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소리와 가락이 상스럽고 절주에도 맞지 않으며 옛 버릇이 굳어져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하니 제학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가르침을 받겠나이다.”하고 날마다 다니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며



칠만에 들어보고서 “선배는 가르칠만 합니다”하고 또 며칠 만에 들어 보고는 “규범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장차 대성할 수 있겠습니다.”하더니 또 며칠 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조 초기에는 고려의 음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고려시대의 곡조에 가사만 달리 붙여서 불렀다. 그러던 것이 세종대에 이르러 아악이 정비되었는데 이때 박연이 기여한 바가 크다. 박연의 업적은 악서편찬, 율관제작, 조희아악 제정, 회례아악 제정, 제향아악 제정 등이다. 특히 박연에 의해 정비된 제향아악은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

세종대왕이 박연이 만든 편경소리를 듣고는 이칙(夷則) 1매가 그소리가 약간 높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박연의 음감도 이에 못지않음을 증명하는 일화가 있다. 세종대왕이 일찍이 석경을 만들고 박연을 불러 교정하게 하였는데 박연이 “어느 음률은 일분이 높고 어느 음률은 일분이 낮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세종대왕이 음률이 높은 석경에서 일분의 찌꺼기를 떼어내고 낮은 석경에서는 일분의 찌꺼기를 붙이게 하였다. 이에 박연이 “이제 음률이 바르게 되었습니다.”하니 사람들이 다 그의 신묘함에 탄복하였다 한다.

박연의 3남 4녀중 막내아들 계우(季愾)가 사육신들의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다. 박연도 화를 입을 뻔 했으나 3임금에 걸쳐 봉직한 공으로 벼슬이 파면되는 것에 그쳤다. 박연이 나향할 때에 친한 벗들이 한강 위에서 전별하였는데 이별의 술잔을 주고 받던 박연이 전대에서 피리를 꺼내어 세번 불고 떠나니 듣는 이가 모두 쓸쓸한 느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박연의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영조때 담와(淡窩) 홍계희의 난계시장(蘭溪謚狀)이다.

「어린나이에 문사가 윤택히 성장했고 개연히 예악에 뜻이있어 널리 전해오는 문적을 구했고 의식을 강론하고 토구 하기도 했다. 더욱 종률에 정통해서 어릴적부터 항상 앓으나 누우나 가슴속에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고 입술로는 곡조에 맞춰 휘파람을 불었으니 대개 스스로 체득한 묘방이 있었던 것이다.」



●이천(李戡)

출장입상(出將入相)의 명신. 이천을 두고 정조때의 학자 조병집은 이렇게 칭송하였다.

「세종시대 돌아보니 하늘이 도우시어 어진 임금 내려 주셨네. 자나깨나 항상 어진 신하 생각하고 준수한 사람높여 등용할제 진실로 문무를 겸전한 분은 익양공(翼襄公 : 이천의 시호)만이 있었네. 활자를 주조하고 천체를 관측함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되고 성군을 몸받아 훈민정음 보급하니 문교가 크게 펼치었네. 장부(長缶 : 질화로 같이 생긴 타악기)를 처음 만들어 아악, 속악의 음률을 조절하고 흙경각 사신(司農)이 시간 알리고 옥루(玉漏 : 자동 물시계)가 저절로 종을 치니 생각이 모아지고 연구가 성취하여 신공이 밝게 나타났네. 어진 임금 다스리는 조정의 의물(儀物)은 모두 공이 재량하였고 어리석은 저 아인들이 난리를 일으켜 제멋대로 날뛰니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공에게 한 지방을 위임 하였네. 모든 계책 남김없이 다 하니 흉악한 무리들 도망하여 자취감추었고, 말굽편자 줍으로 대응하니 말가는길 튼튼하였네. 적의 소굴 뒤엎어 무찔러서 적의 괴수 섬멸하니 도망하였고 국토를 개척하여 경계 정하고 우리나라 무위를 드날려 개선하여 돌아보니 공훈 사책(史冊)에 새기었네.」

이천(李戡 1376 - 1451) 본관은 예안(禮安). 초명은 길(佺), 자는 자현(子見). 호는 백곡(栢谷) 또는 불곡(佛谷). 아버지는 군부관서 이송(李竦)이고 어머니는 곡성 염씨로 영문하부사 염제신의 딸이다. 13세 때에 외숙인 염흥방이 임견미등과 권세를 빙자하여 전횡을 일삼다가 우왕, 최영, 이성계등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천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 연좌되어 가족이 적몰되었는데 다행히 이천과 그의 동생 이온은 이름모를 스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다.

1393년 별장에 임명되었고 1402년에 무과에 급제 하였으며 1410년 무과증시에 합격하였다. 세종대왕이 공칭이나 사가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정확하지 않아 이천에게 제조하게 하였는데 아주 정확했으므로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였다는 기록과 태종임금의 장례때 임금의 관을 운반하기 위해 이천



이 사륜차를 만들었는데 앞은 낮고 뒤는 높게하여 산으로 오를 때 평지에 있는 것 같이 수평을 유지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천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세종 2년인 1420년에 청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14년뒤에 갑인자(甲寅字)를 완성하였고 서운관에서 정초, 장영실과 더불어 간의, 앙부일구, 규표, 혼천의 등을 제작하였다. 평안도 도절제사 시절엔 당시로선 가장 큰 포인 완구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다른 배에 비해 가볍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병선을 개발하였고 악기도감의 제조가 되어 박연과 함께 금, 슬, 아쟁 등 많은 악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천은 세종대왕이 승하하자 산릉의 역사를 관장하였고 그후 관중추원사로서 예에 의해 궤장을 하사 받았다. 76세를 일기로 이천이 죽자 익양(翼襄)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익(翼)은 사려가 깊고 먼 것을 이르고 양(襄)은 갑주의 공로가 있음을 뜻한다.

**세종대왕 어록**

내가 공법의 편부(便否)를 시험하려고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한 것이 이미 여러 해 되었으나, 내가 깊이 궁궐 속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알지 못하니, 어찌 공법과 손실의 편부를 살펴서 하나로 정하겠는가. 민간에 물어서 백성이 바라는 것으로 가부를 살피고자 하나, 서민(庶民)의 마음이 무상(無常)하여서, 한 사람이 가하다고 하면 다 가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역시 옳지 않다고 말하여, 바람에 타고 따라가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 내가 이미 실험하여 알고 있는 것이다. 감사와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무이니, 이 법의 편부를 자세하게 갖추 알 수 있을 것이요, 서민(庶民)들의 원하는 바를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일치하지 못한 말에서 지당한 하나의 결론을 듣고자 하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서, 그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이순지(李純之)

지금으로부터 570여년전 한양의 위도가 얼마냐고 묻는 세종대왕의 질문에 서슴 없이 38도 가량 된다고 말한 젊은 학자가 있었다. 그가 이순지다.

이순지(李純之 1406 - 1465) 본관은 양성(陽城). 자는 성보(誠甫). 아버지는 병조 판서 이맹상이고 어머니는 문화 유씨다. 서울의 위도는 북위 37.5도다. 당시에는 원의 각도를 360도로 보지않고 태양이 하루동안 움직인 각도를 1도로하고 1년이 365일과 4분의 1이므로 원의 각도를 365.25도로 보았다. 이 방법으로 환산하면 서울의 위도는 38도가 조금 넘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순지의 대답이 정확했던 것이다. 세종대왕과의 이런 문답은 이순지로 하여금 천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순지는 1427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교리, 봉상시판관, 서운관판사, 승정원 좌부승지 등을 거쳐 1465년 관중추원사에 올랐다.

이순지가 봉상시판관으로 있을 때 어머니 상을 당했다. 실록에 보면 “봉상판관 이순지가 상시로 간의대에 근무하여 천문을 측후했는데 지금 어머니 상사를 만났으니 여러사람이 이순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라. 만약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마땅히 기복시켜 임명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생각하기는 대체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기복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 내가 간의에 뜻을 두는 것이 지극하니 간의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세종대왕이 천문학에 쏟는 정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이로부터 4개월 뒤에 세종대왕은 이례적으로 이순지를 종5품직에서 정4품 호군으로 임명하고 이순지의 아버지 이맹상에게 “아들 순지로 하여금 벼슬에 나아가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에 이순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어머니의 묘를 지키기로 생전에 약속을 했고 7년여동안 천문역법에 종사하였으나 뚜렷이 이론 것이 없으며, 게다가 귀와 눈이 아파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년상을 지내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대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만큼 천문학의 정립이 시급했고 또한 이순지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임금의 자상한 배려로 천문학에 더욱 몰두한 이순지는 칠정산외편(七政算外編), 천문유초(天文類抄), 제가역상집(諸家曆象



集), 교식추보법(交食推步法)을 펴냄으로서 역법을 정비하였고 천문학의 이론체계를 세웠다. 1445년 4권으로 된 제가역상집이 만들어졌는데 이순지는 발문에서 “제왕의 정치는 천문으로 때를 맞추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일관들이 그 방법에 소홀하게 된지가 오래인지라 1433년 가을에 우리 전하께서 거룩하신 생각으로 모든 의상(儀象)과 구루(咎漏)의 기계며 천문과 역법의 책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모두 극히 정묘하고 치밀하시었다. …(중략) 그래도 오히려 미진해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천문, 역법, 의상, 구루에 관한 글이 여러 전기에 섞여 나온 것들을 찾아내서 중복된 것은 깎고 긴요한 것을 취하여 부분을 나누어 한데 모아서 1질이 되게 만들어서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이 책에 의하여 이치를 연구하여 보면 생각보다 얻음이 많을 것이며 더욱이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힘쓰시는 정사가 극치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하고 적어 놓아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 이순지가 지은 천문유초는 조선시대 천문학의 기본 참고서가 되는 책인데 당시 사람들의 천문에 관한 낭만적인 생각들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 별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별찌는 별뿔별을 이른다. “별찌는 하늘나라의 사신이다. 별이 큰 것은 큰 사신이고 작은 것은 작은 사신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빠른 시간을 나타내고 더딘 것은 더딘 미래를 예언한다. 크긴 하지만 빛이 없는 것은 보통사람의 일을 나타내고 작고 빛이 있는 것은 귀인의 일을 나타낸다. 크고 빛이 밝은 것은 귀한 사람과 보통사람 모두를 나타낸다. 작은 별찌가 수백이 사방으로 행하면 백성들이 유리걸식을 하게된다.”

이순지는 세조 11년 6월 11일에 죽었다. 시호는 정평(靖平)이라 하였다.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드문 것이 정(靖)이요 집사에 절제가 있는 것이 평(平)이다.

編

**세종대왕 어록**

“사사로이 진상(進上)하는 것을 금지한 뜻은 먼 지방 먼 길에 내왕하는 번쾌가 될까 염려되고, 혹은 시정아치들의 값을 요구하는 폐단도 막으려 함이었는데, 그 사이에 혹은 신하들이나 혹은 궁궐 가까이 사는 양민들이 먹음직한 것이 한 가지나 생기면 진상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으니, 가령 상민(常民)의 경우에 있어서 그 뜻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하는 본의가 아니니, 지금부터는 경들이 이 뜻을 알아서 적당히 하라.”



● 정초(鄭招)

정초(鄭招 ? - 1434)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열지(悅之). 사헌집의 정희의 둘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한번 보면 외우고 붓을 들면 문장을 이루었다. 하루는 스님이 와서 금강경을 염불하는데 정초가 스님에게 “나도 그 불경을 외우겠다.”고 하니 스님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능히 외운다면 내가 성찬(盛饌)을 내겠으며 외우지 못하면 그대가 성찬을 내시오.”하였는데 정초가 목탁을 치며 물 흐르듯 틀림없이 외우니 스님이 합장하고 절하였다고 한다. 과거 날짜가 임박했는데도 날마다 놀기만 하더니 어느날 육경(역경, 시경, 서경, 춘추, 주례, 예기)을 펼쳐놓고 한번보고는 다시 읽지 않았는데 강론에 입하여 그 오묘한 뜻을 모두 설명하고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총명함은 <용재총화>에도 실려있다.

「정초가 좌군 총제로 있을 때 수백명의 군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보고 이름을 묻고는 그후로 그 많은 군사들의 이름을 틀림없이 부르고 일을 사키니 모두 감탄하였다.」

1405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검열이 되었고 1407년 증시에 합격하여 좌정언이 되었다. 1423년 함길도 관찰사로 나갈 때 세종대왕이 불러서 말하였다. “6년을 시종 하였으니 내 어찌 하루인들 좌우에서 떠나게 하고자 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외방을 중히 여김은 경도 아는 바이니 임지에 가거든 모든 일을 삼가하여 처리하라.”

1492년 집현전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청백리에 녹선되기도 하였던 정초는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고 <간의대>를 제작 하였으며 <농사직설>, <회례문무약장>, <삼강행실도>등을 편찬하였다.

1430년 공조판서를 지냈고 1433년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다가 1434년 병으로 죽었다. 조정에서는 2일간 조회를 정회하고 세종대왕은 친히 제문과 부의를 내리는 한편 예조에 명하여 치제토록 하고 친구 아악으로 주악케 하였다. 아울러 동궁에서



도 쌀과 콩 각 20석을 부의로 내렸다. 일찍이 정초가 세자 좌빈객으로 세자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부지런히 배우고 글을 좋아 함이 문(文)이요 의에 의하여 절제함이 경(景)이다.

그의 즐기에 보면

「정초는 천성이 총명하고 영매함이 보통 사람 보다 뛰어났고 종사에 널리 통한 데다가 겸하여 관리의 재질이 있어 대체로 국가의 의제에 많이 참여하여 정한 바 있으며 역산, 복서에도 모두 통달하였다.」

라고 적혀있다.

**세종대왕 어록**

“형(刑)으로 다스림을 돕고 율로 형을 결정하는 것은 고금의 뿔뿔한 법이다. 비록 그러하나 율문에 기재된 것은 한도가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한정이 없다. 이따므로 형서(刑書)에, ‘율에 바로 들어맞는 조목이 없으면 이에 가까운 율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는 문귀가 있다. 형이란 진실로 성현도 조심하는 바라, 율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호리(濇)만한 간격도 더욱 정상을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중한 법을 적용하니, 내 심히 딱하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실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경한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정이 중한 편에 가까운 것이면 아무쪼록 법에 알맞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 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며, 또 ‘너의 말은 옥사(獄事)에 조심하여 나의 왕국을 장구하게 하라.’ 하였으니,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며, 형조에서는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 노중례(盧重禮)

노중례(盧重禮 ? - 1452) 세종시대의 의관으로서 의학과 의술에 뛰어났으며 특히 부인병 치료에 능했다. 1423년 명나라에가서 우리나라 고유의 약재인 향약 62종의 약효를 분석해 왔으며 1430년에는 명나라 의원들에게 우리나라 약초 20여가지의 진가를 의뢰하여 그중 10가지를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1431년 유효통, 박운덕 등과 함께 <향약채취월령>을 편찬하여 한글로 표기된 식물의 이름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433년 <향약집성방> 85권을 편찬 하였고 이듬해 3월 관전의감사로서 <태산요록>2권을 편찬하였다. 태산요록은 임신과 출산 및 어린아이의 질병치료에 관한 전문의서이다. 1445년 4월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고 그 해 10월에 <의방유취>가 편집될 때 감수를 맡았다. 3년에 걸쳐 만들어진 의방유취는 153종의 문헌을 참고한 당시 한의학의 대백과전서로서 우리나라 의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노중례는 한 때 치료를 잘못하여 강등되기도 했지만 곧 복직되었고 왕비, 대군, 대신들의 진료에 공이 많아 여러번 상을 받았다. 문종 2년 상호군으로 봉직하다가 죽었으며 세조 1년 12월에 좌익원종공신 1등과 첨지중추로 추서되었다.

이렇듯 의술에 뛰어났던 노중례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아 임금의 비밀스런 가족 문제에도 관여 하였다.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아내 남(南)씨는 나이가 12세가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안정(眼精)이 바르지 못하여 혀가 심히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 있기에 병이 있는줄 의심하였으나 감히 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가 달포나 되었다. 근일에 자세히 보니 인중에 땀을 뽀 흔적이 있고 또 머리와 이마 위에도 뽀 것이 있기에 의원 노중례로 하여금 비밀이 남씨 집에 출입하는 의원 김사지(金四知)에게 묻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릴 때의 미친 병이 생겨 화염종의 증 을유(乙乳)가 치료하였다.’ 하고 의산군(宜山君)집의 여종으로 효령대군 집에 출입하는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남씨는 본디 미친병이 있는데 다행이 운수가 좋아서 대군의 배필이 되었다하고 정충경(鄭忠卿)의 집에 드나드는 무당이 남씨의 집에도 드나드는데 말하기를 ‘남씨가 아이 때에 미친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방으로 치료하여 오늘까지 연명하였다.’ 고 하였다. 내가 듣고 오히려 믿지 못하여 날마다 눈 앞에서 두고 보았더니 행동이 방자하여 떳떳함이 없으므로 좌우에서 웃었으나 조금도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소문과 같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악한 병이 있으면 버리고 부모에게 불순하면 버린다.’ 고 하였으나 동궁이 아내를 버렸는데 또 임영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개 여자는 서른살부터 쇠하기 시작한다. 광무(光武)가 투기하는 이유로 황후를 폐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어찌 투기한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임금은 위에서 표준이 되어 일언 일동을 백성이 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아내를 내어 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서 방지하는 것인데 아랫사람을 책하기에는 밝고 자기의 잘못에 어두우면 사람들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중궁이 말하기를 ‘어진 아내를 얻어 살게 하면 되지 하필 버릴 것이냐.’ 고 하니 이 말이 또한 그럴 듯 한데 어떻게 할까 잘 의논하여 아뢰라 .」

노중례가 죽자 문종 임금이 쌀 콩과 관곽을 부의로 내렸으며 실록에 기록하기를 「노중례는 의원을 직업으로 삼아 의술(醫術)에 정통하여 근세(近世)의 의원으로서는 그에 비할 이가 드물었다. 성품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내의(內醫)가 된지 수십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신(敬愼)하였으며 두 임금에게 은혜를 받아 상사(賞賜)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약을 물으면 반드시 곡진하게 가르쳐 주면서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세상의 의원은 대개 미천한데서 일어나서 관질(官秩)이 겨우 높아지면 지기(志氣)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비록 사대부 집안에서 초청하더라도 반드시 난처(難處)한 기색을 보이며 또한 높은 값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노중례를 어질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였다.

**세종대왕 어록**

“정조(正祖)와 동지(冬至)와 생신(生辰)에 진상하는 예물(禮物)은, 이것이 비록 내려오는 전례(典禮)이지마는, 이제 흉년을 당하여 예물(禮物)을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폐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이를 폐지하라.”



## ●이인손(李仁孫)

세종대왕의 능이 여주로 천장되므로해서 묘를 옮겨야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의 한사람이 이인손이다. 이인손의 묘는 영릉의 좌청룡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인손(李仁孫 1395년 - 1463년)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운(仲胤), 호는 풍애(楓厓).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손자이며 참의를 지낸 지직(之直)의 아들이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학문을 좋아하였던 이인손은 1411년 (태종1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세종조에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형조좌랑, 예조참의,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한성부윤등을 거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자 호조판서가 되었다. 1455년 세조 즉위시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을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충희(忠僖).

실록에 기록하기를 이인손은 성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강하고 과감하여 관가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경계하고 삼갔으며 담백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은 좋아하지 않았으며 한가할 때 전고(典故)를 익히고 일에 임하면 결단력이 있었다 한다. 슬하에 다섯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올랐다.

이극돈은 무오사화때 무고한 사림들을 죽게한 죄로 관직과 시호를 추탈당했다. 이극균(李克均 1437년 - 1504년 좌의정)이 그들이다. 여주에는 영릉과 이인손의 묘에 얽힌 오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인손이 죽자 좋은 자리를 골라 묘를 쓰게 되었다. 이때 산소자리를 잡아준 지관이 여기에 묘를 쓰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분을 만들지 말것이며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이 불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하자 이인손의 후손들은 지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성분(成墳)을 하고 비석을 세웠다. 당시 조정에서는 영릉 천장론이 대두되어 각처에 지관을 풀어 명당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한 지관이 명당을 찾아 능서면 왕대리에 오게 되었다. 때는 삼복 더위중이라 갑자기 천둥이 치고 사방이 어둑해지면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지관은 샷갓속에서 젖은 옷 걱정을 하며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소나기는 지나가고 주위가 밝아지자 건너편에 1기



의 분묘가 바라다 보였다. 무심결에 분묘를 바라보는 순간 지관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몇 달을 두고 찾아 해매던 명당자리였던 것이다. 주변산세와 지맥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보니 앞에는 북성산이 신하부복형(山下俯伏形)의 모습으로 엮여 있어 있고 작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있는 것이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이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의 대명당자리였던 것이다. 이에 지관은 지도에다 명당의 위치와 방위를 표시한 다음 쓴살같이 대궐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 대모산(大母山 ;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세종대왕릉이 옮겨지게 되었다. 한편 이인손의 후손들은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니 성분입비(成墳立碑)하지 말라던 지관의 말을 뒤늦게 생각해 내고 후회하며 이인손의 산소를 헤치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들어있는 비기(秘記)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연(燕)을 날리어 연이 떨어진 자리에 이장하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비기에 적혀있는 대로 연을 높이 날리어 연줄을 끊으니 연은 바람을 타고 너울너울 날아가 연주리에 떨어졌다. 후손들은 연이 떨어진 북성산 기슭 아늑한 곳에 이인손의 묘를 이장했다.

연주리(涓住里)는 지금의 능서면 신지1리의 옛 이름이다.



**세종대왕 어록**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고서, 백성에게 가까운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척(黜陟)하는 법식을 거듭 엄하게 하여, 이에 사헌부에 명하여 풍문(風聞)으로 규탄하게 하고, 관할 구역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은 존비의 명분에 어긋남이 있음을 중하게 여겨, 금령을 만들어 수재(守宰)를 존중하였지 마는, 그러나, 사경(四境)이 넓고 주(州)·군(郡)이 많으므로, 또한 어찌 잔인 혹독한 관리가 법을 믿고 위엄을 세워 백성을 해치는 일이 없겠는가. 지금 때때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주·군을 순찰해 다니게 하면서 수령의 탐오(貪汚)하고 혹형(酷刑)하는 일과, 민간의 기한(飢寒)과 곤고(困苦)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풍문으로 계달(啓達)하게 하여, 만약에 그 실상을 알게 된다면 법으로써 엄격히 징계하겠다.’

# 세종대왕을 그리며



〈석봉 조무호 작〉

촉우기도

여

백

# 세종대왕을 그리며

## ●세종대왕 신도비문

요가 단주를 버리고 순에게 선위 하였는데 순은 중화의 덕이 있음에 요의 인이 더욱 오래 갔고 문왕은 백읍고를 버리고 무왕을 세움에 비승한 공이 있어 주 나라의 업이 더욱 창성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당우(요순)는 선위하고 하(夏), 은(殷), 주(周)는 자손이 있었으나 그 뜻은 한가지라」 함은 사심이 없음을 말함이다. 우리 태종이 선위하심은 그 요와 문왕의 마음이시며 우리 세종의 선위를 받으심은 순임금과 무왕의 덕이 있으심이다. 태종이 재위하였을 때 일찍 원자 제(양녕대군)를 세워 세자로 삼고 어진 사우를 가려서 교양의 방법을 극진히 하였으나 세자의 마음이 어려 학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덕이 나아가지 아니함에 태종이 매우 근심스럽게 여겼다.

영락무술(1418) 6월에 세자가 덕을 잃음이 매우 심하게 되자 태종께서 맞손자를 세워 후사로 삼고자 하였더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세자를 교양하오에 모든 방법을 다 하였건만 오히려 이와같이 되었사오니 이제 어린 손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어찌 타일에 그가 현명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나이까? 하물며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심은 의뢰에 있어서는 어떠하옵는지요? 어진 이를 가려 사로 삼은 만 못할까 하옵니다」하였다. 이때에 세종은 세자의 동모제로서 서열이 세 번째이고 일찍이 충녕대군에 봉했었다. 태종이 이르기를 「충녕이 여러 아들 가운데서 가장 어지니 세자로 세움이 옳겠다」하고 세자를 삼으니 종친들과 문무백관이 절하여 하례하고 온 백성이 만족히 여겨 칭송하였다. 드디어 천자에게 상주하니 천자가 칙서를 보내 이르기를 적을 세우는데 말이로 세우는 것은 고금에 바꿀 수 없는 상도이다. 그러나 말이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나라의 성쇠존망이 매인 것이다. 왕은 나라의 먼 앞날을 생각하고 성쇠존망의 기미를 밝게보고 어진 자를 세워 사를 삼고자 하니 왕의 선택함을 허락하노라 하였다.」 그해 8월에 태종은 세종에게 선위하고 사신을 보내어 책명을 청했다. 11월에 세종이 책보를 받들어



태종에게 성덕신공상왕이라고 존호를 올렸다. 다음해 기해년(1419) 봄 정월에 천자가 홍로사승 유천을 보내 세종을 봉하여 왕을 삼았다. 6월에 천자가 태종에게 조칙을 내리기를 「이번에 제 3자가 효제하고 학문에 힘써 종사를 이룰만하다고 하고 또 스스로 연고함으로 전위할 것을 청하니 짐이 왕의 식견이 명달함을 생각하여 특히 소청을 허락한다. 대체로 세계를 있는 데는 후사가 있어야 하고 위를 전하는 사람을 얻음에 있는 것이다. 이제 왕은 어진 이를 가리고 덕있는 이를 명하여 종사로 하여금 의탁할 데가 있게하여 나라 백성의 소망에 맞게하니 진실로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여 왕에게 연향을 내리는 것이니 왕 한 집의 경사가 아니라 왕의 나라에 경사인 것이다」하고 또 세종에게 칙서를 내려 충효의 도로써 천명하며 연향을 내려 주었다. 8월에 사신이 나라에 이르매 두 임금의 경복궁 근정전에서 잔치를 받으니 예악의 성대함이 온 나라를 용동시켰다. 일찍이 원경왕 후께서 홍무 정축년(1397) 4월 10일 임진일에 세종을 한양 잠저에서 낳으셨는데 세 살되었던 때 왕후의 꿈에 태종께서 세종을 안고 해 가운데 앉아 계셨다. 얼마 안되어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세종께서 궁중에 계실적부터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다. 침묵하고 말이 적어 길고 먼 모습이 있었으며 대기에 오름에 미쳐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서물의 우두머리로 성인이시고 관유하고 온유함은 백성을 용납하고 대중을 기르는 덕이요 물건을 제작 함에는 홀로 지혜를 내시며 발강강의한 잡음이 있으시고 위외는 두려워 할만하고 본 받을만 하여 제장중정의 공격함이 있으시고 정의는 신에 들어 문리밀찰하는 분별이 있으셨다. 날마다 새벽에 북이 네 번째 울리면 옷을 찾으시고 아침 일찍 조회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일을 보시고 다음 윤대하시고 경연에 납시었다가 안으로 드셔도 글을 보시며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시니 정사가 행하여지지 않음이 없으시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으셨다. 태종께서 이미 왕위를 전하심에 스스로 나라를 부탁할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산수의 취미를 즐겨 자주 교외에 나가 놀 때 저절로 유쾌하셨다.

가끔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밝은 임금을 얻어 국정을 맡겼으니 근심없기를 천하에 나와 같은 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대체로 그 근심함이 길었던 까닭으로



그 기뻐함이 이와 같았다. 겨울 10월에 중외 사찰의 노비를 혁파하여 모두 관에다 돌리고 얼마 안되어 오교를 파하고 다만 선·교의 양종만을 남겨두었다. 이에 이단의 교를 물리쳐 시원스럽게 하였다. 경자년(1420) 봄에 비로소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학의 선비를 뽑아 모아서 고문에 대비하였다. 이해 여름 원경왕후께서 병이 들어 밖으로 피기 하였는데 연을 부족하여 도보하고 노숙도 하며 약을 받아 항상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7월에 왕후가 돌아가시니 미음도 드시지 않으셨다. 태종께서 억지로 권하니 조금 들었다. 신축년(1421) 8월에 천자가 북정을 하든데 말 일만필을 바치니 천자가 가상히 여겨 포장하고 은폐를 내렸다. 9월에 태종에게 태상왕의 호를 올리고 임인년(1422) 5월에 태종이 돌아가시니 3년 동안 최복을 입으시고 정무를 보았으며 정하여 영세의 법으로 삼았다. 태종문황제가 가고 인종소황제가 등극함에 표문을 받들어 위로하고 하례함에 예절을 다하였다. 천자가 기뻐하여 충성이 지극하다고 포장하고 채색 폐백을 내려주었다. 을사년(1425)에 인종(명나라)이 돌아가고 선종황제가 등극하시자 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하례하였다. 선덕 병오년(1426) 봄에 천자가 지성을 칭찬하여 폐백을 내렸는데 왕비에게까지 미쳤다. 이해 겨울에 또 오경, 사서, 성리대전, 통감강목 등 서적을 내려 주었다. 이로부터 상으로 보내는 것이 어느 해나 이르지 않는 해가 없었다. 나중에 황제가 차고 있던 보옥으로 만든 띠 고리와 검도까지 풀어서 보내 주었다. 기유년(1429) 여름에 성균관에 거동하시어 선왕을 뵈옵고 선비를 뽑았다. 나라 사람들이 항상 금은은 우리나라 산물이 아닌데 명나라 조정에 해마다 공물로 바치는 것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근심하므로 이에 친 아우 함녕군 인을 보내어 연유를 갖추어 진술했으니 천자가 특히 허락하여 바치는 것을 면해주고 대신 토산물로 정성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인에게 상사품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이해 겨울에 천자가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조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왕의 나라에 도착하거든 왕은 다만 예로 대접할 뿐 물건을 선사하지 마라, 왕의 부지는 조정을 공경히 섬김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두터움을 집이 깊이 아는 바이니 좌우 근실들의 이간질할 것이 못된다하고 또 칙서를 보내어 이르기를 왕은 가히 탁월하게 어진 왕이로다 하였다. 이보다 먼저 파저강 같은 곳의 야인이 서로 다른



부족들과 연결함에 그들의 노략질을 당한 요동, 개원 등 변방의 군인으로 우리나라에 도망하여 온 사람이 500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북경으로 보냈으니 아인들이 분을 품어 우리 북변을 범했다. 계축년 봄에 판중추원사 최윤덕, 중추원사 이순몽 등에게 명하여 나가 토벌하게 하니 그 괴수 이만주 등이 새같이 도망하고 짐승같이 달아났으므로 그들의 근거지를 헐어버리고 돌아왔다.

갑인년 봄에 또 선성을 보습고 선비를 뽑았다. 3월 병오에 헌릉(태종)을 배알하니 감로가 송백에 내리고 또 경복궁 후원 소나무에도 내렸다. 백관이 하례드리기를 청했으나 받지 않았다.

함길도 북문에 연한 강주군은 본래 고구려의 옛 강토요, 우리 조종이 왕업을 일으킨 땅이다. 그런데 아인의 점령한 바 되더니 비로소 회령, 종성, 은성, 경원, 경흥 등 제진을 설치하여 옛 강토를 회복하였다.

을묘년(1435)봄에 선종이 돌아가고 지금 상황제가 즉위함에 표문을 받들어 위로를 드리니 천자가 사신을 보내 비단을 주었다. 정통 무오년(1438) 8월에 또 원유관복을 주었다. 임술년(1442) 5월에 달달이 사람을 시켜 글을 가지고 북문에 이르렀음을 초유하였다. 변장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왕이 없다. 이제 대명이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너희들이 어찌 무도한 말을 하는가 하고 끝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세종께서 북경에 사신을 급히 보내 상주하니 천자가 기뻐하여 상을 내렸다. 갑자년(1444) 봄에 칙서를 보내 이르기를 지시한바 변방일을 모두 잘 따르고 받들어 여기거나 게으름이 없으니 왕은 어질도다 하고 특히 곤룡포를 주어 은총을 표시하였다.

대마, 일기 등 섬의 왜적들이 명나라 연해땅을 침범하고 또 우리 제주의 지경도 범하였는데 변장이 다 잡지 못하고 본도로 도망친 자가 있으므로 세종이 사람을 보내 도주를 타일러 잡아 보내게 하니 도주가 명을 받들고 모두 수색하여 잡아 보냈으므로 드디어 북경으로 압송하여 처단을 받게 하였으니 전후의 인원이 대략 60여명이었다. 천자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칙서를 보내 이르기를 왕은 능히 너의 선왕이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섬기던 마음을 본받아 공손하고 정성스러움이 오를수록 더욱 두터움으로 조정의 돌봄과 대우가 더욱 융숭하니 가히 군신이 한마



음이라 이르겠고 종시에 변함이 없다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변방을 침범한 왜적을 묶어 보내니 왕이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뜻을 보겠고 또 변방을 지키는데 사람을 잘써서 횡포를 막은 공이 있음을 보겠도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조정에서 착함을 아름답게 여기고 어진 것을 중하게 여겨 예로 대우하기를 융숭하게 하노니 덕이 후한 이는 사랑과 영화를 받는다는 옛말이 왕에게 해당한다 하였다.

동량북에 사는 오랑개 낭포야은두는 일찍이 아버를 죽인 자인데 이 해에 와서 조공하였다. 세종께서 생각하시되 대역한 자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왕법에 용서하지 못할 것인데 동량북은 우리 국경에 가깝고 오래토록 우리 왕화에 젖었은즉 베지아니할 수 없다하고 국경 위에서 찢어 죽이고 하교하여 아인에게 태일렀더니 아인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을축년(1445)에 근심과 과로로 병을 얻으시니 지금 임금전하께 명하시어 정무를 참결하게 하였다.

병인년(1446)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음운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게하니 오랑개와 중국의 여러 소리를 번역하여 통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 제작에 정미함이 가히 고금에 뛰어났다고 하겠고 무진년(1448)에 원손 흥위를 봉하여 왕세손으로 삼았다.

기사년(1449) 가을에 지금 황제가 즉위함에 표문을 받들어 하례하고 또 말을 보내어 변방에 경계를 도왔다. 황제가 한림시강 예겸, 형과급사중 사마순을 보내어 폐백을 내려주었다. 우리나라는 태조고황제로부터 구장면복을 내려받았고 품질은 친왕과 비하였다. 오직 왕세자께서 아직 면복이 없으시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 부족하게 여기더니 세종께서 칠장면복을 청하여 마침내 허락함을 받았다. 세종께서는 지극히 효도를 하시어 수강궁에 문안드릴제 화기찬 얼굴빛과 부드러운 얼굴이며 옥을 잡은 듯 가득찬 것을 드는 듯이 조심함은 전세에 모든 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요, 상사와 제사를 당할 때 모든 예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두 법도에 맞았다. 비빈이하를 은혜로 대접함이 각각 그 분수를 다하니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여러 아들을 의방으로 하여 적서존비의 등급이 분명하였다. 모두 학문을



좋아하여 이치에 통달하여 마침내 교만하고 게으르고 사치하고 경박한 습관이 없었다. 아침 저녁마다 정성할제 주옥이 서로 연하듯 하고 기러기출처럼 차례로 들어가서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종사인지의 경사있음을 감탄하였다. 처음 태종께서 제(양녕대군)를 밖으로 내쳤으나 세종께서는 수시로 불러 보셨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오시게 하고 친애하여 혐의없으시니 여러 신하들이 굳이 간하여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셨다. 두 형을 섬기고 여러 아우를 대접함에 우애의 정을 다하시고 종실의 여러 친척에게도 자주 만나 보시고 술을 내려 즐기시고 유복의 친척은 모두 재능에 따라 적을 주시고 촌수가 멀고 먼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부역을 면제하여 주셨다. 외척에 이르기까지도 대우함이 또한 마땅함을 얻었다.

또 종학을 설치하시어 태조의 손으로 종적에 속한 사람이면 모두 글을 배우게 하니 교양의 방법이 지극하였다. 여러 신하를 예로서 대우하시고 착한 이를 가상히 여기시고 능하지 못한 일의 권한을 맡기지 않으셨다. 사대의 예는 지성에서 나와 무릇 바치는 문서와 토산물은 스스로 살피지 아니함이 없었으므로 여러 황제가 사랑하고 돌보아 물품을 하사한 것이 융숭하고 가상히 여겨 포장하는 말이 전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왜국이 보배를 바치고 아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남으로부터 오고 북으로부터 와 꼬리를 물어 끊어지지 아니하여 높이고 친하고 감격하여 추대함이 심복한데서 나왔다. 전주, 출척의 법을 내세웠으되 지극히 자세하고 구비되니 요행으로 자리를 얻은 것은 자취를 감추고 현량이 나와 쓰이게 되었다. 수령이 하직할 때는 인견하시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를 하도록 타이르시니 사람마다 힘을 다했다. 농상에 유의하여 책을 만들어 권유하고 받기는 것을 살피고 거두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즐겨하였다. 손실의 폐단을 개혁하여 공법을 정하고 농토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연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그 세를 올리고 내리게 하여 삼대 즉 하, 은, 주의 공(세금 바치는 일)과 철(하나라의 전제)의 법을 복구하였다.

유사에게 명하여 종과 경쇠를 만들게하여 율관을 붙여 음성을 조화하게 하니 아



악이 일신하였다.

회례에 쓰던 여악을 처음으로 철레하였다. 또 조종의 공덕을 서술하여 정대업, 여민락등의 악장을 지으시니 소리와 의식의 아름다움을 극하였다. 당속악보를 만들어 느리고 빠른 음조를 고르게 하시어 사람마다 악보만 있으면 악사에게 번거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음악이 각각 발음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옛날에 없던 것이다.

고금의 예설을 참작하여 오례의를 정하니 정과 문의 갖춤이 극진히 하였다. 처음으로 양로연의 예를 설정하여 남자면 친히 임석하시고 여자면 왕비가 친히 대접하고 주군에 있는 노인이면 수령이 친히 대접하도록 하였다. 100살 이상의 노인이면 달마다 술과 고기를 보내고 80이상의 늙은이에게는 작을 주되 차등이 있게 하니 이에 은혜가 미치지 아니함이 없다. 재변을 만남에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흉년을 구제하고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데 진심진력 하였으니 모두가 실지를 일삼고 겉치레를 하지 않았다. 칠정산내외편을 찬하고 여러 의상과 규표 및 흠경, 보루등의 각을 지었다.

훈상, 성귀정시의, 양부의, 한양일출입분은 모두 스스로 창제한 것이다. 이제 천문역수가 비로소 틀림없게 되었다. 삼강행실을 편찬하여 풍속을 격려함이며 명황계감을 지은 것은 안일하고 향락에 빠짐을 막음이고, 통감훈의와 치평요람을 편찬한 것은 역대의 흥망을 보게 한 것이요, 역대병요를 편찬한 것은 평화로운 때 전쟁을 잊지않게 한 것이요, 의약제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정하여 새것과 같이 하였다. 주자와 기리고의 유에도 매우 하지 아니함이 없다. 진설을 지어 진법을 일으키는 것을 사열하고 단감을 더욱 수리하고 화통을 더 제조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갑병을 훈련하니 무비가 엄하여졌다.

법률이 밝고 옥사를 다스림이 공평함에 형벌이 밝아졌고 술을 경계하고 형벌을 가없이 여겨 모두 교서를 내려 관리를 단속하였다. 이 때를 당하여 비록 백공기 예라 하여도 다 그 능력을 정밀하게 하였다. 상림원관 갖추기를 청하였더니 하교하기를 내 전성이 화초를 즐기지 아니하니 유사는 마땅히 실제에 힘쓸 지어다. 뽕나무, 닥나무, 과일나무는 모두 일상생활에 요긴한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이후



로는 이로써 직책을 삼음이 옳을 것이다 하고 일찍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옛 역사를 보니 태평한 세상에도 오히려 옷자락을 잡아드리며 간절히 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비록 조금 편안하다 하나 아직 옛날에 미치지 못하는데 곧은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음은 어쩐일인가 하고 항상 마음을 열고 간구함을 구하며 신하들로 하여금 할말을 다하게 하는데 힘써 말이 비록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찍이 죄를 주지 아니하고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이 반드시 대신과 의논한 뒤에 행하신 까닭으로 잘못된 처사는 없었다. 경태원년 경오 (1450) 봄 2월에 병이 드심에 의원은 그 기술을 다하였고 신에게 두루 빌었으나 끝내 효험이 없어 17일 임진에 별궁에서 돌아가시니 춘추가 54세요 왕위에 계신지 33년이였다. 신하들과 백성이 은택을 흐뭇하게 입어 모두 대덕은 반드시 오래 삶을 얻어 길이 만년을 누릴 것이다 하였더니 문득 만백성을 버리시니 아아! 슬프다 대소신료와 하인, 종에 이르기까지도 실성 통곡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임금께서 유명을 받들어 재궁 앞에 즉위하시고 거상에 예를 다 하셨다.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책보를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 대왕의 시효를 올리고 묘호를 세종이라 하였다. 여름 6월 12일 갑신에 영능의 서실에 합장하니 유명이였다. 부고가 전함에 천자가 매우 슬퍼하고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내렸다. 또 고명을 내려 장헌이라 시효를 주고 우리 전하에게 부의를 특히 후히 주고 왕위를 이에 책봉하고 곧면구장을 주고 왕비에게는 관복을 주었다. 우리 전하에게 주신 고명에 대략 이르기를 고 조선 국왕이 자애하고 겸손하고 총명하고 특달하여 선을 즐기고 이치를 따라 터럭같이 적은 일이라도 조심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상국을 섬기기를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했으므로 인후한 덕이 나라 사람에게 믿어지고 공이 변경에 나타났다. 조선이 나라가 생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왕과 같은 이는 드물었다. 너 이모는 바로 그 세자로 충효에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조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니 순서로나 덕으로나 마땅히 왕위를 계승해 받아야 한다. 충성하고 효도하여 길이 아버지의 행실을 따를 지어다 하였다. 대체로 우리 세종에게 거룩한 덕이 사해에 빛나고 천조에 들린 까닭으로 종시 애영의 은전이 이와같이 지극하였다. 아아! 성하구나 ! 왕



후의 성은 심씨로 청송의 이름난 집이다. 증조 휘용은 고려 문하시중 청화부원군에 증작되고 할아버지 휘 덕부는 고려 공민왕을 섬기어 두번 문하시중이 되고 우리 공정왕조에 이르러 문하 좌정승이 되어 청성군에 봉하였고 아버지 휘은 영의정부사 청천부원군에 봉하였다. 어머니 안씨는 삼한국대부인에 봉하였는데 영돈령부사 천보의 따님이다. 후께서는 나면서부터 착하고 아름다웠다. 태종께서 잘 골라 뽑아와 빈이 되어 경숙옹주에 봉하였다. 양궁을 공경히 섬기어 은총을 두텁게 받았다.

세종께서 왕세자로 봉하게 됨에 후는 경빈으로 봉하였고 세종이 즉위함에 후는 봉하여 공비가 되었다. 선덕 입자년(1432)에 예관의 말을 좇아 미칭을 버리고 왕비라고 고쳐 봉하였다. 후는 정숙한 덕이 있어 세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에 왕후가 나고 드는 때에 반드시 일어나 깊이 경례를 하였다. 중궁이 됨에 여러번 천조의 상사를 받았다. 왕후는 빈과 첩들을 예로서 대접하고 아래로 시녀에 이르기까지도 다 은혜를 베풀었다. 서출자도 모두 자기가 낳은 아들같이 여기고 어루만져 사랑하였다. 수라를 드실 때는 반드시 몸소 입하여 살펴보시며 정성과 공경을 다 하였다. 경계를 드리는 도움이 있고 사사로이 청함이 없었다. 중궁이 바르니 덕화가 나라안에 흘러 멀리 태사씨의 풍도를 좇으셨다. 정통 병인년(1446)봄에 병을 얻으시니 세종께서 밤낮 친히 병을 돌보고 우리 전하께서 곁에 모시어 탕약을 받들었으나 3월 24일 신묘에 돌아가시니 향년 52세 였다. 시호를 소현이라고 7월 19일 을유에 영능 동실에 장사 지냈다. 왕후는 8남 2녀를 낳으시니 큰 아들은 바로 지금 전하이시고 다음은 세조 유이니 수양대군에 봉하고 다음은 용이니 안평대군이요 다음은 구이니 임영대군이요 다음은 여이니 광평대군인데 일찍 죽었고 다음은 유이니 금성대군이요, 다음은 임이니 평원대군인데 역시 일찍 죽었고 다음은 염이니 영웅 대군이다. 장녀는 비녀를 꽂지 못하고 죽었는데 정소공주라 증하고 다음은 정의공주로 연창위 안맹담에게 하가 하였다. 신빈 김씨가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증으로 계양군이요 다음은 강으로 의창군이요 다음은 침으로 밀성군이요, 다음은 연으로 익현군이요, 다음은 장으로 영해군이요 다음은 거로 담양군인데 복중에서 죽었다. 혜빈 양씨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은 어로



한남군에 봉하고 다음은 현이니 수춘군이요 다음은 전이니 영풍군에 봉하였다. 숙원 이씨는 1녀를 낳았는데 정안옹주로 아직 비녀를 꽂지 못하였다. 삼침송씨가 1녀를 낳았는데 정현옹주로 영천위 윤사료에게 하가했고 궁인 강씨가 1남을 낳았으니 영으로 화의군이다. 우리 전하의 현덕왕후 권씨는 증 의정부 좌의정 전의 따님으로 1남 1녀를 낳고 돌아갔다. 아들 흥위는 지금 왕세자에 봉하였고 딸은 경혜공주로 영양위 정종에게 하가하였다. 사칙 양씨가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수양은 증 좌의정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덕종이 된 도원군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측실 박씨가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안평은 증 좌의정 정연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우직은 의춘군이요, 차남은 우직으로 덕양군이다. 임영은 증 우의정 최승령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2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 주는 오산군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광평은 첨지중추원사 신지수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1남을 낳았으니 보로 영순군이고 금성은 증 좌의정 최사강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다. 영응은 증 좌의정 정충경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화의는 승정원 동부승지 박중손의 딸에게 장가들고 측실 김씨가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계양은 관중추원사 한확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1남을 낳았는데 어리고 의창은 부지통례문사 김수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한남은 호조정랑 권격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어리고 밀성은 인순부소윤 민승서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1남을 낳고 수춘은 부지통례문사 정자제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고 익현은 예빈소윤 조철산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영풍은 사헌집의 박팽년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영해는 증 좌찬성 신동윤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정의공주가 4남 2녀를 낳았는데 장녀는 돈령부승 정광조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정현옹주가 2남을 낳았는데 다 어리다. 의춘은 우의정 남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신이 그윽히 생각하건대 조화의 묘함은 물로 나타나고 성인에 마음은 정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생지의 성인으로 중을 세우고 극을 세워 인류의 지극함이 되



어 잘 계승하여 제왕의 효도를 드러내었습니다. 구족이 이미 화목함에 만 백성이 다 화하고 모든 일이 다 화함에 명성이 넘쳐 흐르셨습니다. 천자가 그 충서되고 어짐을 포장하여 내리심이 실로 많았고 이웃나라는 그 정성스럽고 미더움에 감복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서로 연달아 왔습니다.

신은 종사하기 10년이옵고 정부와 6조에 출입하기 20년에 그 맑은 빛을 가깝게 모셨사온데 참으로 지극히 광대하시어 정미함을 다 하였고 고명을 극도로 하며 중용으로 말미암았으니 실로 동방의 요순이옵고 소현왕후는 곤후의 덕으로 건강의 성인에 짝이시어 어머니로서의 모범을 한나라에 보이시고 덕화가 사방에 미쳤으며 또 다남의 경사가 있으시와 우리 전하를 낳으심에 성덕이 있으시어 대통을 이으셨습니다. 또 어관의 사랑을 이루며 종우와 같이 자손이 많으셨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신 배합이시오, 주나라 태사와 짝할만 합니다.

신은 필력이 거칠고 웅졸하여 성하고 아름다움을 칭송할 수 없사오니 천지의 쿼를 그리고 일월의 밝음을 칭찬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명을 받자옵고 감히 사양치 못하여 머리 조아려 절하옵고 명을 드리나이다.

순임금은 이어 거듭 빛내고 진실로 맑았다. 무왕은 문왕을 이어 왕업을 창성하게 하였다. 덕이 성한 이는 제(帝)가 되고 공이 높은 이는 왕이 된다. 빛나는 문채가 있어 곧 밝은 빛을 주셨다. 어진 이에게 주고 아들에게 줌은 하늘이 진실로 명함이요, 혹 선위하고 혹 계승함은 오직 공이요, 사가 아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은 하늘이 낳으신 생지이시고 효제의 성품이요, 충신의 자질이시다. 학문을 좋아하시어 게으르지 아니하시니 주공의 뜻이며 공자의 생각이로다. 밝고 밝은 태종은 오직 미묘하고 깊으셨다. 어두운 이를 폐하고 덕있는 이를 명하시니 요임금과 문왕의 마음이로다. 천자의 조정에 아뢰니 황제의 허락이 내리셨다. 부지런하다가 지치시어 이에 왕위를 물려 주셨다. 천자가 책명을 내리어 사신이 드디어 이르렀고 천자가 연회를 내려주시어 주행을 보이셨다. 도가 그 몸에 쌓이어 총명하고 슬기롭도다.

밤에 일어나고 늦게 드시며 정성을 기울여 다스림을 도모하시어 받은 책임을 능히 하시니 부왕께서 기뻐하셨다. 양궁이 즐겁게 받으시며 기쁜 안색이요, 환한



얼굴이었다. 용루에서 문안 드림에 더욱 정성되고 더욱 공손하였다. 상사에 슬픔을 다하시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셨다. 하늘이 감로내려 그 신령함을 밝히셨다. 궁중에서 화합하여 은혜가 치우침이 없으시고 가법이 바르매 사람이 이간할 수 없었다. 백형이 밖에 있음에 자주 보도록하고 얼마 후에 불러올려 우애가 더욱 두터웠다.

효도를 미루어 형제가 화목하고 화악이 서로 즐기는 것은 서로 빛내도다. 구족에 미치기까지 은택을 베풀었도다. 진진한 모양은 선선한 메뚜기로다. 의방으로 가르치니 서를 읽고 시를 외우매 등급이 분명하였고 적서가 분수에 따라 못 신하를 예우하며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지성껏 대국을 섬기니 천자가 가상히 여겨 포장하였다. 무엇을 주셨는가, 조환과 보도로다. 또 무엇을 주셨는가, 곤룡포로다, 예로써 이웃을 사립에 이웃나라가 친하고 화하도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예물을 가지고 오니 만리가 한 집이로다. 백성이 이미 잘 살고 번성함에 인의로 점점 교화시켰네. 인에 그치고 효에 그치고 공경에 그치고 믿음에 그치셨네. 중을 세우고 화를 극도로 하니 인륜이 요순이로다.

임관하는 법이 정하고 자세함에 요행을 바라는 자 자취를 감추었다. 어진 이에게 직책을 맡기고 능한 사람을 부리니 각각 그 직책에 알맞도다. 전제를 이미 정하니 교활한 아전이 손을 움추리고 걸도 아니요 맥도 아님에 수세가 어김없었네. 처음으로 의상을 만드시고 다음으로 울력을 정하시어 오례는 손익하시니 정과 문이 극진하였도다. 음악의 소리와 의식을 새로이 하시어 조정의 공덕을 칭송하였네. 모임에 아악을 쓰고 비로소 여악을 물리치고 양로연에 친히 임하시어 가을로 정식을 삼으셨네. 서사를 편찬하여 정치의 독실을 거울삼고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우속을 씻으셨네. 공물에 토산만을 하기로 천자의 칙서를 받았고 세자에게 칠장면복을 내리니 온나라에 빛이 났도다.

모든 시설하신 것이 자손에게 전할 만 하지 않음이 없고 진을 북방에 설치하니 옛 강토가 회복되었도다. 위엄과 덕이 멀리 덮으니 북종하지 않는 곳이 없었네. 군사가 북을 가리킵에 적의 괴수 주둥이로 숨을 쉬었네. 비로소 소굴을 치니 저 스스로 전복되었고 글월 한 장 남으로 보내니 왜놈들이 항복했네. 명나라 서울로



보내어 처단받게 하였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않으시고 다스릴 때 어지러움을 잊지않으셨는데 성과 보루는 험한데 의거하였고 창과 칼을 준비하였네.

전함을 새로 만드니 견고함이 철석같고 화통이 틀에서 발함에 빠르기가 벽력같아 군자와 기계는 전보다 훨씬 충실하였네. 호생의 마음으로 더욱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니 형벌이 공평하여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네. 백공기에도 모두 법칙에 맞았네. 완호를 즐김없으시고 질실을 위주하셨네. 더욱 겸손하여 바른말 구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하시니 높으신 덕이요, 빛나는 문해로다. 이름할 수 없는 거룩함이요, 막대한 공이시다. 우리나라 주나라와 더불어 짝하겠고 한나라 당나라에서도 듣지 못하던 것이네. 33년간 부모되고 임금되셨네.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어 문득 신민을 버리시니 멀고 가까운데서 슬픔에 얽혀 애모하기 어버이 같이 하네.

우리 임금 위를 이으심에 지극한 효도가 천성에서 나오시니 밝음으로 밝음을 이으시고 성인으로 성인을 이으셨네. 천자가 조상을 하며 제를 내리고 뇌사지으셨네. 절제로 이름 정하여 아름다운 시로 내리셨네. 후한 부의가 또한 이르러 온전을 베푸셨네. 왕작을 잊게하고 면복을 주셨네. 내리심이 왕비에게까지 미치어 구슬관과 유적이로다. 천자의 은혜가 실은 두텁도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왕후는 하늘의 아가씨에 비하겠네. 왕가에 시집오시어 궁중 정위에 앉으시니 태사의 덕으로 문왕의 짝이로세. 성주를 낳으시니 나라 운수 더욱 성하도다. 많은 아들두어 진지를 읊었도다. 실로 우리 동방에 역년의 경사였네.

아아! 선왕이 거울 잃음을 탄식하더니 다섯돌이 못되어 문득 돌아가셨도다. 능을 만들어 같은 궁에 실은 다르네. 우러러 일각을 생각하오니 오장이 아프고 찢어지네. 오직 거룩한 덕이 만대에 한결 같으리. 삼가 대략을 기록하여 절하옵고 명사를 드리나이다. 하늘처럼 길이 가고 땅처럼 오래 가도록 한없이 빛나오리.

【 정인지 지음 】



### ●세종대왕의 병력(病歷)

세종대왕은 22세에 왕위에 올라 5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세종시대가 문화의 중흥기요 태평성대였으므로 대왕의 일생이 행복으로만 점철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세종대왕은 끊임없이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런 고통 중에도 정무를 게을리 하지않고 꼬박 경연에 참석하는가 하면 끝없이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면서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찬란한 업적을 이루하였다. 여기에 세종대왕의 위대성이 있다 할 것이다. 실록에 실린 세종대왕의 병력을 찾아보자.

사신을 따라 조선에 왔던 요동의원이 말하기를

“전하의 병환이 상부는 성하고 하부는 허한 것은 정신적으로 과도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하는 동안에 맥이 4번씩 뛰어 평화한 맥과 같은 듯하나 오른 쪽 맥은 침하면서 활하고 왼쪽 맥은 침하면서 허합니다.

답이 흉격사이에 기가 유통하지 못하고 수화가 오르내리지 못하니 먼저 소담할 약을 복용하고 다음에 비위를 온화하게 할 약을 복용한 다음에 조리할 약을 진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종 7년 7월 25일

우대부언 송인산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춘추계절에는 풍질이 발작하는데 지난 여름에는 한달을 이어 병이 발작하였고 문소전과 헌릉에 별제를 행하기 위해 탕에서 목욕할 즈음에 상풍으로 부종이 나고 조금 신열이 난다.” - 세종 13년 8월 13일

좌대언 김종서에게 말하기를

“ 내가 풍질을 얻은 까닭을 경은 알지 못할 것이다. 저번에 경복궁에 있을 적에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한낮이 되어 잠시 이층에 올라가서 창문 앞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더니 갑자기 두 어깨 사이가 찌르듯이 아팠는데 이튿날에 다시 회복되었더니 4,5일이 지나서 또 찌르듯이 아프고 밤을 지나매 약간 부었는데 이 뒤로부터는 때없이 발작하여 혹 2, 3일이 지나고 혹 6, 7일을 거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여 드디어 묵은 병이 되었다.” - 세종 13년 8월 18일

김돈에게 이르기를 “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년에 이



르러 조금 나왔는데 또 등에 부종으로 아픈 지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지난 계축년 봄에 온정에 목욕하고자 하였으나 대간에서 폐가 백성에 미친다고 말하고 대신도 그 불가함을 말하는 이가 있었다. 내가 두세 사람의 청하는 바로 인하여 온정에서 목욕을 하였더니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간혹 다시 발병하는 때가 있으나 그 아픔은 전보다 덜하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왔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입질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좀 나왔다. 지난봄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이로인해 어두워서 한 걸음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가지 병이 나오면 한가지 병이 또 생기매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 세종 21년 6월 21일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눈병이 날로 심하여 친히 기무를 결단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처결하고자 한다. 내가 눈병을 앓은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나 근래 5년 동안은 더욱 심하니 처음 병이 났을 때에 이와같이 극도에 이르게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잘 휴양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지금에 와서 후회한다. - 세종 24년 5월 3일  
우부승지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병이 위중하여 위태로운 증상이 백에 하나도 살 가망이 없었지만 을사년에는 내 병이 심하다하여 외간에서 관곽을 짜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무슨 증세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세종 31년 11월 15일

하연, 황보인등에게 이르기를

“나의 안질은 이미 나왔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던 것도 조금 가벼워졌으며 오른쪽 다리의 병도 차도가 있음은 경등이 아는 바이지만 근지에는 왼쪽 다리마저 아파져서 기거할 때면 반드시 사람이 곁에 부족하여야 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두근거리노라.” - 세종 31년 12월 3일



### ●영릉의 풍수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번지에 사적 제 195호인 영릉이 있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이다. 이곳에 세종대왕을 모심으로서 조선왕조를 1백년 더 연장시켰다고 할 정도로 왕릉중에서 제일로 치는 명당이 영릉이다. 영릉에 들어서면 굳이 풍수지리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공기가 맑고 바람이 잔잔하며 특히 겨울에 아무리 눈이 많이내려도 오래 쌓여있는 법이 없는데 이는 이곳의 땅기운이 왕성해 눈을 빨리 녹이기 때문이다.

영릉의 청룡 백호는 완벽에 가깝도록 혈을 감싸고 있어 보국을 이루었다. 세종대왕을 모신 혈의 주변은 평탄하고 원만하여 혈의 생기가 조금도 흩어지지 않고 화기로 가득 차 있다. 영릉의 형국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그 하나가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다. 풍수지리서에 소개되는 물형도에서는 이를 반사형(盤蛇形;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형국)으로 표현한다. 회룡고조형은 자기가 달려온 뒤를 되돌아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쉬운 듯 그리운 듯한 모습을 한다. 또 자기 조상(太祖山)을 쳐다보는 형상이기에 교만하지 않고 공손하다. 반면 조상인 태조산이 귀여운 손주보듯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항상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형국의 지기가 감응되는 곳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에게 어울리는데 세종대왕과 꼭 합치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영릉을 두고 풍수가에 따라서는 여러 산봉우리와 산줄기가 마치 꽃잎모양으로 혈을 감싸고 있으므로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이라고도 하고,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라하여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이라기도 하며, 세종대왕을 모신 혈을 군왕이라보고 주변 산들의 형태를 배알하는 신하들로 보아서 왕이 신하들과 조회하는 모습과 흡사하므로 군신조회형(君臣朝會形)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곳을 봉황의 형국으로 보는 이도 있다. 혈의 좌우에 있는 청룡 백호가 비단 장막처럼 펼쳐져 있으니 봉황이 날개를 편 모습이요 여기에 다시 주산인 북성산이 봉황의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형상이니 암·수 두 마리의 봉황이 서로 마주 보고 즐기는 형상 즉 봉황상락형(鳳皇相樂形)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설명은 제각



기 다르지만 한결같이 영릉을 명당으로 지칭하고 있다. 영릉 주위의 물흐름 또한 좋다. 백호가 길게 내려가 청룡을 품은 듯이 수구를 막고 있고 수세는 우수도좌(右水倒左)하여 음인 용과 양인 물이 서로 음양교합하였다. 파구의 방위는 손사파(巽曰破)이므로 좌향은 팔십팔향중 가장 좋다는 정양향(正養向)으로 향을 하였다.

영릉의 주산이면서 안산인 북성산의 맥이 용문산에서 남한강을 건너왔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개 속리산에서 뻗어 온 것으로 본다. 조선 영조때 신경준(申景濬)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산경표(山經表)에 보면 우리나라 산맥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중심으로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으로 구분된다. 이 백두대간이 한반도를 흘러내리다가 속리산에서 분맥을 하는데 이것이 한남금북정맥이다. 이 정맥은 죽산의 칠현산에서 금북정맥과 한남정맥으로 나뉘고 한남정맥은 다시 용인 원삼면 문촌리에서 갈라지며 그 한 줄기가 양지를 거쳐 이천 노승산에 이르렀다가 여주의 연대산, 신통산, 대포산을 지나 북성산에 다다르게 된다. 그동안 과협(過峽), 기복(起伏), 박환(剝換), 개장(開帳), 천심(穿心)등 수많은 변화과정을 거듭해온 산줄기는 북성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지막 변화를 시도한다. 천천히 숨을 고르듯 능 뒷쪽에 야트막한 현무봉을 일으켜 세운 산줄기는 여기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 커다란 용이 요동을 치듯이 힘차게 나가다가 주산인 북성산을 바라보고 상서로운 혈을 이루니 이것이 바로 영릉인 것이다.



**세종대왕 어록**

“전에 내린 전지에, ‘지금 들건대, 도내에는 흉년이 들어서 여러 군의 백성들이 그 전택과 재산을 버리고 유리(流離)하여, 먹을 것을 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혹은 늙고 파리한 어버이를 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으며, 어린아이를 내버리고 구휼하지도 않는다 하니, 참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기니, 도내에 자세히 방문하여 과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을 버리고 이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늙은이와 어린애를 버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결코 숨기거나 빠뜨리지 말고 수효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또 소재한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휼하여 모두 편안히 모여 살게 하여서, 사는 곳을 잃지 말게 하여 나의 인애로써 구휼하는 인정에 부응하게 하라.’



### ●세종대왕릉 이장 내력

세종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인 문종은 즉위한지 겨우 2년만에 승하하고, 그 아들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영월 땅으로 유배되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등 나라에 크고 작은 변고가 많아 현릉 아래에 있는 영릉이 길지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

이에 세조께서 신숙주, 한명회, 서거정 등에서 명하여 영릉의 개장을 논의케 하였다.그러나 서거정은 “천장을 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함인데 왕자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며 이장을 반대하여 옮기지 못했다.

세조가 승하한 뒤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영릉의 천장문제가 거론되었고, 예종은 1468년 노사신, 임원준, 서거정 등을 여러 곳에 파견하여 천장할 땅을 물색토록 하였다.

이중 한개는 광주·이천 땅을거쳐 여주 땅을 답사하게 되었다. 산천이 수려하고 강물이 맑은 북성산(北城山)에 대신들과 지관이 올라 사면을 바라 보았다. 마침 산기슭에 정기가 어리어 있는 곳이 있어 찾아 올라가 주위 지세를 살펴보니 이곳이 풍수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세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곳에는 세조때 대제학을 지낸 이계전과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李仁孫)의 묘가 있었다. 일행은 서울로 돌아와 예종에게 살펴본 내용을 복명하였다. 몇 군데 산릉 자리를 살펴 보았지만, 이계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자손이 창성하고 만세에 승업을 계승할 땅이라며 왕릉을 모실 장소로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였다.

예종은 이계전의 무덤 자리로 영릉을 천장하기로 결정하고 정인지, 강희맹, 서거정 등을 천릉 도감으로 삼고 산릉의 일을 나누워 담당하도록 당부하였다.

예종은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이인손의 맏아들 이극배를 불러 그 자리를 비워



달라는 말을 못하고 은근히 당신의 뜻을 비추셨다. 이에 이극배는 아우들과 상의한 끝에 자리를 내놓았고 예종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장할 수 있었으며, 예종은 부모의 묘를 천장하는 것은 매우 애절한 일이라며 이극배를 의정부 우참찬(정2품)으로 승진시키었다.(『예종실록』 권3)

이극배의 집안에서도 이장을 하기 위하여 산소를 파 유해를 들어내니 그 밑에서 비기를 새겨 넣은 굴 한귀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연을 날리어 하늘 높이 떠오르거든 연줄을 끊어라. 그리고 바람이 날리어 연이 떨어지는 곳에 이 묘를 옮기어 모셔라.”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연은 바람에 날리어 서쪽으로 약 10리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그 자리에 이장을 한 후에도 자손이 번창하였다 한다. 그리고 연이 떨어진 마을이라 하여 이름을 연주리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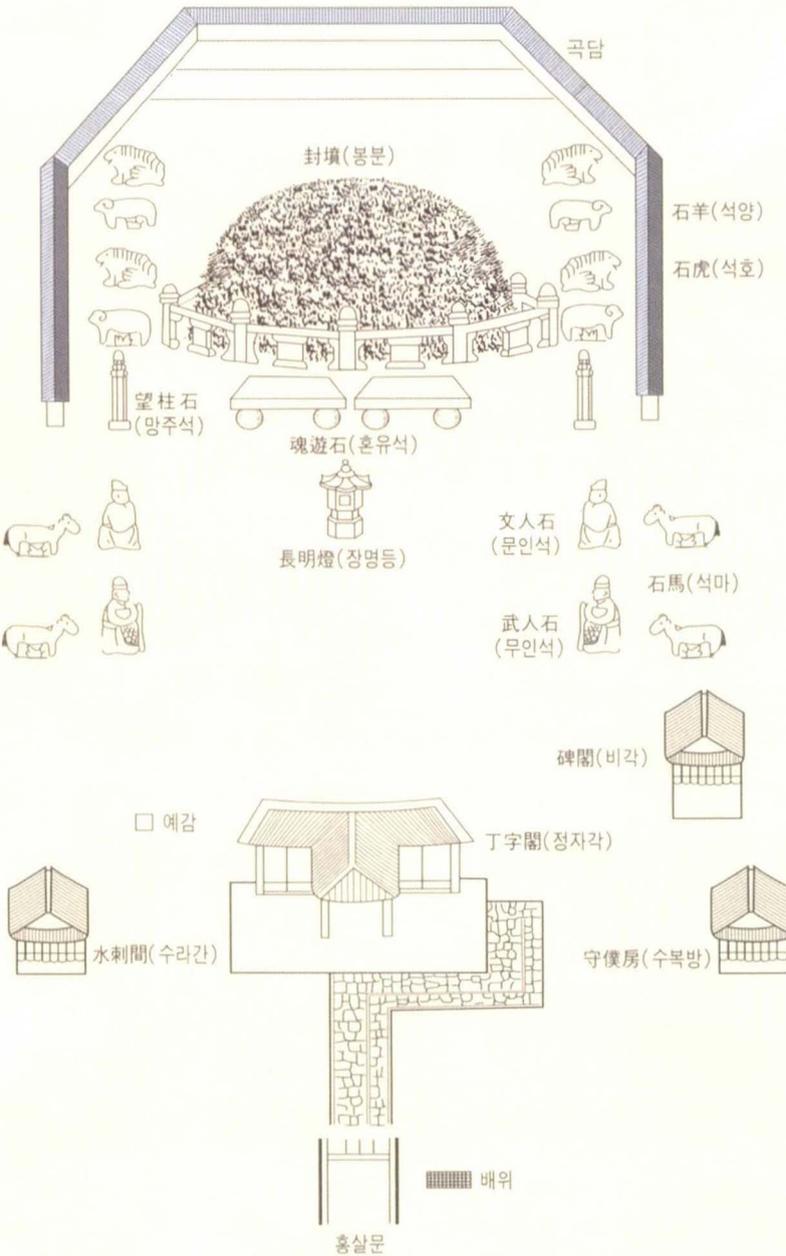
영릉을 이 자리로 이장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100년이 더 연장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를 ‘영릉가백년(英陵加百年)’이라 한다.

영릉(英陵)의 형국은 북성산이 영릉을 향하여 신하가 부탁한 형상으로 산세가 북으로 달리다가 다시 한줄기 봉우리가 솟으면서 남으로 머리를 돌려 주산(主山)인 칭성산을 감싸고 끊어진 형세를 이루어 마치 꽃봉우리를 에워싼듯한 모란반개형(丹半開形)의 명당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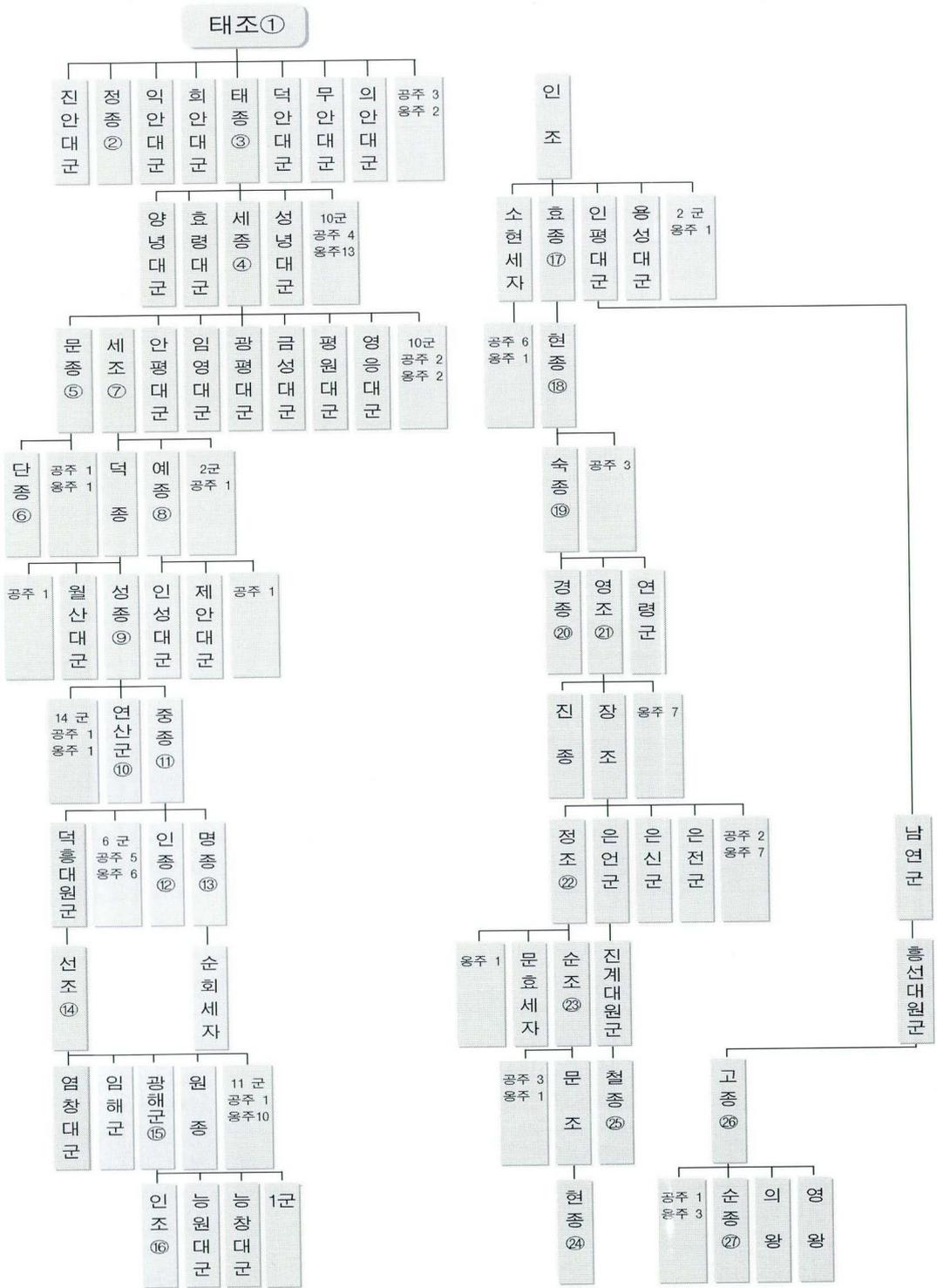
### 세종대왕 어록

“우리 나라의 의원은 의술을 정밀하게 알지 못하여 사람의 병을 진찰할 때, 방서(方書)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자기의 뜻으로써 함부로 문득 해(害)가 없다고 하면서 인명을 상하게 하니, 이제 부터는 진찰한 뒤에 함부로 해가 없다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방서를 자세히 참고하여 치료를 삼가서 하게 하라.”

# 세종대왕릉 배치도




조선왕조 가계도

## 참고문헌

경남인물지	1999년	허종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지회
국사관론총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말이 있으면 답을 타고가지	1999년	이강옥	학교재
서울 6백년	1998년	김영상	대학당
세종대왕의 어린시절	1993년	이태극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시대 문화의 현대적 의미	1998년	이영덕	한국정신문화원
세종시대의 예의범절	1996년	김성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시대의 음악	1994년	심정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학 연구	1989년	박노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양화소록(국역)	1999년	강희안	물안
이주군지	1989년	여주군지 편찬위원회	경인일보사
용산과 함께 한 역사인물	1999년	김일환	용산문화원
용재총화(국역)	1997년	성현	솔
조선왕조사	1998년	이성부	동방미디어
조선의 왕비	1999년	윤정란	차림
조선왕조실록(CD롬)	2001년	한국 데이터 베이스 연구소	서울시스템
조선왕조 5백년의 선비정신(상)	1997년	강효식	화산문화
조선왕조 중의열전	1998년	최완수	돌베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2년	이현재	한국정신문화원
한국인물탐사기	1996년	성낙현 외	오늘
한국인의 재발견	1994년	문화체육부	대한교과서(주)

## 세종대왕의 얼

---

발행일 : 2001년 5월

발행처 : 여주문화원(Tel. 031-883-3450)

발행인 : 한 만 규

글 : 조 성 문

디자인/제작 : 아인기획(Tel. 02-515-7495)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금으로 발간 되었습니다.

여주군립도서관



EM66720

